

농업인을 빛내고
농촌을 밝혀온 반세기

광양농협 50년사

1973 ——— 2023



 광양농업협동조합



허순구 조합장이 2023년 10월 31일 열린 광양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광양농협 기를 흔들고 있다.

광양농협의 다짐

광양농협은 조합원님을 정성으로 섬기며
지나온 50년을 넘어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향해
쉽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매원결의

梅園決意

조합원의 영농활동 적극 지원,
생산한 농산물은 완판(完販)!

허순구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매화밭에 모여 영농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도원결의

稻園決意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들녘에서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수확하는
허순구 조합장과
수도작 조합원들.



맛 좋은 고품질 광양쌀 생산,
우리 민족의 식량창고 사수!

전원결의

錢園決意



지역 최고의 디지털 금융센터,
전국 최고의 실력과 친절 응대!

광양농협 본점 직원들이
최고의 실력과 친절한
응대로 금융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Contents

농업인을 빛내고 농촌을 밝혀온 반세기 광양농협 50년사

GWANGYANG NONGHYUP
50th Anniversary
1973 2023

- 002 광양농협의 다짐
- 004 매원결의(梅園決意) 영농활동 지원
- 006 도원결의(稻園決意) 고품질 광양쌀 생산
- 008 전원결의(錢園決意) 디지털 금융센터
- 012 발간사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 014 격려사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 016 축 사 서동용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김용수L 광양라이온스회장
- 020 광양농협 역대 조합장 업적 및 연혁
- 024 광양농협의 임원
- 026 사무소별 직원
- 036 특별 인터뷰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제1장 사진으로 보는 광양농협

- 050 제1절 광양농협의 역사적인 순간들
- 072 제2절 광양농협의 사업활동

제2장 광양농협 반세기의 기록

- 098 제1절 꿈을 심다
광양 지역의 농협운동
- 116 제2절 뿌리를 내리다
광양농협 출범과 기반 구축
- 138 제3절 줄기를 올리다
광양농협의 알찬 성장
- 160 제4절 가지를 뻗다
광양농협의 힘찬 발전
- 202 제5절 꽃을 피우다
광양농협의 눈부신 도약
- 224 제6절 열매를 맺다
광양농협과 지역사회의 동행
- 250 제7절 다시 꿈을 심다
광양농협의 100년을 향한 비전

제3장 광양농협의 조직과 사업

- 262 제1절 정관의 총칙과 기관 및 조직
- 288 제2절 사업과 사업장

부록 자료와 도표

- 329 농협 마크 / 광양농협 기
- 330 농협의 노래
- 331 광양농협 조직도
- 332 각종 명단
- 339 수상 명세
- 342 사업실적 추이(그래프)
- 346 언론 지면에 비친 광양농협
- 351 편찬 후기



광양농협 50년을 정리하며 새로운 100년을 도모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우리 광양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양농협 5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1973년 출범해 1998년 봉강농협, 2006년 옥룡농협과 한 가족이 되면서 반세기 역사를 일궈온 것입니다.

우리 농협이 첫울음을 터뜨린 1970년대 초에는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농업생산은 기반이 허약했고, 영농 및 생활자금도 부족해 고리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필품도 품질이 조악하거나 그나마 태부족했습니다.

광양농협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농업자재인 비료와 농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영농을 뒷받침하고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상호금융을 도입해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 공급과 함께 고리채 일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연쇄점을 개점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공급함으로써 농촌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세기를 달려온 광양농협은 오늘날 본점 외에 지점 7곳과 로컬푸드직매장 및 하나로마트 각 2곳을 비롯해,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미곡종합처리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두루 갖추고 조합원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023년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예수금이 7200억 원, 상호금융대출금이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총자산은 8200억 원을 넘어섰으며, 납입출자금도 2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보험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고객들의 영농 및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 증진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광양농협은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2020~2022년도 3년 연속 제패하고, 손해·생명보험의 연도대상과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일류 농협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광양농협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오로지 3300여 분의 조합원님과 170여 명의 임직원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찬해 발간한 ‘광양농협 50년사’는 바로 조합

원님들께서 흘리신 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양농협은 그동안 잊혀졌거나 기억이 희미해져 가던 역사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농협에 대한 원로 조합원님들과 선배 임직원들의 존귀한 사랑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광양농협 50년사’는 우리 농협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역사서인 만큼, 조합원님과 임직원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부합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양농협 50년사’가 충실하게 발간되도록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 원고 감수 및 사진 선별 등에 애쓰신 편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농협은 이번에 편찬한 ‘광양농협 50년사’를 거울삼아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50년을 토대로 새로운 50년, 나아가 위대한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광양농협 조합원님과,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광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순구



광양농협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광양농협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광양농협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3년 설립된 광양농협은 끊임없는 도전과 불굴의 노력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농업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영농지원과 조합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통·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광양농협은 탁월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융자산 1조 원 달성을 비롯하여 농협손해·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 등 각 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빛나는 역사를 써내려 오신 조합원님들과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허순구 조합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50년의 역사를 넘어 광양농협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지난 성장의 역사와 조합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광양농협 50년사'가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광양농협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며, 조합원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성희

광양농협 50주년과 '50년사' 편찬을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서 동 용

광양농협이 영농인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역사를 담은 '광양농협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발간되기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허순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광양농협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주민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시민의 든든한 벼오로, 때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재해 대응까지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세월 변함없이 함께해온 여러분이 계셨기에 광양농협의 지난 50년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광양농협은 관내 최초로 금융자산 1조 원 달성과 농협 업적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우수한 조

합입니다. 또, 시대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고 유통구조도 한층 강화해서 지역 영농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중심적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양농협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50년사 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농협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양농협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농업인 조합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첫 마음 그대로 함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양농협의 지나온 50년을 기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50년의 새 역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원과 임직원의 노고가 길이 전해지기를



광양시장 정 인 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양농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광양농협 50년사'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광양농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귀한 책을 발간해 주신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농협은 지난 50년간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기관으로서, 광양의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며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광양농협은 2019년 로컬푸드직매장 개점,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준공,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등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산물 수출을 선도하는 지역농협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총 12회 수상, 농산물유통개척대상 2회 수상 등 많은 상을 받으며 우리 시 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

다. 또한 광양농협은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등 복지사업과 주차장 운용 수입금의 전액 사회 기부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양농협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조합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한 데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길이 전해질 지면을 빌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이끌어 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양농협 창립 50주년과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미래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농협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광양농협 50년 역사에 찬사를 보냅니다



광양시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온 광양농협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광양농협 50년사’가 발간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광양농협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는 책이 발간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허순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농협은 1973년 설립된 이후, 어려운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여성대학 운영,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대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최초 금융자산 1조 원 달성을 비롯하여 2020년부터 3년 연속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며 광양농협이 전국에서 으뜸

가는 농협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양농협이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세기 동안 항상 지역 농업인들과 호흡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과 3500여 조합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협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다운 농협’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농협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광양농협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광양농협의 지난 50년 역사가 앞으로 더욱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

동반자의 50주년과 연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광양농협 임직원과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 광양농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기틀이 될 ‘광양농협 50년사’가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1973년 ‘자조’ ‘자립’ ‘협동’을 힘차게 외치며 출발했던 광양농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숭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굳건히 지켜내고 농업인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금융기관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업적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금융자산 1조 원 달성,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수상,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등 사업 전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써나가고 있는 광양농협에 광양라이온스클럽 전 회원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광양라이온스클럽은 1992년 광양농협과 자매결연을 하고 30여 년의 인연을 이어오는 동안 무수한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라이온스클럽이 지

역사회에 봉사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광양농협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양농협 50년사’를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양농협이 반백 년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허순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역대 조합장님들과 임직원의 열정이 있었으며, 특히 농협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지역민과 농업인 조합원이 계셨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날 광양농협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지나온 5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양농협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광양농협 50돌’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반환점이자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위한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라이온스클럽 제51대 회장 김용수 L

광양농협 역대 조합장 업적 및 연혁



제1대 허동열 조합장

- 1973. 06. 16. 제1대 허동열 조합장 취임
- 1973. 06. 16.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소재지 : 광양읍 덕례리 8-6)
- 1973. 06. 16. 인덕3리농업협동조합 흡수합병
- 1973. 07. 07. 광양리농업협동조합 흡수합병
- 1973. 09. 19. 허동열 조합장 퇴임



제2대 길호용 조합장

- 1973. 09. 20. 제2대 길호용 조합장 취임
- 새마을운동 추진 및 농어촌 1조원 저축운동 전개
- 영농회·부녀회 등 협동조직 육성
- 1975. 04. 06. 사무소 이전(소재지 : 광양읍 인동리 399-2)
- 1975. 06. 20. 길호용 조합장 퇴임



제3~5대 정귀남 조합장

- 1975. 06. 21. 제3대 정귀남 조합장 취임(제5대까지 연임)
- 새마을운동 추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출자금 조성 1억 원 돌파(1980년)
- 1978. 12. 31. 자립조합 선정
- 1979. 12. 31. 봉사조합 선정
- 1982. 02. 08. 정귀남 조합장 퇴임



제6~8대 길창호 조합장

- 1982. 02. 09. 제6대 길창호 조합장 취임(제8대까지 연임)
- 1989. 04. 01. 명칭을 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1990. 02. 20. 본점 종합청사 신축 이전(소재지 : 광양읍 목성리 710-34)
- 1990. 02. 20. 중부지소 설치(광양읍 인동리 399-2)
- 1990. 03. 20. 길창호 조합장 퇴임



제9대 최규관 조합장

- 1990. 03. 21. 제9대 최규관 조합장 취임
- 1990. 10. 13. 북부지소 설치(광양읍 칠성리 896-11)
- 1991. 12. 31.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수상
- 1992. 11. 30. 서부지소 설치(광양읍 덕례리 1726-1)
- 1994. 03. 20. 최규관 조합장 퇴임



제10~13대 이덕재 조합장

- 1994. 03. 21. 제10대 이덕재 조합장 취임(제13대까지 연임)
- 1995. 03. 27. 북부지소 이전(광양읍 칠성리 182-9)
- 1995. 11. 04. 대일 수출오이 최초 선적
- 1996. 12. 31. 종합업적평가 전남 1위
- 1997. 12. 31. 종합업적평가 전국우수상 수상
- 1998. 01. 01. 선도복지농협 선정
- 1998. 04. 01. 봉강농협 흡수합병 및 봉강지점 운영(봉강면 봉당리 465-3)
- 1998. 08. 31. 상호금융 예수금 1천억 원 달성
- 1998. 12. 31. 종합업적평가 전남 1위
- 1999. 12. 31. 1999 농산물 수출 100만불 탑 수상
- 2000. 11. 11. 동탑산업훈장 수훈(이덕재 조합장)
- 2000. 12. 31. 2000 농산물 유통개혁 대상 수상
- 2001. 12. 31. 2001 농산물 수출 200만불 탑 수상

- 2002. 10. 07. 중부지점 신축 이전
- 2002. 11. 01. 홈페이지(www.kynh.co.kr) 개설
- 2003. 06. 02. 경제사업 종합센터 설치 및 주유소 업무 개시
- 2003. 12. 31. 총자산 1800억 원, 총자본 100억 원 달성
- 2004. 09. 01.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준공
- 2004. 10. 22. 상호금융대출금 1천억 원 달성
- 2004. 12. 31. 총자산 2천억 원, 총자본 120억 원 달성
- 2005. 07. 15. 하나로마트 신축 개점
- 2005. 12. 31.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 2006. 04. 24. 옥룡농협 흡수합병 및 옥룡지점 운영(옥룡면 운평리 271-2)
- 2006. 10. 31. 상호금융 예수금 2천억 원 달성
- 2007. 12. 11. 광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세풍간척지) 준공
- 2007. 12. 31. 경제사업 400억 원 달성
- 2008. 12. 31. 총사업량 6천억 원 달성
- 2008. 12. 31. 종합업적평가 전남 1위(전국 2위) 수상
- 2008. 12. 31. 2008 농산물 유통개혁 대상 수상
- 2009. 08. 11. 광양농협주유소, NH-POLE로 전환
- 2009. 12. 31. 총자산 3천억 원, 자본금 300억 원 달성
- 2010. 03. 03. 서부지점 신축이전
- 2010. 03. 21. 이덕재 조합장 퇴임

- 2013. 01. 22.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 원 달성
- 2013. 12. 31. 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
- 2014. 01. 20. 용강지점 및 하나로마트 용강점 신축 개점
- 2015. 01. 05. 북부지점 신축이전
- 2018. 05. 10. 상호금융예수금 4천억 원 달성
- 2019. 03. 20. 김봉안 조합장 퇴임

제14~15대 김봉안 조합장



- 2010. 03. 22. 제14대 김봉안 조합장 취임(제15대까지 연임)
- 2010. 12. 31. 조합원출자 100억 원 돌파
- 2010. 12. 31. 클린뱅크 인증
- 2010. 12. 31. 카드사업 전국 1위
- 2010. 12. 31. 2010 상호금융대상(최우수상) 수상
- 2010. 12. 31. 2010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 2011. 12. 31. 2011 상호금융대상(우수상) 수상
- 2011. 12. 31. 2011 종합업적평가 전국 2위
- 2011. 12. 31. 2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
- 2012. 07. 03. 총화상 수상
- 2012. 07. 26. 상호금융대출금 2천억 원 달성
- 2012. 11. 03. 서천지점 신축 개점
- 2012. 12. 31. 2012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상호금융대상(대상)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생명보험연도대상 수상



제16~17대 허순구 조합장 (현)

- 2019. 03. 21. 제16대 허순구 조합장 취임(현재 제17대 재임)
- 2019. 12. 23. 청년농부 희망모임 조직
- 2019. 05. 01. 옥룡지점 하나로미니 개점
- 2019. 10. 18.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본점, 용강점 개점
- 2019. 12. 12. RPC 사일로스시설(6기) 준공식
- 2020. 02. 07. 병해충상담센터개점
- 2020. 02. 21. 상호금융대출금 3천억 원 달성
- 2020. 11. 30. 상호금융대출금 4천억 원 달성
- 2020. 12. 21. 상호금융예수금 5천억 원 달성
- 2020. 12. 31. 2020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클린뱅크 인증, 리스크관리 우수농협 선정
- 2021. 03. 30. 광양시 관내 최초 상호금융 1조 원 달성
- 2021. 05. 13. 농협손해보험 순일반보험부문 대상 수상,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 2021. 05. 21. 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
- 2021. 08. 02. 상호금융대출금 5천억 원 달성
- 2021. 12. 03.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 2021. 12. 31. 2021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클린뱅크 인증
- 2022. 01. 04. 금융자산 1조 원 달성 탑 수상
- 2022. 03. 03.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수상(애호박 공선출하회)
- 2022. 04. 20. 2021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우수상
- 2022. 05. 11. 2021년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우수상
- 2022. 06. 10. 예수금 6천억 원 달성
- 2022. 07. 07.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훈(허순구 조합장)
- 2022. 12. 05. 상호금융대출금 6천억 원 달성
- 2023. 06. 2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광양읍 도월리 550-6) 현재 제17대 조합장 재임

광양농협의 임원



조합장 허순구



상임이사 김상완



이사 김한호



이사 송종섭



이사 염규선



이사 한민섭



이사 허상모



이사 허정태



이사 이상영



이사 정성기



이사 이춘연



이사 장임기



이사 허항



사외이사 김숙희



사외이사 서영기



감사 강대현



감사 서일주



광양농협의 전체 임원

사무소별 직원

본점
경영관리팀
(11명)



상무 박준형



과장 이노영



과장 강준영



과장대리 정성학



과장대리 김은영



계장 정혜인



계장 박동준



주임 정성희



주임 양진영



주임 우민희



주임 한지은

본점
감사채권팀
(3명)



상무 신종영



과장보 윤태모



과장대리 추지울

본점
지도·유통팀
(6명)



상무 배승호



과장 정선화



과장보 이병길



과장대리 강상원



과장대리 전도현



주임 유예린

본점
신용팀
(11명)



신용팀장 이정미



수신팀장 김은숙



과장 서은주



과장 정정미



과장보 공연희



과장보 박주호



과장보 이문성



과장보 김재현



과장대리 이예지

사무소별 직원



과장대리 정진영



계장보 임찬미



주임 정현채



주임 박현영



주임 이경림



주임 채효석



주임 한동완

미국
종합처리장
(4명)



공장장 허남열



주임 박두현



주임 임성미



주임 박희원

병해충
상담센터
(1명)



주임 강준원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14명)



소장 구상민



과장 김정호



계장 강선호



기능과장대리 권재백

로컬마트
본점
(32명)



장장 서환원



부장 김영호



업무계장 이정인



업무계장 손정연



업무계장 추근우



기능계장 이동근



기능계장 박은석



주임 이창호



주임 김종철



주임 이제희



주임 김숙경



주임 심미자



주임 박교윤



주임 문병일

사무소별 직원



주임 이경애



주임 김지은



주임 김미숙



주임 강은희



주임 이경숙



주임 주현재



주임 정인혁



주임 이채환



주임 신향숙



주임 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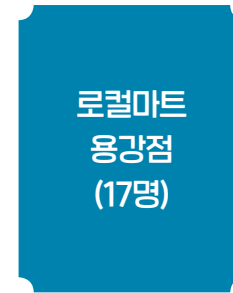
주임 박지연



주임 박은옥



주임 공선영



로컬마트
용강점
(17명)



점장 함형기



부장 허인찬



업무계장 박문기



주임 김민화



주임 이신현



주임 최준웅



주임 김수홍



주임 김숙희



주임 조영심



주임 박정화



주임 임정순



주임 이영기



주임 김재영



주임 채순희



주임 신애리



주임 김경희



주임 배복현



주임 박명옥



주임 기성연



주임 이승은



주임 곽은화



주임 서미미



주임 김현숙



주임 박경화

사무소별 직원



주임 유지용



주임 정춘심



주임 양경민



과장보 서호민



과장대리 차미혜



계장 마은석



기능과장대리 이돈수



기능과장대리 김형중

봉강지점 (8명)



지점장 김장현



과장 김경모



과장보 이성원



과장보 정강목



업무계장 백종태



주임 정영진



주임 황수현



주임 서금정



과장보 박진경



과장대리 서주용



계장보 박송이



주임 안남숙



지점장 오경헌



과장 양승희



과장보 김선일



과장대리 장미영

중부지점 (6명)

옥룡지점 (13명)



지점장 노태호



팀장 김군하



과장 김복심



과장보 이수옥



과장대리 양아람



업무계장 박미덕

사무소별 직원

북부지점 (7명)



지점장 이광자



과장 김혜강



과장보 서태희



과장대리 박승원



계장보 손유림



업무계장 이주희



주임 권미소

서부지점 (7명)



지점장 정준기



과장 강지원



과장보 오인경



과장보 전선화



계장보 강상아



주임 서은우



주임 위정현

서천지점 (6명)



지점장 박순임



과장 박지나



과장보 손태정



계장보 남도현



계장보 이수현



업무계장 서미라

용강지점 (6명)



지점장 성치현



과장 강대영



과장보 차숙진



과장대리 정현배



과장대리 방수연



계장보 조유진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Interview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 광양농협이 구현하겠습니다"

광양농협이 지난 50년 역사를 도약대 삼아 더 큰 농협과 더 행복한 농촌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3년 연속 제패한 데 이어 최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완공해 농업인의 농협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 광양농협. 조합원과 고객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을 만나본다.

• 일시: 2023년 7월 13일 • 장소: 조합장실 및 사업장 • 대담: 김흥선 작가 • 정리: 이노영 과장

광양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시지요?

조합장으로서 역사적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니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리 단위별 이동조합이 생겨났고, 1970년대 전국적으로 번진 농협 대규모화의 흐름 속에 1973년 6월 16일 인덕3리농협과 광양리농협이 합병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것이 우리 농협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민의 성원 속에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수 많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 및 시중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씬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선배 조합장들님과 임직원들은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고 오늘의 광양농협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많은 선배 조합장님들의 노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한편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이어나갈 광양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허순구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제17대 조합장에 취임하여 2기 집무를 시작하였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한 '광양농협 50년사'는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흩어져 있던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탱해준 많은 농업인들과 선배 임직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100년 농협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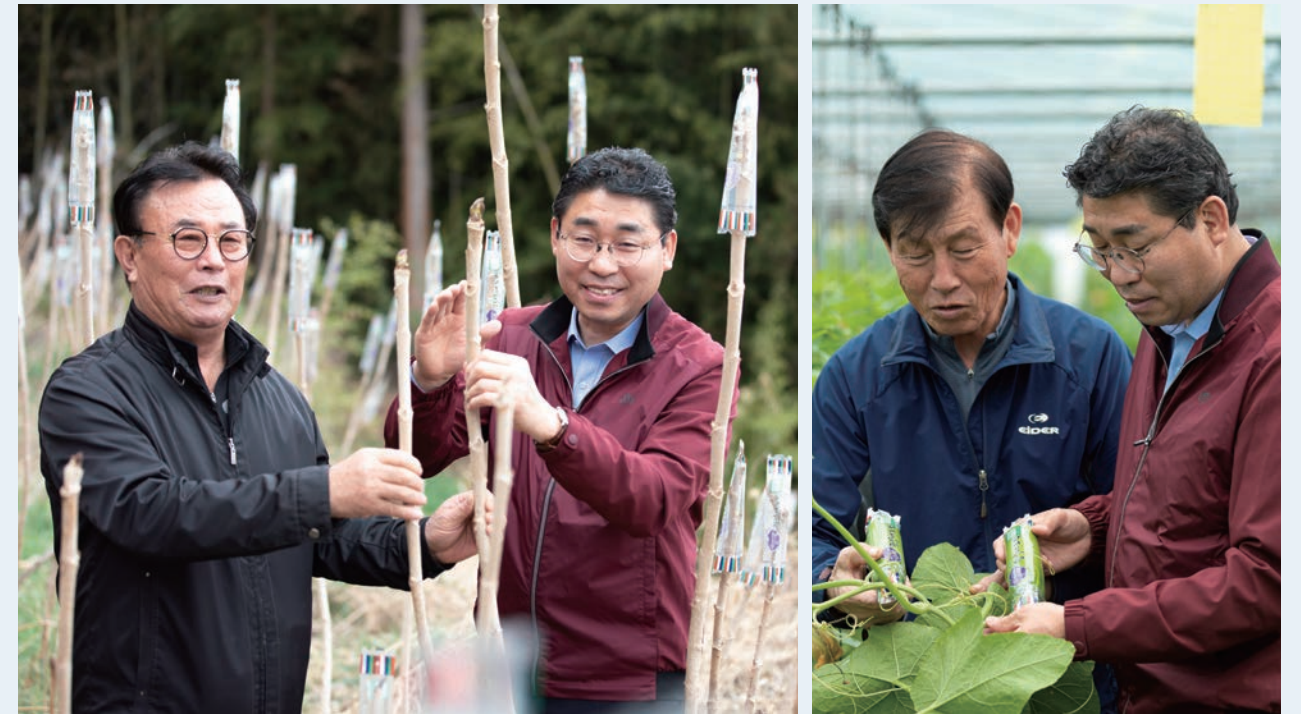
또한 원로 조합원들께서는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임직원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광양농협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북돋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장님은 임원 이전에 직원으로서 농협과 농촌 발전에 헌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몸을 담게 된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년시절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농업이 전부였던 시절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84년 순천대학교 농화학과에 진학하여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군 입대 후, 누구보다 열심히 그



● 광양농협의 50년 역사와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허순구 조합장.



● 허순구 조합장은 영농 현장에 발품 파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두릅을 재배하는 정충기 조합원(추동 영농회)과 함께.

● 애호박을 재배하는 황승룡 조합원(창덕A3 영농회)의 시설하우스를 찾아 애호박 품질을 살펴보는 허순구 조합장.

리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1992년 2월 29세 때 광양농협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가장 관심을 갖고 주력했던 일은 농산물 판매사업과 지도사업이었습니다. 농가에서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장사꾼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현장을 접하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일이 농협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농산물 판로개척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낙후된 복지 수준 향상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도사업에도 주력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만 20여 년을 근무하며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조합원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보다 조합 직원이 낫다는 말씀을 하실 때면 보람도 느끼고 농협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장으로서 3500여 조합원님들을 섬기고 있지만, 직원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소통하고 공감하기 힘들었을 거라

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보니 30여 년 광양농협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이 보람되고 저 자신에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님이 처음 2019년 3월 취임하셨는데, 취임 1년 이내에 RPC 사일로와 병해충상담센터 등 조합원들의 실익과 직결되는 시설을 설치하셨더군요. 조합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부터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직원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조합원의 불편사항과 광양농협의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매 철이면 길게 늘어선 수매 대기 차량과 밤을 지새우며 작업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공장 마당에 야적한 벼들로 인해 큰비나 태풍이 올 때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매년 과잉생산으로 나락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져 미질 개선을 통한 광양쌀 경쟁력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일로 시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준공한 사일로 시설로 인해 이제는 수매 대기 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되었음은 물론 미질도 크게 개선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된 광양쌀 전량을 수매하여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영농자재 구매사업이었습니다. 본점과 다소 떨어져 있는 영농자재종합유통센터로 인하여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5일시장 입구에 위치한 본점의 특성상 장이 열리는 날 고객의 수가 급격하게 몰리게 되고 자차가 없는 고령 조합원들은 금융과 마트, 영농자재 구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 불편해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조합장 취임 후 본점 한편을 리뉴얼하여 병해충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라 영농자재 일체를 취급하지는 못하지만 농사 시기에 맞춰 각종 농약과 영농자재를 판매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시는 많은 농업인들과 5일장을 보러 오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준공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역시 조합원 실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의 가격은 상품성 그리고 출하 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고른 품위로 선별을 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포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광양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자동화된 최신장비를 통해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운송 등 일련의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상품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산물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집중 출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공급이 폭증하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저장시설을 갖추어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설립한 APC의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해 일정 기간 저장을 통한 분산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우천시나 혹서기·혹한기에도 쾌적한



● 농협인의 마음은 언제나 농심(農心)에 닿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허순구 조합장.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어 농가소득과 편익증대 등 실익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하면 쌀 외에 매실이 연상되는데, 매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광양농협은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요?

광양은 전국적으로 첫손에 꼽히는 매실의 주산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되는 것은 물론 전국 매실 생산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지역 특산물 부문에 8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있는 대표 농산물입니다.

하지만 매실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 매실을 주요 소득작물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생산량 확대로 인한 매실 가격 하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

● 로컬푸드 매대에서 진열된 대파의 포장 상태와 품질을 살펴보는 허순구 조합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포장의 확대입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 10kg 단위 포장의 수요는 줄고 반면에 5kg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장 시간 및 비용은 증가하지만 kg당 수취가격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공판장 일변도의 판로에서 벗어나 수도권 대형 마트, 대형 유통센터, 홈쇼핑 등 판매 채널의 다변화입니다. 매실 생산량 및 가격 변동 추이를 기민하게 살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매처로 물량을 분산 출하함으로써 수취가격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매실생산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실 할인행사, 농협물 매실 특별기획전 개최 및 메인 배너 홍보,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특별판매 등 전국적인 마케팅 행사를 주도하고 판매 촉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농협의 성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3년 연속 종합업적 1위를 하였고, 범농협 사회공헌상과 생산자조직 연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합장님 개인으로도 2022년 산업포장을 받으셨고요. 농협 운영에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평소 “매사에 진심을 담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자. 사소하고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수년간 정체된 각종 사업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하고자 하는 의욕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성취해 가며 자신감을 얻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직원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사업 1천억 원과 신용사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를 하였고 여신전문팀, 보험전문팀 등 전문적인 조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칭 ‘신사유람단’을 꾸려 전국을 돌며 선진농협을 찾아가 직접 보고 듣고 배워서 돌아왔고 각종 교육과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허순구 조합장의 경영철학은 '매사에 진심을 담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자'는 것이다. 창구를 찾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20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잘 따라준 덕분에 하나둘씩 작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종 수상 등의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양농협이 50년을 넘어 100년 농협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촌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고령 조합원 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맞습니다. 농촌인구 소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도 70대 이상 조합원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난해 0.78%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와 함께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농촌소멸 문제가 현실화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협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막을 수 없다면 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협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리수확 대행, 드론 농약방제 대행, 벼수확 대행 서비스 등을 진행하여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의 특성상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사회봉사자 및 농촌봉사활동 적극 지원 등 인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19년부터 우리 지역 청년농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술 보급,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청년농부 희망모임'을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화훼, 애호박, 토마토, 딸기, 수도작 등 농사를 짓고 있는 30~40대 청년농 20여 명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 고령 조합원이나 고객이 보이면 허순구 조합장이 곧바로 달려가 안내한다.





● 허순구 조합장이 김상완 상임이사(오른쪽), 배승호 상무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팜 등 각종 기술교육과 정보 제공, 더불어 원로 조합원들과 매칭을 통해 기술 전수 등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있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의 사업 추진은 협력조직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양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과 수료생들의 행복나눔봉사단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 같던데요.

우리 농협의 행복나눔봉사단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특별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22기에 거쳐 약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광양농협 여성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은 광양농협의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 자체 사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범적인 협력조직입니다.

우리 농협의 가족이자 일원으로서 대소사에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투철한 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

습니다. 특히 설 명절 떡국포장 봉사, 고령 조합원 생신상 차려드리기, 어린이 보육재단 기부금 기탁, 직접 농사지은 배추와 김장 채소로 김장김치를 담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쌀 기부' 행사 등 뜻깊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농협의 주인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고락을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갈 조합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농협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농협은 조합원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으로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성장하였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렵던 시절 우리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협을 지켜 오신 원로 조합원님들부터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며 생명창고를 지켜나가고 있는 청년조합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땀방울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나온 5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광양농협이 될 수 있도록 광양농협 임직원 모두는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조합원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광양농협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조합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맡겨주신 소임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사진으로 보는 광양농협

제1절

- 광양농협의 역사적인 순간들
50년간 광양농협이 걸어온 길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

제2절

- 광양농협의 사업활동
농산물 판매 / 영농활동 지원
운영공개 및 회의 / 지역 활성화 / 복지 증진
신뢰받는 농협 / 광양농협의 위상 / 한마음 대축제

김재길 조합원(초남 영농회)이 재배하는 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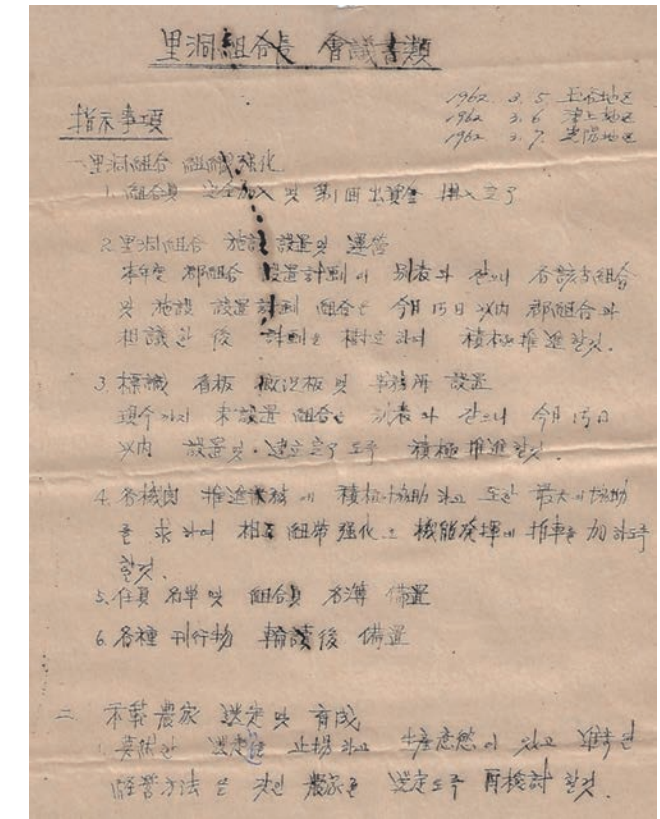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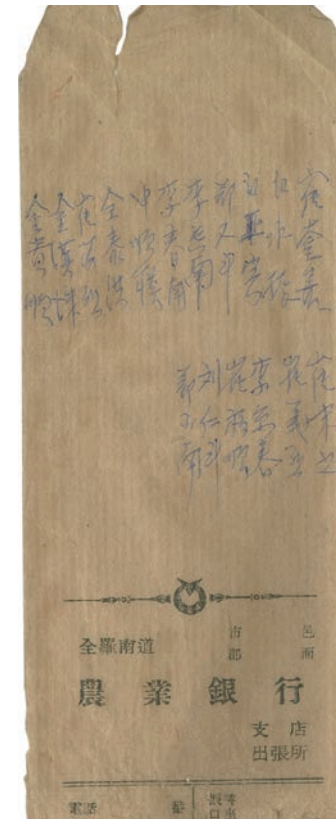
제1절

光陽

광양농협의 역사적인 순간들

1973-2023

이동조합 합병으로 1973년 6월 16일 출범한 광양농협은 우리 농업·농촌·농업인 모두가 어려웠던 1970년대에 착실하게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오늘날 광양의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경제와 복지를 이끌어가는 선도농협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50년간 광양농협이 걸어온 길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모았다.



● 종합농협 출범 전까지 사용한 농업은행 봉투 (1961년).
●● 종합농협 출범 이후 광양군조합에서 개최된 옥곡·진상·광양 지구 이동조합장 회의 서류 (1962년).



● 도월리농업협동조합의 현물저축증권(1967년). [백동인 제공]

※ 052~053쪽 사진은 정용숙 전 광양군 부군수가 1974~1978년 광양군청 새마을계장과 행정계장으로 재직할 때 개인 사진기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아들인 정회기 광양시의원이 '광양농협 50년사' 편찬을 위해 제공하였습니다.



● 현재의 광양농협 본점 터에 있었던 광양농협 창고에서의 추곡수매.

● 봉강면 봉당리 하봉마을 봉강농협 창고.

● 광양읍 목성리 유당공원에서 열린 도시환경 질서확립 결의대회.

● 옥룡면 추산리 외산마을 새마을작업장.

● 김동한 광양군수의 광양읍 읍내리 동외마을 새마을어린이봉사단 격려.

● 광양읍 목성리 개성마을 골목 모습.

● 이른 봄 옷자란 보리밭기.





새마을운동으로 기와를 올리기 위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있다(광양시지·1978년).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모습(광양시지·1980년).



영농기계화가 이뤄지기 전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1984년).

광양읍 세풍리 신두부녀회의 새마을공동취사장(1982년).



타고 온 자전거를 세워놓고 보리베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1984년).



새농민대회에서 청년들이 벼가마 들고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1983년).

새농민대회는 장수 노인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983년)

영농회 대표로 출전한 조합원들이 새끼 꼬기 실력을 겨루고 있다(1986년).

조합원 대표로부터 새농민대회 선서를 받고 있는 길창호 조합장(1983년).

실내 행사로 열린 새농민대회(1984년).

유니폼을 맞춰입은 초남영농회의 부녀회원들이 입장하고 있다(1987년).

새농민대회 본부석 모습과 신촌영농회 조합원들 입장(1986년).





병충해 취약지 공동방제 활동(1984년).

퇴비증산 결의 및 풀베기 대회(1984년).



부녀회의 농번기 탁아소 운영(1985년).



조합장 후보자 공명추천 결의대회(1985년).

맥주맥 채종포 재배농가 동계 영농교육(1985년).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서울 가락시장 견학(1986년).

해마다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오이작목 세미나(1987년).



광양농협에서 운영하는 제1기 농민대학 개강(1991년).





인동리에 개점하여 '농민백화점'이라 불린 연세점(1984년).



1990년 개점해 1995년 이전까지 전까지 운영된 북부지소(1990년)

목성리에 신축이전하여 장기 발전을 도모하게 된 본점(1990년).



하나로마트를 신축한 2005년 이전의 본점 인근 모습(1999년).

장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장제용품 판매장(1993년).



조합원 편의를 위해 운영한 농기계서비스센터(1994년).



면세유류 공급제도 도입으로 개장한 세풍리 석유판매취급소(1997년).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해 천안에서 열린 아우내장터 만세운동(1994년).



부녀회와 주부대학이 협찬한 사랑의 손잡기 모금을 위한 장터(1998년).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및 직거래장터 개장(1995년).



월평깃잎작목반원들이 깃잎을 차에 싣는 모습(1997년).

광양농협 주부대학동창회의 우리 농산물 애용과 고향사랑 운동(1993년).



수출오이 재배농가 발대식(1997년).



1997년도 종합업적 전국우수상 시상품(차량) 인수(1998년).



보리 확대 재배를 위한 파종 연시회(1999년).





주부대학 개강식 모습(1997년).



안성 농협세계화농업지도자교육원의 하나로교육(1997년).



우수 조합원 및 핵심 리더의 금강산 관광(2007년).

제1기 꿈나무 서예교실 개강(2000년).



수출농업 확대를 위한 일본 농산물시장 견학(2001년).



컴퓨터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2002년).



여성문화교실 품물반 개강(2005년).





하나로마트 신축 개점(2005년).



RPC 준공 기념 농업인 한마음 대회(2008년).

이덕재 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수훈(2000년).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개장(2004년).



광양농협-목동농협 합병
조인식(2005년).



2005년도 종합업적 전국 1위 수상(2006년).



친환경 도정공장(RPC) 기공식(2007년).





하나로마트 용강점 개점(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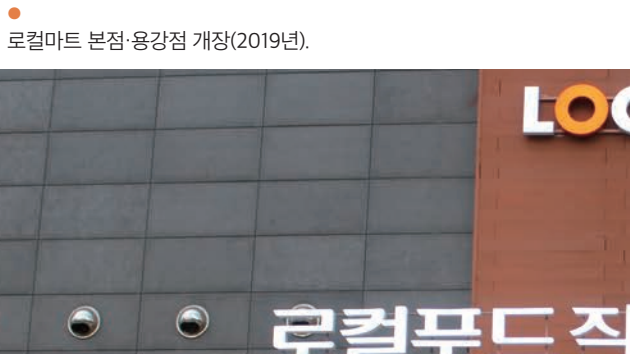
오경현 과장대리, 영농지도대상 수상(2015년).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사업 실시(2018년).



병해충상담센터 개소(2020년).



로컬푸드 본점·용강점 개장(2019년).



허순구 조합장 취임(2019년).



허순구 조합장,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2021년).



공선출하회,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수상(2022년).



종합업적 우수상(1996년도).



회원농협 종합업적 우수상(1998년도).



종합업적 농촌형 A1그룹 최우수상(2005년도).



종합업적 농촌형 1그룹 최우수상(2010년도).



종합업적 농촌형 1그룹 최우수상(2012년도).



상호금융대상 대상(2012년도).



하나로마트 경영대상(2012년도).



종합업적 농촌형 1그룹 최우수상(2020년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대상(2020년도).



종합업적 준농촌형 1그룹 2연속 최우수상(2021년도).



종합업적 농촌형 1그룹 3연속 최우수상(2022년도).

제2절

光陽

광양농협의 사업활동

1973-2023

광양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영농지원은 물론이고 상호금융 예금과 대출, 정책보험 확대와 보험료 지원, 고객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사기 방지 캠페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성조직 육성,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농협의 사업 현장을 정리해 보았다.

- 농산물 판매 ● 영농활동 지원 ● 운영공개 및 회의 ● 지역 활성화 ● 복지 증진
- 신뢰받는 농협 ● 광양농협의 위상 ● 한마음 대축제

농산물 판매



조합원도 즐겁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산물벼 수매.



하곡 수매.





애호박 공동선별 개시 및 초출하식.



맘애드리미(米) 출시.

매실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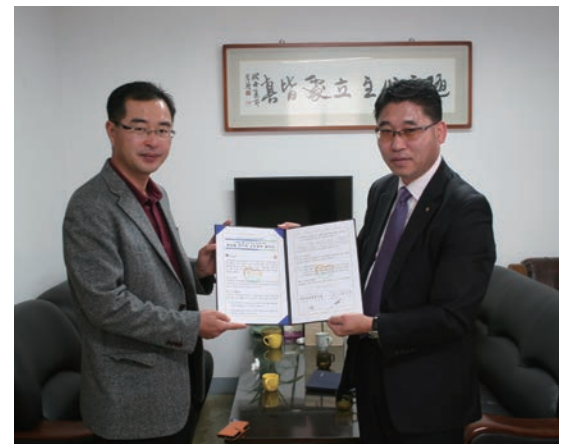
밤 수매.



이동식 직거래장터.



대량구매처 광양쌀 전이용 협약.



광양쌀 가두 홍보.



영농활동 지원



보리 수확 농작업 대행서비스.



매실 소비촉진 상생후원금 전달.

조합원들과 매실농사 정보 교환.



전국 매실생산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공선출하 농가 간담회 개최.



고로쇠약수 출하농가 간담회.



조합원 농작물재해보험 교육.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사업.



화훼농가 영농자재 무상지원.



대형농기계 구입 농가 수리공구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오이데이(5월 2일) 오이 판촉활동.

친환경 벼 재배농가 EM퇴비 지원.



로컬푸드 출하 우수농가 포장재 지원.



생강 재배농가 현장교육 및 증강 공급.



운영공개 및 회의



정기총회(대의원회) 모습.



신규조합원 간담회.

영농회 방문 결산 좌담회.

조합 단위 대의원교육(창녕교육원).

영농회장 간담회.

부녀회장 간담회 및 신규 부녀회장 위촉.



지역 활성화



조합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풍물단 활동 지원.



여성대학 운영.



서예교실 입춘첩 쓰기.



노래교실 효 콘서트 개최.

조합원 선진지 견학(제주도).



귀농·귀촌 특화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여성대학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멘티 결연.



신년인사회 개최.



순천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여성대학 총동문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소비자위원회 의견 청취 및 사업 반영.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입장권 구매.



복지 증진



다문화가정 사랑의 학용품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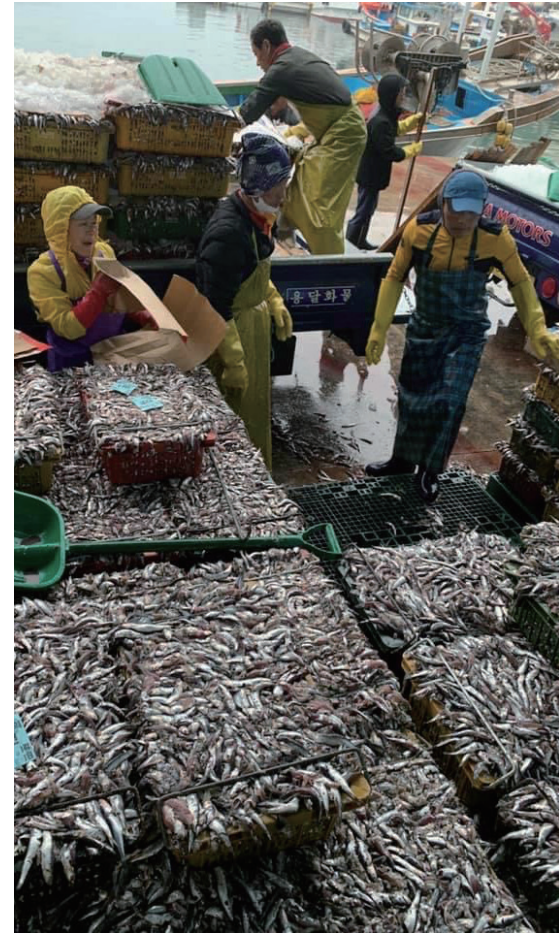


설 명절 행복나눔 꾸러미 전달.

위드코로나 전환 조합원 특별지원금 지원.



경로당 위문금 전달.



생물치 공급.

어버이날 배지 달아드리기.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



농협네트웍스와 함께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신뢰받는 농협



상호금융 1조원 달성



밝고 친절하고 빠른 금융업무



대표통장 근절 캠페인

보험전문역 발대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동법률상담 실시



임직원 헌혈 봉사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고객만족(CS)을 위한 교육.

직원들의 융합사고력 향상 교육.



마케팅 현장클리닉.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 주도.

품질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재고조사.



마트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쇼핑 제공.

강도·절도 예방을 위한 모의 교육.



전화금융 사기 예방 직원 감사장 수여.



광양농협의 위상



2021년도 종합업적 최우수상 시상품 차량 전수.



2021년도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2020년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2021년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2연패).

허순구 조합장, 농촌발전 유공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훈.



2022년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3연패).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



광양농협이 수상한 각종 기(旗) 입장.



가수 진성 축하공연.



가수 서지오 축하공연.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 시상.



가수 나광진 축하공연.



가수 주병선 축하공연.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 기념사.

정인화 광양시장 축사.

서영배 광양시의장 축사.

유공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

노래교실 회원들의 공연.

조합원·고객·내빈으로 꽉 찬 광양실내체육관.



제2장 광양농협 반세기의 기록

제1절 꿈을 심다

- 광양 지역의 농협운동

제2절 뿌리를 내리다

- 광양농협 출범과 기반 구축

제3절 줄기를 올리다

- 광양농협의 알찬 성장

제4절 가지를 뻗다

- 광양농협의 힘찬 발전

제5절 꽃을 피우다

- 광양농협의 눈부신 도약

제6절 열매를 맺다

- 광양농협과 지역사회의 동행

제7절 다시 꿈을 심다

- 광양농협의 100년을 향한 비전



황승용 조합원(창덕A3 영농회)이 생산하는 애호박.

제1절
꿈을 심다

光陽

광양 지역의 농협운동

1973-2023

1961년 종합농협이 창립되면서 광양 지역에서도 이동조합 합병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광양읍에서는 최종적으로 인덕3리조합과 광양리조합이 합쳐지며 광양농협으로 출범하였다. 또 봉강면에서는 하봉리조합이, 옥룡면에서는 상평리조합이 관내의 이동조합들을 흡수합병하면서 단위조합으로 성장하였다.

제1절 • 꿈을 심다

우리나라의 농협운동

가. 농업 특성과 생산 협동조직 '두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식량작물 재배 등 농업의 형태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온이 높고 물 이용이 편리한 여름에는 벼를,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보리와 밀 등을 재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양은 한반도 남단 정중앙으로 전남 동부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며, 남해안에 접하고 섬진강을 두른 고장이다. 백운산 등 산간지대가 적지 않지만, 강수량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찍이 광양읍 일대에 형성된 평야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는 말 그대로 수도작(水稻作)으로서 논에 물을 대 경작해야 하므로 물과 노동력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 살았고, 자연스럽게 농경생활과 가장 밀접한 협동 양식인 '두레'를 조직하였다.

삼한시대에 농사의 시작과 끝에 행하던 음주가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두레가 농민들의 보편적인 생활풍습이자 농업노동의 협동조직으로 정착한 시기는 조선 후기 벼농사에 이양법이 도입되면서라고 한다. 농번기 소농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공동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두레가 생산협동체로서의



● 농기계가 보급되기 전 광양읍의 손모내기 모습. 두레 조직의 품앗이에 의해 노동력 공급이 조절되었다.

●● 1970년대 옥룡면의 한 농가가 경운기 동력을 이용해 벼를 탈곡하고 있다. [곽성열 제공]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의 전통 조직인 두레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합된 인적 조직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레는 조직 목적이 단순한 상부상조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발전과 친목을 중시해, 경제적 약자들의 조직인 근대적인 협동조합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

나. 근대적 협동조합 탄생

세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 맨체스터 북부 로치데일에서 28명의 방직 노동자가 결성한 ‘로치데일 공정개혁자 조합’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자본가들의 횡포로 질 낮은 생필품 등을 고가에 사야 했던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조직한 소비자 조합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이후 60여 년이 지난 뒤인 구한말에 근대적 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1907년 [지방금융조합규칙] 반포에 따라 금융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금융조합은 관제협동조합이었는데, 관제조합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산업조합령]에 따라 산업조합이, 1926년 [조선농회령]에 따라 농회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초기 민간협동조합들은 일제강점기에 종교계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세워졌다. 서울 YMCA가 1923년부터 농촌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농촌협

동조합은 기독교계 협동조합이고, 1925년 조직된 조선농민사가 1931년부터 설치해 운영한 농민공생조합은 천도교계에서 농민의 지위 향상과 복리 증진을 표방하며 설립한 것이다. 1926년 일본 도쿄에서 100여 명의 유학생이 경제조직체로 조직한 협동조합운동사는 국내로 선발대를 파견하여 1927년 경북 상주에 함창협동조합을 세웠다.

일제강점기의 민간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자력갱생 운동을 벌이는 한편 계몽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자 민간협동조합들은 자연 소멸하거나 강제 해산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민간협동조합이 민족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사업도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대항하는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농협법 제정과 종합농협 창립

광복 후 정부에서는 농림부·기획처·재무부 등이 경쟁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을 추진했다.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을 겪으며 농촌이 피폐해졌고 농민들의 삶도 극도로 곤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법 입법은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무산되다가 1957년 2월 1일에야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 하루 뒤인 2월 2일에는 농업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촌 지원조직으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업무를 전담하는 농업은행의 이원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당시의 농협은 이동조합-시군조합-중앙회의 3단계 조직으로서, 중앙회 창립 총회를 1958년 5월 7일 개최하였다. 1960년 말 기준 조합 수는 리(里)와 동(洞) 등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된 이동농업협동조합 1만 8706개를 비롯해 시군조합 168개, 원예조합 80개, 축산조합 152개, 특수조합 27개 등 모두 1만 9133개였다.

한편 농업은행은 융자대상을 농민·농협 및 동 중앙회와 농업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법안 수정을 거쳐 1958년 4월 1일 출범하였다. 농업은행 조직은 본점 1개, 지점 164개, 출장소 375개 등 540개로 구성되었다.



● 1961년 8월 15일 농업은행과 구 농협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농협이 출범하면서 '농협동조합중앙회' 간판을 준비해놓고 '농업은행' 간판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농협과 농업은행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출범했으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두 기관의 통합을 논의하게 되었다. 1961년 6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농협과 농업은행 두 기구의 통합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 29일 기존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다.

새로운 종합농협 발족을 앞두고 농업은행에서 분리된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1961년 8월 2일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농업은행은 서울 10개 점포를 비롯한 도시 소재 31개 점포를 중소기업은행에 이관하였다.

마침내 1961년 8월 15일 광복절에 현재의 종합농협이 창립되어 출범하였다. 이때부터 이전의 경제사업 전담 농협은 구(舊) 농협으로 구분되었다.

1961년 종합농협 창립 당시 조직 체계

구분	중앙회		군조합		이동조합	특수조합
	본부	도지부	본소	지소		
현황	10부 20과	8개소	140개	383개	2만 1042개	101개

제1절 • 꿈을 심다

광양 관내 농협 설립

가. 광양 지역의 농협운동 흐름

1961년 새롭게 출범한 종합농협 체제에서 농협의 기초조직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립된 2만 1042개의 이동농협동조합이었다. 1개 시군 평균 150개에 이르는 이들 이동조합은 대부분이 1957년 제정된 구 농협법에 따라 1958~1959년에 설립되었는데, 종합농협이 창립되면서 승계한 바 있었다.

광양 지역에서도 이 시기에 이동조합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폐쇄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양읍에 34개, 옥룡면에 25개, 봉강면에 15개의 이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1읍 7면의 행정구역으로 이뤄진 광양 전역에는 1962년 말 기준으로 무려 185개의 이동조합이 존재하였다.

이동조합은 조합원이 평균 100명에 불과하고 사무실 등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이동조합 육성을 위해 창립 후 불과 20여 일 만인 1961년 9월 8일 모집공고를 신문에 내 우리나라 농협운동의 야전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현지도원을 채용, 시군조합에 1명씩 배치하였다.

광양군조합에도 현지도원이 배치되어 이동조합 육성을 담당하였다. 현지도원은 1962년 개척원 제도가 도입되자 개척원교관요원이 되어 양성한 개척원을 읍면마다 1명씩 두고 이동조합 육성과 합병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광양 지역에서는 1963년 이동조합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 이동조합 숫

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약 2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동조합이 많은 가운데, 새로운 업무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읍면 규모로의 합병이 요구되었다. 1969년 농협중앙회가 읍이나 면 단위로의 합병을 완료한 조합에 상호금융과 연쇄점 등 신규 사업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비료와 공제 등 군조합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이관하기 시작하자, 이동조합의 읍면 규모 합병이 전국적으로 크게 진전되었다.

196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동조합 합병은 1972년 조합 수가 1567개로 감소하여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 시기에 광양 지역에서도 이동조합들이 읍면 규모로의 합병을 완료하여 8개의 단위조합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3월 5일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이동조합, 즉 ‘리, 동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1962년 열린 제1회 전국이동조합업적경진대회 모습.



전국 이동조합 합병 추이

(단위 : 개)

연도	1961	1962	1964	1966	1968	1969	1970	1971	1972
조합 수	21,042	21,518	18,963	17,281	16,089	7,525	5,859	4,512	1,567

※ 1961년은 종합농협 창립일인 1961년 8월 15일 기준임.

광양 지역의 농협 설립(합병) 시기

구분	농협	설립일(합병일)	비고
지역농협	광양군농업협동조합	1961. 08. 15.	현재의 NH농협 광양시지부
	광양농업협동조합	1973. 06. 16.	
	봉강농업협동조합	1970. 08. 18.	1998년 광양농협에 합병(봉강지점)
	옥룡농업협동조합	1969. 12. 17.	2006년 광양농협에 합병(옥룡지점)
	골약농업협동조합	1972. 08. 31.	1990년 동광양농협으로 명칭 변경
	진월농업협동조합	1970. 12. 26.	2009년 광양동부농협으로 합병(본점)
	옥곡농업협동조합	1968. 09. 23.	2009년 광양동부농협으로 합병(옥곡지점)
	진상농업협동조합	1971. 07. 22.	
다압농업협동조합	1970. 04. 21.		
품목농협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1974. 11. 22.	1948년 광양군농예생산기공조합 결성
지역축협	광양축산업협동조합	1968. 12. 12.	2006년 순천광양축협으로 합병

※ 설립일(합병일)은 각 농협 등기부 또는 홈페이지의 연혁을 기준으로 하되, 농협중앙회가 1987년 발간한 ‘농협 사반세기-회고와 전망’에 수록된 초대 조합장 임기 개시일을 참고함.

나. 광양읍의 이동조합 합병과 광양농협 설립

광양읍에서는 구 농협 시기인 1958년부터 이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의 광양농협이 창립될 때까지 총 34개가 설립 및 해산되었다. 연도별로는 ▲1958년 8개 ▲1959년 15개 ▲1960년 6개 ▲1961년 3개 ▲1962년 1개 ▲1972년 1개가 설립되었다. 광양읍에 이처럼 많은 이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이 소재지를 조합장의 집 주소로 했을 만큼 사무실 등 시설이 없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도월리 98번지를 소재지로 1959년 설립된 도청리조합은 1963년 신도리조합과 월평리조합을 흡수하며 명칭을 도월리조합으로 변경하였고, 도월리조합이 1972년 세풍리조합과 덕례리조합을 흡수하며 명칭을 인덕3리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64년 도월리조합 시절부터 허동열 조합장이 이끌며 비료와 농사자금 등 광양군조합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인덕3리조합은 광양읍을 대표하는 이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인덕3리조합이 1973년 광양단위조합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당시의 출자 좌수는 648좌, 불입한 출자 총액은 10만 6200원으로, 조합원 1인당 출자액이 약 164원이었다.

한편 광양읍의 이동조합 중 가장 늦은 1972년 10월 설립된 광양리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인덕3리조합으로 합병되지 않은 나머지 이동조합을 모두 흡수합병한 뒤 광양단위조합에 흡수합병되며 1973년 7월 해산한 특이한 경우이다. 광양리조합은 당시 중앙회가 강력하게 추진한 읍이나 면 단위로의 합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그 중간 단계로서 잠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존립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도 수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광양리조합은 인덕3리조합에 비해 구역이 훨씬 넓고 출자 좌수도 3배인 1928좌나 되었지만, 불입한 출자 총액은 4만 545원으로 조합원 1인당 출자액이 21원에 불과하였다.

마침내 1973년 6월 16일 광양단위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오늘날의 광양농협이 출범하였다. 광양농협의 출범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한 개의 조합이 나머지 조합을 모두 흡수합병하거나 모든 조합이 해산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신설합병이 아니라, 먼저 광양단위조합을 설립한 뒤 인덕3리조합과 광양리조합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광양단위조합의 초대 조합장에는 인덕3리 조합을 이끌었던 허동열 조합장이 임명되었다. 이는 신용업무 등 사업 수행이나 출자 증대 등의 면에서 인덕3리 조합이 광양리조합보다 월등했으며, 단위조합장 임명 권한이 있는 광양군조합에서도 허동열 조합장의 역량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광양읍의 이동조합 설립과 합병(총 34개)

이동조합	소재지	설립일	해산일	비고(해산 사유)
도청리조합 (도월리조합) (인덕3리조합)	도월리 98	1959. 12. 07.	1973. 07.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2. 신도리·월평리조합 흡수합병 및 도월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72. 06. 10. 세풍리·덕례리조합 흡수합병 및 인덕3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광양단위조합에 흡수합병
신도리조합	도월리 753	1959. 08. 20.	1963. 11. 22.	• 도청리조합에 흡수합병
월평리조합	도월리 479	1959. 11. 30.	1963. 11. 22.	”
신촌리조합 (세풍리조합)	세풍리 7-6	1961. 10. 31.	1972. 0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9. 해창리·세승리·신두리조합 흡수합병 및 세풍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인덕3리조합에 흡수합병
해창리조합	세풍리 39	1959. 12. 29.	1963. 11. 29.	• 신촌리조합에 흡수합병
세승리조합	세풍리 535	1958. 01. 21.		
신두리조합	세풍리 766	1961. 12. 29.		
덕산리조합 (덕례리조합)	덕례리 1087	1959. 12. 21.	1972. 0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2. 01. 예구리조합 흡수합병 • 1969. 12. 17. 무선리조합 흡수합병 및 덕례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인덕3리조합에 흡수합병
예구리조합	덕례리 876	1960. 08. 18.	1963. 12. 01.	• 덕산리조합에 흡수합병
무선리조합	덕례리 187	1961. 12. 16.	1969. 12. 17.	
광양리조합	목성리 710	1972. 10. 05.	1973. 07. 07.	• 광양단위조합에 흡수합병
동외리조합	읍내리 182	1958. 01. 13.	1972. 10. 05.	• 광양리조합에 흡수합병
신흥리조합	읍내리 368	1959. 08. 20.		
신기리조합	구산리 28	1958. 02. 28.		
마산리조합	구산리 430	1959. 07. 21.		
성북리조합	철성리 403	1958. 01. 13.		
개성리조합	목성리 853	1958. 01. 14.		
성황리조합	목성리 938	1958. 01. 13.		
인동리조합	인동리 270-1	1958. 02. 10.		
인서리조합	인서리 18	1959. 08. 03.		

이동조합	소재지	설립일	해산일	비고(해산 사유)
내우리조합 (우산리조합)	우산리 466	1959. 11. 11.	1972. 10.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9. 산저리·월파리·교촌리조합 흡수합병 및 우산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광양리조합에 흡수합병
산저리조합	우산리 625	1959. 08. 20.	1963.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우리조합에 흡수합병
월파리조합	우산리 13	1959. 11. 30.		
교촌리조합	우산리 498	1959. 11. 11.		
가장리조합 (남양리조합)	익신리 617-29	1959. 12. 07.	1972. 10.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0. 29. 외동리·현월리조합 흡수합병 및 남양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광양리조합에 흡수합병
외동리조합	익신리 617-29	1959. 08. 20.	1963.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리조합에 흡수합병
현월리조합	초남리 425	1958. 01. 21.		
호죽리조합 (사라리조합)	죽림리 257	1960. 07. 11.	1972. 10.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2. 임기리·쌍두리·백동리·본정리·억만리·점동리조합 흡수합병 및 사라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광양리조합에 흡수합병
임기리조합	죽림리 1017	1959. 10. 07.	1963.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죽리조합에 흡수합병
쌍두리조합	죽림리 692	1960. 07. 04.		
백동리조합	죽림리 639	1960. 07. 08.		
본정리조합	사곡리 728	1960. 07. 01.		
억만리조합	사곡리 103	1960. 06. 23.		
점동리조합	사곡리 262	1962. 12. 30.		

광양농협 설립과 합병 과정



다. 봉강면의 이동조합 합병과 봉강농협 설립

봉강면에서는 구 농협법이 제정된 1957년 2개와 1959년 13개 등 모두 15개의 이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봉강면 지역의 이동조합은 1961년 새로운 농협법에 의해 창립된 종합농협이 이동조합 육성에 나선 1963년 하봉리조합·지곡리조합·석사리조합·신룡리조합 등 4개의 조합으로 재편된다.

가장 먼저 1963년 9월 13일 석사리조합(석사리 595번지)이 서석리와 명암리의 이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하봉리조합(봉당리 413번지)이 봉당리·부저리·저곡리·부현리·구서리에 설립된 이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고, 신룡리조합(신룡리 461번지)은 개룡리·조령리·하조리·부암리의 이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며 명칭을 내동리조합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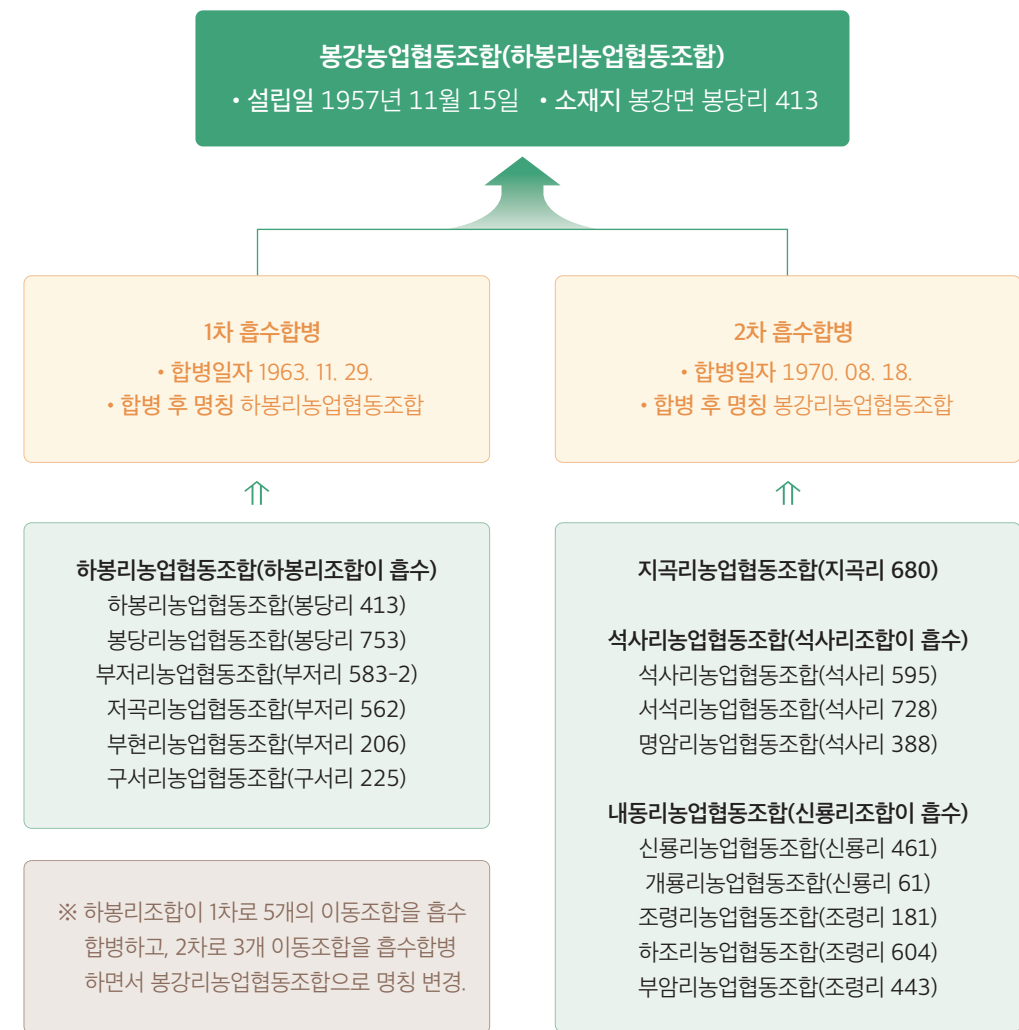
1970년 8월 18일 하봉리조합은 지곡리조합·석사리조합·내동리조합을 흡수합병하고 명칭을 봉강리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봉강농협은 이와 같이 1970년 면 규모로 합병을 완료하며 탄생했지만, 그 뿌리는 1957년 11월 15일 설립된 하봉리농업협동조합이다. 봉강농협은 신설합병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봉리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봉강면 관내 모든 이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며 봉강면 전역이 구역인 봉강농협으로 성장한 것이다.

봉강면의 이동조합 설립과 합병(총 15개)

이동조합	소재지	설립일	해산일	비고(해산 사유)
하봉리조합 (봉강리조합)	봉당리 413	1957. 11. 15.		• 1963. 11. 29. 봉당리·부저리·저곡리·부현리·구서리조합 흡수합병 • 1970. 08. 18. 지곡리·석사리·내동리조합 흡수합병 및 봉강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봉당리조합	봉당리 753	1959. 07. 23.	1963. 11. 29.	• 하봉리조합에 흡수합병
부저리조합	부저리 583-2	1959. 07. 31.		
저곡리조합	부저리 562	1959. 07. 23.		
부현리조합	부저리 206	1959. 07. 31.		
구서리조합	구서리 225	1959. 07. 23.		
지곡리조합	지곡리 680	1959. 07. 31.	1970. 08. 18.	• 봉강리조합에 흡수합병
석사리조합	석사리 595	1959. 08. 20.	1970. 08. 18.	• 1963. 09. 13. 서석리·명암리조합 흡수합병 • 봉강리조합에 흡수합병

이동조합	소재지	설립일	해산일	비고(해산 사유)
서석리조합	석사리 728	1957. 11. 15.	1963. 09. 13.	• 석사리조합에 흡수합병
명암리조합	석사리 388	1959. 07. 23.		
신룡리조합 (내동리조합)	신룡리 461	1959. 07. 23.	1970. 08. 18.	• 1963. 11. 29. 개룡리·조령리·하조리·부암리조합 흡수합병 및 내동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봉강리조합에 흡수합병
개룡리조합	신룡리 61	1959. 07. 23.	1963. 11. 29.	• 신룡리조합에 흡수합병
조령리조합	조령리 181	1959. 07. 31.		
하조리조합	조령리 604	1959. 07. 31.		
부암리조합	조령리 443	1959. 07. 23.		

봉강농협 합병 과정



라. 옥룡면의 이동조합 합병과 옥룡농협 설립

옥룡면에서는 이동조합 설립이 광양 지역의 다른 곳보다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고, 면 단위로의 합병도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구 농협법이 제정된 첫해부터 이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중앙회가 이동조합의 읍면 단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에 합병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옥룡면 8개 법정리에 설립된 25개 이동조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57년 4개 ▲1958년 2개 ▲1959년 18개 ▲1960년 1개이다. 이 가운데 1957년에 설립된 4개 이동조합(상평리조합·옥동리조합·계곡리조합·홍룡리조합)은 모두 설립 일자가 11월 10일로 동일하다.

옥룡면에서의 이동조합 합병은 운평리 667번지를 소재지로 한 상평리조합이 3차례에 걸쳐 다른 이동조합들을 흡수합병하며 옥룡농협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평리조합은 1차로 1963년 5개 이동조합을 합병하고 명칭을 옥룡리조합으로 바꾸었는데, 이 명칭은 나중에 옥룡면 전체 이동조합을 합병한 옥룡농협으로 연결된다.

1963년은 개척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광양 지역에 이동조합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된 해이다. 이 해에 옥룡면에서도 행정리(자연마을)마다 설립되었던 25개 이동조합이 10개 이동조합으로 합쳐졌다. 사실상 1개 법정리에 1개 조합이 존속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한편 상평리조합에서 몸집을 키운 옥룡리조합은 1966년 2차 합병에 나서 용곡리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또 1969년에는 3차로 나머지 8개 이동조합, 즉 산본리조합·남정리조합·동동리조합·답곡리조합·추산리조합·울천리조합·운곡리조합·죽천리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이로써 옥룡리농업협동조합은 옥룡면 전체를 구역으로 하는 면 규모의 옥룡단위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옥룡단위조합은 이처럼 1969년 면 규모로의 합병을 완료했지만, 1957년 이동조합으로 설립된 상평리농업협동조합이 옥룡면 관내 모든 이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일자가 1957년 11월 10일이었다.

옥룡면의 이동조합 설립과 합병(총 25개)

이동조합	소재지	설립일	해산일	비고(해산 사유)
상평리조합 (옥룡리조합)	운평리 667 (운평리 271-2)	1957.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9. 하평리·상운리·하운리·석곡리·옥동리조합 흡수합병 및 옥룡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66. 10. 14. 용곡리조합 흡수합병 • 1969. 12. 17. 산본리·남정리·동동리·답곡리·추산리·울천리·운곡리·죽천리 조합 흡수합병
하평리조합	운평리 815	1959. 07. 03.	1963. 11. 29.	• 상평리조합에 흡수합병
상운리조합	운평리 312	1959. 04. 10.		
하운리조합	운평리 389-1	1959. 07. 03.		
석곡리조합	용곡리 912	1959. 07. 03.		
옥동리조합	용곡리 654	1957. 11. 10.		
홍룡리조합 (용곡리조합)	용곡리 135	1957. 11. 10.	1966.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08. 10. 대방리·초암리조합 흡수합병 및 용곡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대방리조합	용곡리 261	1959. 07. 03.	1963. 08. 10.	• 홍룡리조합에 흡수합병
초암리조합	용곡리 1141	1960. 04. 27.		
산본리조합	산남리 226	1959. 02. 25.	1969. 12. 17.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남정리조합	산남리 591	1959. 07. 03.		
동동리조합	동곡리 246	1959. 07. 03.		
답곡리조합	동곡리 614	1959. 07. 03.		
추동리조합 (추산리조합)	추산리 557	1958. 08. 30.	1969.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08. 06. 양산리·외산리조합 흡수합병 및 추산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양산리조합	추산리 765	1958. 08. 30.	1963. 08. 06.	• 추동리조합에 흡수합병
외산리조합	추산리 840	1959. 07. 03.		
덕천리조합 (울천리조합)	울천리 772	1959. 07. 03.	1969.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2. 울곡리·재동리조합 흡수합병 및 울천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울곡리조합	울천리 490	1959. 07. 03.	1963. 11. 22.	• 덕천리조합에 흡수합병
재동리조합	울천리 993	1959. 07. 03.		
갈죽리조합 (운곡리조합)	운곡리 199	1959. 07. 03.	1969.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2. 계곡리조합 흡수합병 및 운곡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계곡리조합	운곡리 623	1957. 11. 10.	1963. 11. 22.	• 갈죽리조합에 흡수합병
내천리조합 (죽천리조합)	죽천리 819	1959. 07. 03.	1969.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 11. 29. 죽림리·개현리·항월리 조합 흡수합병 및 죽천리조합으로 명칭 변경 • 옥룡리조합에 흡수합병
죽림리조합	죽천리 1030	1959. 07. 03.	1963. 11. 29.	• 내천리조합에 흡수합병
개현리조합	죽천리 895	1959. 07. 03.		
항월리조합	죽천리 573	1959. 07. 03.		

옥룡농협 합병 과정



“광양농협 합병은 인덕3리조합이 주도”

회고담① 이동조합 합병과 광양농협 태동



이무원 전 감사·이사 (1941년생)

광양읍에는 1958년부터 자연마을마다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는 광양읍 도월리 도청마을에도 도청리농업협동조합이 있었지요. 이동조합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농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하기 어려워 광양군조합의 업무를 대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료공급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 설립된 도청리조합은 1961년에 오덕준 당시 농협중앙회장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광양군조합 직원인 김정환 씨가 적극적인 육성과 지도에 나섰고, 1963년 월평리조합과 신도리조합을 흡수해 도월리조합으로 되면서 비료창고·정부양곡창고·도정공장 등을 갖춰 광양읍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도월리조합은 이례적으로 이동조합으로서 1972년 5월부터 상호금융을 취급하게 되었어요.

도월리조합은 신용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뒤인 1972년 6월 덕례리조합과 세풍리조합을 흡수합병해 인덕3리조합으로 바뀝니다. 원래 인덕리라는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데, 도월·덕례·세풍 3개 리가 인덕천을 경계로 삼고 있거나 그 유역에 형성되어서 인덕3리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광양읍 서천의 서편을 구역으로 하는 인덕3리조합은 도월리 신도마을 출신인 허동열 조합장의 열성적인 활동에 힘입어 조합이 잘 운영되었는데, 서천동편 광양읍의 중심부에 있는 이동조합들은 유명무실하고 합병도 지지부진하다 1972년 10월에 광양리조합으로 합병되었지요. 그리고 1973년 6월 광

양읍 전역을 구역으로 광양단위조합이 설립돼 인덕3리조합과 광양리조합을 흡수하면서 오늘날의 광양농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양단위조합은 인덕3리조합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초대 조합장을 허동열 씨가 맡았습니다. 초창기 사무실도 임차가 아닌 자체건물로서 덕례리 서천변, 현재의 신안정비공업사 바로 앞에 있었고요. 광양농협은 1975년 읍 시가지인 인동리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도 광양농협을 ‘내 조합’으로 여겨서 ‘전이용’ 하며 시기에 따라 저곡(저축곡식)인 보리 한 가마와 나락 한 가마로 현물저축을 하고 비료 한 포대당 100원씩 출자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키워온 우리 광양농협이 벌써 50년 역사를 헤아린다니 참 꿈만 같네요.

• 대담 일자 : 2023년 8월 10일 • 정리 : 김홍선 작가

제2절
뿌리를 내리다

光陽

광양농협 출범과 기반 구축

1973-2023

광양농협은 출범 이후 군조합의 비료·농약·영농자금·공제 업무를 이관받아 직접 수행하였고, 상호금융·연쇄점 사업과 함께 저축추진 및 출자증대 운동 등을 펼치며 자립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조합원과 밀착하였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추진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였다.

광양농협 기반 구축기의 조합장

제1대 허동열 조합장 | 취임일 1973. 06. 16. 퇴임일 1973. 09. 15. ▶ 제2대 길호용 조합장 | 취임일 1973. 09. 20. 퇴임일 1975. 06. 20. ▶ 제3~5대 정귀남 조합장 | 취임일 1975. 06. 21. 퇴임일 1982. 02. 08.

제2절 • 뿌리를 내리다

광양농협의 출범

광양농협은 1973년 6월 16일 광양읍 덕례리 8-6을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이 성립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다. 설립 당시 정식 명칭은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이었으며 ‘광양단위조합’ 또는 ‘읍조합’으로 통칭되었다.

우리나라 농협운동사에서 이동조합들의 읍면 규모 합병이 대체로 1972년에 마무리되었지만 합병 농협의 명칭은 이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리농업협동조합’의 형식이었다. 때문에 이 농협들은 나중에 명칭을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형식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광양농협은 출범하기 불과 3개월여 전인 1973년 3월 5일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처음부터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광양군 내에서 가장 늦게 읍면 규모 합병을 완료한 광양단위조합, 즉 광양농협의 본류는 이동조합인 인덕3리농업협동조합과 광양리농업협동조합이다. 광양농협은 도월리·세풍리·덕례리 일원이 구역인 인덕3리조합을 설립일인 1973년 6월 16일에, 우산리·구산리·칠성리·읍내리·목성리·초남리·익신리·사곡리·죽림리·인동리·인서리 일원이 구역인 광양리조합을 20여 일 뒤인 7월 7일에 각각 흡수합병함으로써 광양읍 전체를 구역으로 하게 되었다.

광양농협 출범 현황

구분	내용
명칭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
사무소	광양군 광양읍 덕례리 8-6
구역	광양읍 일원
설립인가	1973년 6월 16일
임원	조합장 허동열(도월리)
	이사(4명) 최규관(도월리) 김채선(덕례리) 박남주(목성리) 박성길(읍내리)
	감사(2명) 정정기(사곡리) 신인호(세풍리)
출자	좌수 2567좌
	불입총액 14만 6745원
목적 (사업)	①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② 구매사업 ③ 판매사업 ④ 신용사업 ⑤ 이용사업 ⑥ 공제사업 ⑦ 농촌가공사업 ⑧ 의료사업 ⑨ 단체협약의 체결 ⑩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⑪ 광양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⑫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⑬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이러한 흐름은 형식적으로는 광양농협이 인덕3리조합과 광양리조합을 흡수합병하였지만, 실상은 인덕3리조합과 광양리조합이 신설합병으로 광양농협을 설립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초대 조합장을 인덕3리조합장이 맡고 조합 소재지도 덕례리로 하는 등 광양농협 출범 당시 주도권은 인덕3리조합에 있었다. 광양읍 일원을 구역으로 1973년 6월 16일 새로 출범한 광양농협은 조합원 수가 2567명, 불입한 출자의 총액이 14만 6745원 규모였다. 이 출자금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이용해 쌀값 변동 기준으로 2023년 2월의 가치로 환산하면 272만 6947원에 해당한다.

제2절 • 뿌리를 내리다

군조합 업무 이관과 신규사업 추진

가. 군조합의 대농민 4대 업무 이관

광양농협은 출범 이후 종전 광양군조합에서 하던 대농민 4대 업무를 이관받아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읍면 규모로 합병을 완료한 단위조합에 비료·농약·영농자금·공제 업무를 1974년까지 이관 완료함으로써, 단위조합의 기능화와 자립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광양농협에 이관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 공급이었다. 비료는 농업생산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증산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자재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비료판매원을 채용해 비료 인수부터 판매와 미수채권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다만 초기의 비료 업무는 광양농협이 광양군조합과 비료 취급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는데, 1977년 비료관리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978년부터는 비료 공급 업무를 광양농협 책임하에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광양농협의 비료공급 실적은 1978년 1억 9900만 원에서 1981년 4억 6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농약 업무는 병해충의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원활한 수급과 농가의 구입 편의 제공이 중요했다. 광양농협은 1974년부터 농약 성수기 무휴 판매제와 농약 모니터제를 도입하고, 수도용 공동방제 농약에 대한 외상판매제를 실시해 조합원의 농약 구매 편의를 높여주었다. 특히 1977년부터는 도 단위 농약센터가 설치되어 회원조합 간의 농약 수급조절이 원활해졌으며, 수



● 광양농협의 농약 업무 취급으로 1979년 열린 병충해 공동방제단 발대식.

도용 농약에 전국 단일가격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광양농협은 지역적으로 중앙에서 먼 불리한 여건임에도 농약을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다.

영농자금 업무는 광양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단기농사자금 업무부터 자연스럽게 이관되었다. 광양농협이 농사자금을 취급하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광양군조합에서 용자를 받았기 때문에 군조합의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상환도 군조합에 가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광양농협의 영농자금 업무는 상호금융과 함께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영개선과 사업 확충의 기반이 되었다.

공제 업무 역시 이동조합들이 손해공제인 특수가축공제와 화재공제, 생명공제인 생활안정공제와 어린이희망공제 등 군조합의 업무를 대리 취급하던 것인데, 읍 규모로 통합된 광양농협 출범으로 이관받아 취급하게 되었다. 광양농협은 마을별 공제 전호(全戶) 가입 등 공제 보급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를 통해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 정신 구현을 도모하였다. 광양농협은 초창기 공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유효계약고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1978년 3억 5800만 원이던 공제 유효계약고는 1981년 5억 53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중앙회 업무 이관에 따른 광양농협 사업 성장

(단위: 백만 원)

연도	판매	일반구매	비료	참고·운송·가공	공제 계약고
1976	199	121	-	-	-
1977	320	126	-	-	-
1978	183	109	199	23	358
1979	315	196	166	38	398
1980	631	298	238	33	484
1981	920	232	406	42	553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나. 상호금융 도입과 연쇄점 운영

상호금융 도입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우리 농촌은 피해할 대로 피해했고 농민들의 삶은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자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농민들이 영농비와 생활비를 융통하려면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농촌의 자금 과부족 문제 해결을 지시하였고, 농협은 1969년 경제력이 빈약한 농민들이 상호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상호금융을 개발하여 합병을 완료한 단위조합부터 취급하도록 하였다.

광양농협의 상호금융 역사는 이동조합인 도월리조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월리조합은 이동조합이었음에도 광양읍 일부 지역의 합병을 바탕으로 사업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2년 5월 10일부터 신

189 총계정원장 잔액장
1975년 12월 31일 현재

계정과목 (단위: 원)		잔액	
(신) 총 자산	1,234,567,890	(신) 총 부채	1,234,567,890
현금	123,456,789	당기 이익금	123,456,789
예치금계합	234,567,890	상회적금	234,567,890
장외유예금	345,678,901	저축계합	345,678,901
유예금계합	456,789,012	차입금계합	456,789,012
대출금계합	567,890,123	신용협동조합	567,890,123
대리대출금계합	678,901,234	대리대출금	678,901,234
대외채계합	789,012,345	대외채	789,012,345

1975년 말 기준 총계정원장 잔액장의 위부분. 대출금계정이 1억 545만 원, 예수금계정이 1억 3270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었다. 광양농협이 1973년 6월 16일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연혁에서 업무 개시 일자를 이보다 먼저인 1972년 5월 10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광양농협은 신용협동조합 이론에 농업협동조합 이념을 접목한 상호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자금 조달 능력과 공급 기능을 확

보하게 되었다. 초창기 상호금융은 저축상품으로 일시예탁금·정기예탁금·상호적금·자유적금 등이, 대출상품으로 일반대출금·상호적금대출금·영농자금대출금 등이 있었다. 1974년에는 영농적금·계식적금·농촌저축증지, 1976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예금제도가 추가되었다.

광양농협이 다양한 예금상품을 통해 조달한 유휴자금은 조합원들에게 사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율로 영농자금과 가계자금으로 공급되어 농촌에 만연했던 고리채를 추방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상호금융은 농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과 함께 광양농협에도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능력 제고라는 효과를 안겨주었다.

상호금융 취급에서 발생한 경영수익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광양농협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조합원과의 밀착으로 공제사업 확대 및 출자금 증대 등도 도모할 수 있었다. 예금과 대출을 아우르는 상호금융은 광양농협의 경영기반 구축에 가장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연쇄점 운영

농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4대 대농민 업무를 이관하면서 상호금융 취급과 함께 1970년부터 연쇄점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연쇄점은 중앙회가 생활물자구매사업소를 통해 물자를 구매하고 단위조합이 생활물자구매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물자를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체인점 형식의 사업장으로서 이동조합의 구관장이 발전한 형태였다.

광양농협은 사무소를 인동리로 이전한 직후 임차 건물에 구멍가게 수준의 연

쇄점을 개점하였고, 1984년에는 인동리 본점 옆 자체건물로 옮겨 설탕·술·과자 등 식품을 비롯해 의류, 세제, 그릇, 문구, 잡화 등 다양한 생활물자를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광양농협은 부녀회와 협력하여 연쇄점 전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부녀회가 운영하는 마을 구관장에는 차량을 이용해 고무신·비누·성냥 등 물자를 공급하거나 농번기에는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이동판매도 하며 편의를 제공하였다.

광양농협의 연쇄점은 주변 일반 가게들에 대한 가격 견제 기능을 발휘해 농가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조합원들이 장날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생활장터로서 농협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큰 성과를 내며 훗날 하나로마트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

광양농협 연쇄점(생활물자사업) 판매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1978	1979	1980	1981
금액	63	106	86	115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제2절 • 뿌리를 내리다

새마을운동과 소득증대사업 추진

가. 새마을운동 지원

1970년 시작해 198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이념으로 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며 사회 혁신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특히 농촌의 경우 ‘근대화’와 ‘잘살기’를 목표로 단기간에 생활환경을 변모시키면서 농민들의 의식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운동은 처음 내무부 소관의 관제 운동으로 전개되다가 1980년 민간운동으로 전환되었는데, 농협은 특히 초창기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앙회가 농협대학에 설치했던 독농가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다 연수원을 1973년 수원으로 이전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편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협 직원들이 교수요원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또 중앙회 내에 1972년 새마을지도과, 1973년 새마을사업부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관련 자체 금융상품도 개발하여 취급하였다. 농촌에서의 새마을운동 추진 역시 농협 조합원인 농민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광양 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반 전체 183개 마을에서 ①마을 산 푸르게 만들기 ②마을 진입로 넓히기 ③마을 앞 소하천 제방 보수와 바로잡기 ④퇴비장 만들기 ⑤소유지 모래 파내기 ⑥공동우물 만들기 ⑦마을 청소와 메워진 하수구 파내기 ⑧공동 빨래터 만들기 ⑨쥐 없는 마을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광양농협이 출범한 1973년부터는 모든 마을을 발전 수

준 및 소득을 참고하여 분류한 유형에 따라 기초마을 98개와 자조마을 85개로 나누고 새마을 사업을 소득에 직결시켜 추진하였다. 또 1974년부터는 마을 통합으로 183개 마을을 181개 마을로 조정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지붕 개량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광양읍 새마을운동의 소득증대사업 현황 (단위 : 건, 천 원)

연도	사업 내용				사업 투자비		
	가로정비	주택정비	기타정비	계	지원	자부담	계
1979	14	50	6	70	100,000	45,920	145,920
1980	4	50	18	72	170,000	190,150	360,150
1981	9	125	27	161	270,000	620,000	890,000
1982	6	158	23	187	265,000	642,300	907,300

※ '광양시지' 6편 7장의 '소득증대사업' 표를 변형함.

1980년 추진된 광양읍의 소득증대사업 모습으로 '광양시지'에 수록된 사진이다.



광양농협은 새마을운동 수행 과정에서 새마을농민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편 농어촌 1조원 저축운동 추진 방안의 하나로 자조마을에는 1조금고를, 기초마을에는 새마을저축반을 설치하고 저축을 독려했다. 1977년에는 협동회(현재의 영농회)를 새마을영농회로, 부녀회를 새마을부녀회로 각각 변경하여 농촌 새마을운동 추진의 중심체가 되도록 하였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소도읍 가꾸기, 교량 건설과 도로 확·포장, 지붕 개량 등에 필수 자재인 시멘트와 슬레이트·기와 등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

광양농협은 상호금융과 연쇄점 업무 등이 성장하여 경영기반이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확산으로 조합원들의 정신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잘 살기에 대한 의욕을 지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자신감을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와 중앙회가 1977년부터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농업 개발을 추진하자 광양농협은 이에 보조를 맞춰 참여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출하지도 및 마을 단위의 영농 기술지도를 담당하였다.

광양농협 관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소득사업 중 하나는 부업축산이었다. 조합원들은 상당수가 양돈과 한우 사육을 선택하였다. 광양농협은 1979년 조합원들이 돈사 신축과 자돈 입식을 진행하자 조합원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광양농협은 1970년대 주곡(쌀) 자급을 위해 영농회를 미곡작목반으로 편성하고 통일벼 재배로 단당 생산량을 증대함으로써 녹색혁명 완수에 기여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광양군조합과 함께 맥주보리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요령을 교육하였다. 당시 광양 지역에서는 맥주보리 계약재배가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농민들 대다수가 맥주보리를 처음 파종한 상황이었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경지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이모작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1981년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으로 덕례리 동주마을 조합원들이 제주산 송아지(비육우)를 들여와 내리는 모습.

한편 1970년대에는 광양의 밤과 매실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밤과 매실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판매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다. 새농민과 농협신문 보급

광양농협은 효율적인 지도사업 수행을 위해 각종 간행물이나 교재 등 활자매체 보급에도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새농민과 농협신문으로, 이 간행물을 보급하는 목적은 농협사업 확산을 지원하고 영농과 생활정보를 전파하며 농촌 문화 발전 및 농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월간지 새농민은 농협중앙회가 1961년 창간하였다. 새농민은 영농정보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정보와 소설 등 문학작품, 연예·스포츠 등의 기사까지 실는 종합교양 잡지였다. 1973년부터는 새농민 부록으로 어린이새농민을 발간해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촌 어린이들이 학습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새

농민은 현재 월간지 전원생활과 디지털농업으로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고, 어린이새농민은 제호가 어린이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농협신문은 1964년 주 1회 발행으로 창간되었다. 농협신문은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협의 사업 홍보, 농업기술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1976년 제호가 현재와 같은 농민신문으로 변경되었다. 농민신문은 현재 가장 권위 있는 농업전문지로서 격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광양농협은 입을거리가 마땅치 않았던 농촌사회에서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인기 있는 활자매체인 이들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보급 간행물

구분 (현재 제호)	새농민 (전원생활·디지털농업)	농협신문 (농민신문)	어린이새농민 (어린이동산)
창간 시기	1961년	1964년	1973년
주요 내용	교양·생활, 영농정보	농업기술, 농협소식	교양, 학습

※ 어린이새농민은 새농민의 부록으로 발간되다 1984년부터 별책으로 발간.

제2절 • 뿌리를 내리다

경영기반 구축

가. 사무소 이전과 출자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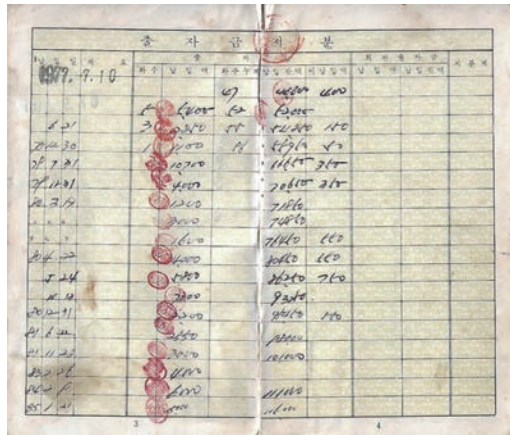
덕례리에서 인동리로 사무소 이전

광양농협은 1973년 광양읍 덕례리 8-6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런데 덕례리는 광양읍 중심가를 기준으로 볼 때 서천 건너편인 서남부에 위치하여 광양읍 전역을 구역으로 하는 광양농협의 소재지로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무소를 덕례리에 둔 것은 적합한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광양농협 설립을 덕례리·도월리·세풍리를 구역으로 한 인덕3리조합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허동열 조합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사임하자 이어서 광양농협 운영을 책임지게 된 제2대 길호용 조합장은 사무소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4월 광양농협이 자리 잡게 된 곳이 광양읍 인동리 399-2로, 이곳은 당시 광양읍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광양농협이 읍 시가지의 중심에 자리하자 조합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호금융과 연쇄점 등 사업 추진도 원활해졌다.

출자증대 운동 전개

광양농협은 군 내에서 읍·면 규모로의 합병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었다. 군조합의 업무를 이관



1970~1980년대의 출자금 통장에 기재된 출자금 지분. [이창근 제공]

받고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조합원을 위한 협동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출자금 확충이었다.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을 독려하여 출자금 증대 운동에 나섰다. 총회와 마을 좌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출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영농회별로 신규 출자 목표를 부여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출자금 증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당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자발적인 출자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에 현금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병행하였다.

현금출자는 조합원이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인데, 비료 등 농자재를 판매할 때 신청 수량에 비해 출자금을 책정하여 조성하기도 하였다. 현물출자는 봄철 하곡 공판 때 ‘보리 한 가마 출자하기’, 가을 추곡 공판 때 ‘벼 한 가마 출자하기’ 등의 운동으로 독려하였다. 이와 함께 영농회별로 출자조성 목표를 부여하고 정기총회 때 시상도 하였다.

출자증대를 위해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광양농협의 출자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납입출자금이 1억 원을 돌파하여 신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

광양농협 출자금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금액	147	24,167	31,309	38,896	52,228	71,269	92,891	110,603	136,002

※ 1973년은 6월 16일 출범일 기준임.

나. 저축추진 총력 전개

농어촌 1조 저축운동 전개

정부와 농협·수협·체신부는 1974년부터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1조 저축운동은 농어촌의 잠재저축자원을 제도권의 저축으로 흡수하여 농어촌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조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1973년 말 1479억 원인 농협·수협·체신부의 예수금·공제자금·출자금 합계액을 1980년 말에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조 저축운동은 당시 농촌에 만연하였던 계와 사채 등 사금융을 단위 조합의 상호금융이 흡수하도록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체가 단위조합이었다. 광양농협은 상호금융을 취급하기 시작한 이래 조합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저축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조합원들에게 대출되어 영농자금과 생활자금으로 활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동력도 되기 때문이었다.

광양농협은 총력적인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마을별 협동회(영농회의 전신) 조직을 1조금고반 또는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새마을저축반으로 운영하고, 협동회별로 상호금융예수금이 포함된 5대사업 전이용 목표를 부여해 관리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판매대전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조합원과의 밀착화도 강화하였다.

1조 저축운동은 높은 열기 속에 추진되어 농협만의 상호금융·군조합농민예금·출자금·공제자금 합계액으로 1979년 1조 원을 돌파하였고 목표연도였던 1980년에는 1조 3624억 원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 이 운동에 힘입어 광양농협의 상호금융예수금도 1976년 1억 5700만 원에서 1980년 10억 원을 돌파한 10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예수금 증가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자 정책자금을 포함한 대출금 역시 크게 증가해 1978년 5억 4100만 원에서 1981년 23억 82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농어촌 1조 저축운동 기간 광양농협 예수금·대출금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상호금융예수금	157	321	451	700	1,015	1,382
대출금(상호+정책)	-	-	541	1,373	1,746	2,382

※ 예수금은 잔액, 대출금은 평잔 기준임(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신상품 도입과 금융제도 개선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상호금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조 저축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상품을 개발해 취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금융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힘입어 광양농협은 197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기 시작해 조합원들의 저축 열기를 고취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8년에는 자립예탁금을 취급함으로써 금융 이용에 편의를 높였다. 자립예탁금은 특히 잔액이 없어도 약정 한도 이내에서 즉시 대출이 가능한 대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1981년부터는 전국의 단위조합에서 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합원들이 농산물 판매대금이나 생활자금을 송금하는 등 자금 이체가 크게 편리해졌다.

광양농협 초창기 금융업무 도입과 편의 증진

구분	제도 도입 및 편의 증진 내용	비고
1974. 05. 31.	농산물판매대전 통장지급제 실시	
1976. 04. 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 실시	
1976. 12. 31.	농협공제 비조합원 이용제한(20%) 배제	
1977. 03. 01.	우체국의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 인수	
1978. 09. 01.	자립예탁금제도 실시	11월 1일 대월제도 실시
1981. 01. 01.	모든 단위농협 환업무 취급	

※ 날짜는 농협중앙회 실시(도입) 기준임.

다. 영농회와 부녀회 육성

협동회가 영농회로 발전

1973년 농협중앙회는 마을단위 농협사업 이용기반을 다지고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단위조합의 내부 및 협력조직 운영요령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부터 조직에 착수했던 부락회를 마을 행정 및 농협 전이용 조직인

협동회로 개편하였다. 협동회는 그 하부조직으로 협동생산·공동판매의 작목조직인 작목반을 비롯해 저축반·학습반을 조직해 농협 내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협동회는 1977년 농촌진흥청의 농사개량구락부와 통합해 새마을 영농회로 일원화되었다.

광양농협은 이에 맞춰 마을별로 협동회를 조직해 운영하였다. 협동회는 새마을운동과 농협사업 전이용 실천조직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경쟁하며 광양농협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마을별 좌담회와 영농교육 등을 통해 출자·저축·계통출하 등 농협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식량과 퇴비의 증산에도 앞장섰다.

광양농협은 협동회에 ▲출자조성 ▲상호금융예수금 ▲공제가입 ▲조합물자구매 ▲농산물계통판매 등 5대 사업의 전이용 목표를 부여하고 정기총회 때 실적에 따라 시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



● 협동회는 영농회의 전신이다. 사진에 '익신협동회'라는 간판이 보인다.



● 부녀회원들이 공동취사장에서 식사하는 모습.

부녀회 주축으로 생활개선사업 추진

부녀회는 1973년 '단위조합의 내부 및 협력조직 운영요령' 제정에 따라 처음 농협의 협력조직이 되었으며, 1974년 내부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광양농협 관내 부녀회는 협동회와 마찬가지로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1977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부녀지도협의회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 및 단체가 육성하던 마을 단위 조직들이 통합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의 부녀회는 일부 마을에 조직되었던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구락부, 보건사회부의 부녀교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어머니회 등과 합쳐 '새마을부녀회'로 일원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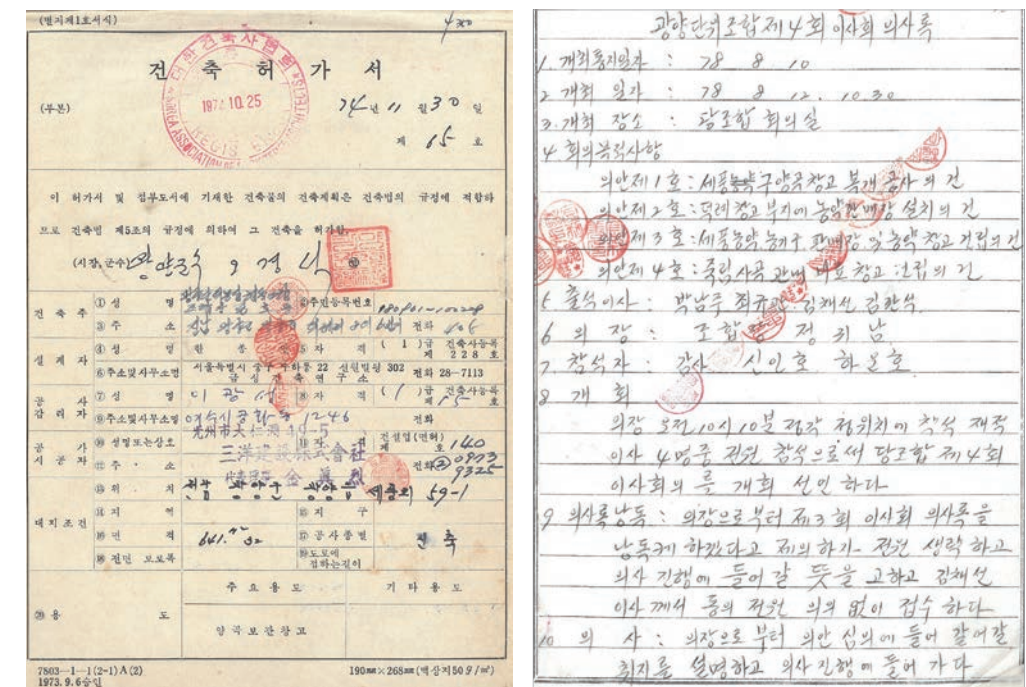
부녀회는 저축증대·새마을구관장·공동취사장·부녀교실 등 농촌생활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필요한 4대 기본업무를 운영하면서 농촌발전은 물론 농협사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부녀회는 또 교양 및 자질향상, 자녀교육, 생활환경 개선, 영양개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소비생활 합리화, 공동기금 마련,

마을 경로잔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양농협은 부녀회가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부녀부장을 채용해 운용하고 자금과 교재 등을 지원하였다.

라. 봉사조합 선정

광양농협은 상호금융이 성장하고 연쇄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이와 함께 1974년 세풍리 59-1에 양곡보관창고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세풍리 일대 간척지 쌀의 보관 능력을 키운 데 이어, 1978년에는 이사회에서 세풍리 양곡창고 복개공사의 건 외에 ▲덕례리 창고 부지에 농약판매장 설치의 건 ▲세풍리 농약·농기구판매장 및 농약창고 건립의 건 ▲죽림·사곡리 관내 비료창고 건립의 건 등을 의결함으로써 경제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조합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광양농협은 출발은 인근 농협들에 비해 늦었지만, 성장에 속도가 붙자 정귀남



● 1974년 발급된 세풍리 양곡보관창고 건축허가서.
●● 농약판매장과 농기구판매장 설치, 양곡창고 건립 등을 의결한 1978년 이사회 의사록.



광양농협은 1978년도 결산 결과 자립조합으로 발돋움 하였다.

조합장(제3~5대 역임) 재임 시기인 1978년 말 자립 조합으로 선정된 데 이어 1979년 말에는 다른 농협 들보다 먼저 봉사조합에 선정되었다.

광양농협의 위상은 농협중앙회가 1977~1981년 기간에 전체 회원조합을 발전 단계별로 지원조합-성장자립조합-봉사자립조합으로 구분해 추진한 '성장자립조합 육성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9년 말 기준 전국 1490개 회원조합 중 지원조합이 884개로

가장 많고 성장자립조합이 506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봉사자립조합은 100개에 불과했는데, 광양농협이 봉사자립조합에 선정되었던 것이다.

조합원 및 총자산·순이익 규모 변화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조합원	2,027	2,177	2,019	1,920	2,022	2,462
총자산	-	-	1,087	2,227	2,814	3,710
순이익	5	11	12	18	31	24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수록 기준임.

“연말 다가오면 담당 마을로 회수출장”

회고담 ② 광양농협 초창기의 사업 추진



박성은 퇴직 동인 (1948년생)

나는 20대 후반인 1975년 광양농협에 들어와 2004년 광양농협에서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옥룡농협에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옥룡농협도 광양농협의 일원이 되었으니 사실상 광양농협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셈입니다.

내가 광양농협에 입사하니 상호금융과 연쇄점 업무를 하고 있더군요. 연쇄점은 아마 1973년 합병 완료 후, 상호금융보다는 늦게 개점했던 것 같아요. 1975년 당시 본점이었던 현재의 중부지점 옆으로 조금 돌아가면 삼거리에 약국이 있고, 그 옆 건물을 임차해 구멍가게 수준의 연쇄점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10년쯤 운영하다 본점 옆에 자체건물을 마련해서 옮겨왔어요. 1970년대는 신용사업도 경제사업도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연말이면 결산을 하기 위해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보관료를 제때 받으려고 정부(군청)에 독촉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농협창고가 세풍리와 도월리에 있었는데 분기별로 들어오는 농창(農倉) 보관료 수입이 결산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회수출장이라고, 목표로 부여된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받기 위해 담당 마을로 차가운 바람을 쐬

며 출장을 다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출장을 가보면 마을 이장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거나 돈 관리를 도맡아 하다가 살림을 축낸 경우도 있고, 비료를 배급하느라 고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결산을 해야 하니 회수가 안 되면 우선 대납했다가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기도 했는

데, 그러다 떼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나도 몇 번 대납했지만 크게 떼인 적이 없었으니 다행이었지요. '1조저축'이라고, 저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 주변 상가를 돌면서 수금해 예금주 계좌에 넣어주었어요. 1980년대 이후에는 특히 공제 추진이 힘들었는데, 농협 직원의 생활은 회수·예금·공제·카드 등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광양농협은 후배들이 진취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적 결속력이 강해 수매 때 상차나 출하 작업에 함께 힘쓰고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대담 일자 : 2023년 8월 10일 ·정리 : 김홍선 작가

제3절
즐거움을 올리다

光陽

광양농협의
알찬 성장

1973-2023

광양농협은 1980~1990년대 들어 상호금융·공제 등 신용사업이 성장하고 판매·구매 등 경제사업이 확대되면서 알찬 성장을 이뤘다. 이농에 따른 후계인력 지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종합청사 신축과 민주농협 성취 등 자율경영 체제도 확립하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조합장

제6~8대 길창호 조합장 | 취임일 1982. 02. 09. 퇴임일 1990. 03. 20. ▶ 제9대 최규관 조합장 | 취임일 1990. 03. 21. 퇴임일 1994. 03. 20.

제3절 • 즐거움을 올리다

신용사업 확대

가. 상호금융 발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은 1970년대에 토대를 다진 광양농협의 상호금융이 중앙회의 다양한 금융제도 개발과 보급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실제로 광양농협의 상호금융은 길창호 조합장이 취임한 1982년 말 예금과 대출금(정책자금 포함)이 각각 20억 6600만 원과 30억 74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최규관 조합장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경영을 책임진 1993년 말에는 각각 311억 3000만 원과 315억 3000만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광양농협의 상호금융 발전은 자립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등 농업·농촌 상황에 맞는 저축제도 및 이와 결부된 자립예탁금 대월 등 대출 제도를 광양농협이 제공하고 이를 조합원과 고객이 잘 활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당시 금융산업 기술의 발달과 확장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

우선 광양농협이 각종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자동납부(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과 고객의 금융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시작한 전화요금 수납은 1992년 자동납부 제도로 이어졌는데, 특히 자동납부 제도는 광양농협에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 고객의 신규 계좌가 증가하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금융업무 발전

일자	금융업무 발전 내용	비고
1982. 05. 01.	회원농협 자기앞수표 발급 개시	
1983. 07. 01.	회원농협 전화요금 수납 개시	1992년 자동이체제도 도입
1983. 09. 01.	상호부금 취급 개시	
1987. 05. 01.	회원농협 은행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취급	1993년 신용카드업무 개시
1989. 12. 30.	전국 회원농협 온라인망 구축	
1991. 04. 27.	상호금융대출 온라인 전국 확대 실시	일반대출금 등 5개 과목
1991. 12. 20.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1992. 07. 01.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제 실시	
1992. 11. 30.	전화료 자동납부제 도입	
1993. 05. 11.	전기료 자동납부제 도입	

※ 날짜는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적용(도입) 기준임.

1987년 시작한 은행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업무도 신용사업 발전과 결부되었다. 카드 업무는 초기에 창구를 통한 소액 대출 형식의 현금서비스 업무로 출발했으나 현금자동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되었고 1993년부터는 신용카드 업무로 확대되었다. 고객으로 하여금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든 카드 업무는 수수료 수입과 마트의 매출을 늘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온라인을 비롯한 사무자동화 진전도 상호금융 발전을 촉진하였다. 농협은 1989년 전국 회원농협을 온라인망으로 연결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상호금융 대출 업무까지 온라인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로써 상호금융일반대출금, 적금관계대출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대출금, 상호금융중기대출금,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등에 관한 업무를 전국 어느 농협에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는 또 회원농협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가 시작됨으로써 온라인화에 이어 사무자동화와 함께 창구인력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

광양농협은 이러한 금융 제도의 도입과 별도로 관내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점(당시는 지소) 개설이다. 길창호 조합장은 1990년 2월 본점 청사를 목성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기존 인동리 본점을 중부지소로 변경하였으며, 최규관 조합장은 1990년 10월 칠성리 북부지소와 1992년 11월 덕례리 서부지소를 설치하였다.

광양농협의 상호금융 발전 및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자금 조달 확대는 자금의 공급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영농 및 생활자금 이용이 용이해졌다. 실제로 광양농협의 대출금 중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의 비율은 1988년 65:35에서 1993년 78:22로 달라졌다. 이는 대출금 재원의 대부분을 상호금융으로 조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상호금융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수금(잔액)	대출금(평잔)		
		상호금융	정책자금	계
1982	2,066	-	-	3,074
1983	1,716	-	-	3,566
1984	2,245	-	-	4,001
1985	3,244	-	-	4,606
1986	5,098	-	-	5,219
1987	6,765	-	-	7,287
1988	9,142	6,360	3,485	9,845
1989	11,343	8,385	4,098	12,483
1991	23,777	15,829	5,871	21,700
1992	28,122	18,882	6,402	25,284
1993	31,130	24,474	7,056	31,530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1990년도 실적은 낙장(落張)으로 인해 확인 불가.



1984년 친절봉사 결의대회 모습. '정성어린 응대 속에 다시 찾는 농협 창구'라는 어깨띠와 함께 '친절·봉사'라 쓰인 머리띠를 돌렸다.



● 광양농협의 공제사업은 '전 조합원 공제가입 추진 대회'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나. 공제사업 확대

광양농협은 광양군조합으로부터 공제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공제사업을 조합원에 대한 생활복지사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영농규모가 적어 소득이 낮은 조합원에게 재산과 신체 및 생명에 대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를 극복하고 재기하는 방안으로 공제(보험)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광양농협의 공제사업은 1976년 새생활공제·진학공제·단기저축공제·종신보장공제·단기화재공제 등이 개발되고, 1977년 군조합의 생명공제를 대리취급에서 원수(原受)취급으로 전환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자에 대한 건강진단 혜택 제공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보험으로서의 공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광양농협의 공제사업은 1980년대까지는 신규와 보전을 합친 유효계약고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공제료에 대한 관리 비중을 높임으로써 보장성 공제와 저축성 공제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유효계약고의 경우 1982년 6억 6200만 원에서 1985년 10억 원과 1989년 50억 원을 돌파하고 1992년 178억 4900만 원에 이르렀다. 공제료는 1991년 12억 9300만 원에서 1994년에는 24억 72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공제 유효계약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1	1992
계약고	662	544	793	1,072	1,561	2,371	3,476	5,503	13,191	17,849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1990년도 실적은 낙장(落張)으로 인해 확인 불가.

제3절 • 줄기를 올리다

경제사업 성장

가. 시설원에 확산과 판매사업

농협의 판매사업은 조합원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될 수 있게 알선하여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983년 산지유통 시작의 일환으로 협동출하반 육성을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기존의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작목반으로 일원화하는 등 생산조직을 정비하였다.

광양농협은 이러한 목적과 상황 변화에 맞춰 작목반을 육성 및 지원하고 조합원들의 계통출하를 독려하며 판매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를 굳힌 밤과 매실, 광양제철소 건설 등 지역 개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시설원에 등의 판매사업은 개별 농가 단위로 개척하기 어려운 판로와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성출하기의 홍수출하 방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광양농협의 판매사업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시설원예농업 발전이다. 광양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된 시설원예농업이 1980년대 들어 철재하우스 보급과 난방기술 발전, 작목반 지원 등에 힘입어 크게 활발해졌다. 그중에서도 시설오이는 전국의 오이 시세를 좌우하는 광양의 대표작물로 자리 잡았다.

밤 판매사업의 경우는 1978년부터 광양농협 단독으로 하지 않고 관내 8개 회원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출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광양군 내의 모



1980년대 밤 공동판매는 광양 관내 전체 농협의 '협동조합 간 협동'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든 밤 생산 농가가 소속 농협에 관계 없이 같은 기간에 같은 규격으로 같은 가격에 출하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특이한 방식이었다. 1986년의 경우 협동조합 간 협동에 의한 밤 협동출하 규모는 취급 물량이 광양 지역 총생산량의 90%가 넘는 3600톤이었고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판매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실적	661	922	1033	648	1,205	1,940	2,284	2,421	2,572	3,452	4,680	5,855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나. 구매사업

조합원들의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구매사업의 최대 장점은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교섭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광양농협

은 조합원들이 영농자재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데에 따르는 운송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80년대 들어 보온못자리가 일반화하면서 광양농협은 못자리용 활죽과 비닐 공급을 시작하였다. 또 농약과 비료는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자재로서 품질은 물론 사용 시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1988년 비료판매 자유화가 이뤄지고 1990년에는 수도용 농약 공급이 정부위촉사업에서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광양농협은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이 비료와 농약 구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구매사업에 반영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가마다 복합영농의 열풍이 불었다. 상당수의 농가는 경종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축산을 겸영하는 형태의 복합영농을 운영하였다. 광양농협은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배합사료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

광양농협의 구매사업 실적은 1982년 6억 66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0년 10억 원을 넘어섰고 1993년에는 20억 원을 돌파하여 22억 5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비료는 1984년에 4억 5400만 원, 농약은 1991년에 1억 300만 원, 배합사료는 1986년에 1억 5100만 원으로 각각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구매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일반	280	153	153	191	209	304	366	391	641	1,115	1,652	2,205
비료	386	441	454	352	335	307	269	227	287	150		
농약	-	-	-	93	87	79	45	60	72	103		
사료	-	-	-	-	151	94	147	111	111	-		
계	666	594	607	636	782	784	827	789	1,111	1,368	1,652	2,205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1992년부터는 구매사업 합산 표기.

다. 생활물자와 기타사업

조합원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가정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광양농협의 생활물자사업은 구관장을 연쇄점으로 개편하여 개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광양농협의 초창기 연쇄점은 인동리 본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임차 건물로서 매장이 좁고 상품의 구색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성장이 더뎠다.

이 때문에 길창호 조합장은 부진한 연쇄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1983년부터 부녀회를 통한 이동판매로 연쇄점 생활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생활물자사업은 특히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였으므로, 부녀회와 연계하여 사업 실적을 확대하고 조합원 농가의 합리적인 가계 운영도 유도하였던 것이다.

광양농협은 1984년 본점 옆에 자체건물을 마련하여 연쇄점을 이전하고 ‘농민 백화점’으로 개점하였으며, 1990년에는 본점 청사를 목성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연쇄점도 함께 이전함으로써 생활물자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광양버스터미널과 오일시장이 인접하고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확대된 규모의 연쇄점이 개설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용이 크게 편리해졌다. 실제로 연쇄점 이전 직전 연도인 1989년 8억 8300만 원에 불과했던 광양농협의 생활물자사업 실적은 1990년 17억 7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다만 연쇄점이 지하에 입점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광양농협의 창고·운송·이용·가공 등의 기타사업 실적은 1982년 5100만 원에서 1993년 8600만 원으로 성장하였지만 눈에 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생활물자 및 기타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생활물자	93	123	142	287	195	298	570	883	1,707	2,150	2,431	2,423
기타사업	51	63	54	57	60	54	51	62	75	70	80	86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기타사업은 창고·운송·이용·가공 등의 사업임.



인동리 청사 시절의 연쇄점 모습으로, 1984년 자체건물에 개점하였다.

라. 편의시설 확충

광양농협은 1970년대부터 도정공장 2곳을 운영하여 세풍 지역의 품질 좋은 간척지 쌀 위주로 도정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고 난방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설치가 늘어나면서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1986년 도입되었다. 이에 광양농협은 농기구서비스센터(농기구판매장)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유류취급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시설하우스 증가로 수요가 늘어

1990년 기준 광양농협의 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합청사	연쇄점	도정공장	농기구 서비스센터	유류취급소	창고	
					양곡창고	기타창고
1	1	2	1	1	6	3



● 1984년 연쇄점으로 개조되기 전의 농산물판매장 모습. 이 건물의 일부는 농기구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난 난방용 유류는 요일별로 영농회를 순회하며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3절 • 줄기를 올리다

교육지원사업 다양화

가. 복합영농 추진

국내 농업은 1970년대까지는 쌀과 보리를 생산하는 자급자족적 경종농업 위주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상업적 영농이 발달하였으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제공되었다.

농가소득 증대 시책의 대표적인 경우가 1983년부터 추진한 복합영농이다. 복합영농은 한정된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종래의 미백 중심 농사에 축산과 경제작물 등 수익성 좋은 작목을 결합하는 영농 형태였다. 복합영농사업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포함해 1987년까지 실시되다 1988년 기존의 새마을소득증대사업과 복합영농사업 등이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광양농협은 관내 조합원들의 복합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적극 추진하여 영농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영농지도사를 운용하여 영농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 복합영농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사실상 광양농협의 자체 사업이나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참여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출하지도 및 마을 단위의 영농기술지도 등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을 광양농협이 사실상 전담했기 때문이다.

광양농협은 복합영농 지원으로 농민의 영농기술 분야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물(느타리버섯) 기술교육.

●● 복합영농사업으로 양축능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저 조합원들과 밀착하게 되었으며, 생산과 판매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복합영농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금으로 무리하게 송아지를 입식한 결과 1984년 이후 소값 파동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나. 농업 후계인력과 새농민 지원

광양농협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화가 심화하자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농어민 인력의 확보를 위해 1980년 11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1년도부터 실시하자, 농림수산부에서 수립한 농민후계자 정책지원 계획에 맞춰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유통 활동을 지원하였다.

광양농협은 또 선발된 후계자(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등 농협과의 밀착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원 상당수가 대의원 및 임원 등으로 성장하여 광양농협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광양농협은 1990년 기준 10개의 4-H회를 지원하였고, 조합원 자녀에



● 1984년 열린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모습.

대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농업·농촌·농협에 대한 우호 세력을 육성하였다. 광양농협은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함께 독농가의 새농민상 수상을 지원하였다. 새농민상은 1965년 농협중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새농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정한 것으로 '자립하는 농민' '과학하는 농민' '협동하는 농민'을 새농민의 상(像)으로 제시하였으며, 1966년부터 새농민상에 부합한 선도 농민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다른 농민들이 표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왔다. 광양농협의 새농민상 수상 지원 노력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 새농민상 수상자도 이때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다.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업 약소국인 우리나라에 매우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인 쌀까지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신토불이 운동.

●● 광양농협이 거리에 내건 농촌 지키기 플래카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농협을 위시한 농업계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개방 확대 저지에 나서는 한편 ‘신토불이(身土不二)’로 상징되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1991년 11월 11일 농협중앙회 마당에서 전국 조합장과 중앙회 임직원 등 2000여 명이 모여서 전진대회를 갖고 가두 서명 접수에 돌입한 ‘쌀 수입개방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은 불과 열흘 만에 목표 인원의 배가 넘는 222만 명, 43일째인 12월 23일에는 무려 1307만 8935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비농업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 농산물 애용을 호소하였다. 또 부녀회·주부대학생 등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개발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고,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 대한 무료 차집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훈훈한 정을 전하며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라. 여성의 농협운영 참여 확대

농협은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 조직인 부녀회를 내부조직으로 육성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농가 지도사업 대상 겸 사업활동의 동반자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역할이 증대된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자이며 금융고객인 비농가 여성의 잠재력을 계발해 농협 사업과 연계하고자 주부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990년 주부대학을 개설한 농협들을 연결하여 수료생들이 주부대학동창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농촌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탄생했으며, 이 모임은 1992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광양농협도 1990년 처음 주부대학을 개설한 이래 매년 주부대학을 열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100명 안팎의 수강생에게 교양, 건강관리, 금융상식, 선진지 견학, 인간관계, 농업·농협에 대한 이해 등의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였다. 주부대학생들은 수료 후 동창회(고향생각주부모임 광양농협지회)를 조직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농사체험장 운영과 농번기 일손돕기, 영농과 생활 폐자재 및 쓰레기 수거를 통한 환경보호 등에 앞섰다. 고향생각주부모임은 농협의 조직이라는 제약성을 벗어나 독립된 소비자조직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

광양농협은 고도화된 여성의 안목과 능력을 농협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의 조합원 가입을 지원하였다. 농협은 과거 조합원 가입자격을 남성이 대부분인 ‘가구주’로 한정하였으나, 1988년 농협법을 개정하여 여성 농업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4년에는 복수조합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조합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 농업인은 대의원 뿐만 아니라 임원인 이사로도 선출되어 광양농협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광양농협은 일정 인원 이상의 여성이 대의원 및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정관도 개정하였다.

● 농협의 전통 여성조직장인 부녀회장들의 월례회의.

●● 주부대학동창회 회원들의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제3절 • 줄기를 올리다

자율경영 역량 확충

가. 종합청사 신축 이전과 지점 개설

광양농협은 1990년대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조합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목성리 710-34에 본점 종합청사를 신축하고 1990년 2월 20일 이전한 것이다. 목성리 청사는 기존 인동리 청사에 비해 업무 공간이 넓은 뿐만 아니라 오일시장과 버스터미널 등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이용이 편리하였다.

광양농협은 본점 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동리 청사는 중부지소로 변경함으로써 최초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 1990년 10월에는 칠성리 북부지소를, 1992년 11월에는 덕례리 서부지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광양농협의 본점과 지점들은 시가지 개발과 확장에 따른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고,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광양군지부 등과 예금 유치 경쟁을 하며 고객을 확보하였다.

한편 광양농협은 이에 앞선 1989년 4월 1일 그동안 불려오던 명칭 '광양단위 농업협동조합'에서 '단위'를 삭제하고 현재의 명칭인 '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회원조합 중 지역농협의 명칭에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단위'라는 자구를 삭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1989년 7월 5일 거행된 종합시설 신축 기공식.

●●
광양농협은 1990년 3월 4일 종합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3월 5일 준공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지점 개설

지점	개설일	소재지	비고
중부지소	1990. 02. 20.	광양읍 인동리 399-2	구 본점 청사
북부지소	1990. 10. 13.	광양읍 칠성리 896-11	
서부지소	1992. 11. 30.	광양읍 덕례리 1726-1	

나. 민주화와 자율권 향상

1961년 종합농협 발족 당시 제정된 농협법은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 사들이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 2월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임시조치법)에 따라 농협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은 임명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1988년에야 농협법 개정 및 임시조치법 폐지에 따라 조합 임원의 선출방식이 선거제로 변경되었으며, 임기도 종전 감사 2년, 감사를 제외한 임원 3년에서 각각 1년씩 연장되었다. 이와 함께 조합 이사의 수는 종전 6인 이상 8인 이내에서 6인 이상 10인 이내로 상한선을 확대하되 이사 정수를 조합별로 정하도록 하였다.

광양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 또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 ▲정부위촉사업 수행방식

개선(정부의 하향식 결정체계 개선) ▲정관변경 인가제도 완화(정관례에 따른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인가 불필요) 등 그동안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해온 조항들도 크게 수정 또는 완화됨으로써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농협법 개정에 따른 광양농협의 최초 임원 선출은 감사 2인(김상호·이무원)으로 이들은 1989년 4월 1일 취임하였다. 1990년 1월 20일에는 이사 4인(정태기·서백수·김윤근·장세균)이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조합장은 초창기부터 이사로 활동하며 광양농협 발전에 기여하였던 최규관 조합원이 선출되어 1990년 3월 21일 제9대 조합장에 취임함으로써 민주화 시기의 광양농협 임원진이 완성되었다.

민주화 시기 광양농협 첫 임원진 구성

구분	취임일	성명	비고
조합장	1990. 03. 21.	최규관	제9대
이사	1990. 01. 20.	김희중 김영배 정태기 서백수 김윤근 장세균	신임 4인
감사	1989. 04. 01.	김상호 이무원	신임 2인

※ 청색 표기는 신임 임원.



● 농협의 민주화는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1990년 직접투표에 의해 한호선 후보(왼쪽 사람)를 초대 민선 중앙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완성되었다.

한편 농림수산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중앙회장 선출방법도 농협법 개정에 따라 회원조합장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직선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접선거는 전국의 조합장 선거가 완료된 후인 1990년 4월 18일 실시되어 한호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 같은 날 실시된 중앙회 상임감사 선거에서는 충남 둔포농협 조합장인 노인도 후보가 당선되었다.

광양농협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최규관 조합장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상임감사 직접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다. 복지농협 선정

광양농협은 종합청사 신축 이전으로 예금 추진이 활발해지고 연쇄점이 확장되어 생활물자 공급이 늘어나는 등 경영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여기에 1988년 비농업인 개인에게 농협의 준조합원 가입이 허용되면서 광양농협도 1989년부터 준조합원 모집에 나섰는데, 그 숫자가 불과 3년 만인 1992년 무려 5046명에 이르렀다. 준조합원은 광양농협의 고객이자 이용자로서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광양농협의 성장은 1990년도 말 사업 평가 결과 복지조합에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당시 복지조합은 중앙회가 1989~1993년을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선진농협 발전 5개년 계획'의 최고 단계였다. 광양농협은 1979년 말 당시 최고 단계였던 봉사조합에 선정된 데 이어 10년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복지조합에 선정됨으로써 조합원과 고객에게 봉사하고 앞서가는 농협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광양농협은 1991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1년 말을 기준으로 출자금이 처음 2억 원을 넘은 2억 200만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1억 6600만 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1991년 말 339억 5300만 원에 이어 1993년 말에는 441억 7600만 원으로 꺾춤 뛰어 복지조합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경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총자산	출자금	순이익	조합원	준조합원	비고
1982	4,621	149	33	2,638	-	봉사조합
1983	4,507	165	33	2,715	-	"
1984	5,237	161	31	2,726	-	"
1985	6,404	161	36	2,732	-	"
1986	8,529	162	42	2,752	-	"
1987	11,772	166	49	2,806	-	"
1988	14,807	170	67	2,818	-	"
1989	19,081	182	83	2,788	436	"
1990	25,828	191	131	2,955	1,174	복지조합
1991	33,953	202	166	3,005	2,622	"
1992	39,530	212	123	3,318	5,046	"
1993	44,176	227	96	3,357	6,844	"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시설원에 발전 기여 자부심 느낍니다”

회고담◎ 시설원예농업과 오이 수출



박정모 전 감사·총작목반장 (1947년생)

1972년 군 복무를 마치고 옥룡면 재동 마을에서 200평으로 시설오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옥룡에서 광양역까지 오이를 실어내려면 마차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은 물론이고 기차 시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가을 광양읍 목성리로 이사하고 하우스 규모도 400평으로 늘

렸지요. 다른 사람들이 오이를 자전거에 소화물로 실어낼 때 나는 경운기로 운반하는 등 광양에서 오이에 관한 한 선구자가 되었어요.

시설오이에 매진한 결과 1992년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농어민 상’이라는 것을 받았고, 1994년 6월에는 농협의 ‘이달의 새농민’에 선정되어 1995년에 일본 연수를 갔습니다. 이때 오이농가를 방문해 적심재배와 규격출하를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한국의 오이를 수출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광양에 돌아와 농촌 지도소 정용재 지도사한테 수출 문제를 의논했더니 많은 힘을 써주더군요. 광양농협 이덕재 조합장께도 도움을 요청한바 적극적으로 나서줘 1995년에 곧바로 익신·목성작목반 소속 오이농가 17명이 수출오이 재배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내가 목성작목반장을 맡아 3억 원(보

조 1억 8천만 원, 자부담 1억 2천만 원) 규모의 수출전문단지사업을 목성작목반으로 유치해 선별장을 짓고 농협 마크를 붙였지요. 점차 참여 농가가 증가하고, 광양농협은 일본에 연수를 보내주고, 200만 불 수출탑도 받고, 수출오이 재배가 더욱 활성화되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내에서의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수출이 어려워진 데다 구례 지역의 오이가 추격해 오자 광양의 오이농사는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시작되었던 수출오이 사업도 결국 20년 만인 2015년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완숙토마토로 전환했지요. 현재 전체 경작 규모는 벼농사 1만 6천 평(자경 8천 평, 임차 8천 평), 시설하우스 완숙토마토 600평, 매실 830평입니다. 광양은 요즘 원예농가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시설원예농업 발전 과정에서 내가 1986년 바나나 농사와 함께 처음으로 철재하우스를 도입하고, 하우스 가온도 석유에서 연탄을 거쳐 온풍기 방식을 확산시키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담 일자 : 2023년 8월 10일 ·정리 : 김홍선 작가

제4절
가지를 뽀다

光陽

광양농협의 힘찬 발전

1973-2023

광양농협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농산물 판매와 유통 개혁에 힘썼으며, 오이 수출과 작목반 활성화, 새농민상 수상자 배출, 주부대학 운영, IMF 체제 극복 등으로 자부심을 높였다.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준공, 봉강·옥룡농협 합병은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제공하였다.

광양농협 발전기의 조합장

제10~13대 이덕재 조합장 | 취임일 1994. 03. 21. 퇴임일 2010. 03. 21.

제4절 • 가지를 뽀다

농산물 판매 확대와 유통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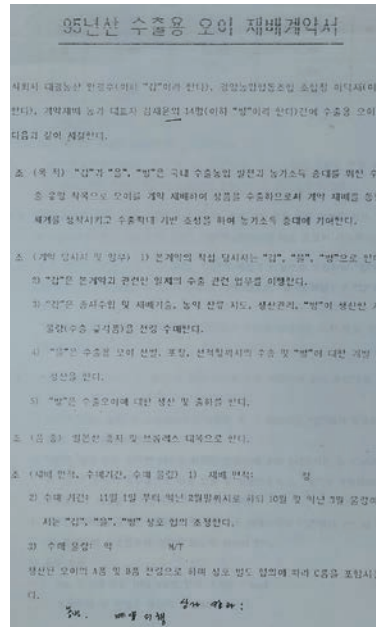
가. 오이 수출 도전과 성과

광양농협은 1994년 제10대 이덕재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농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변모하며 힘차게 발전해 나갔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오이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출 도전이었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는 자신감을, 우리 농산물에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이 수출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및 세계농업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광양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1995년 1월 120여 오이 재배 농가(작목반)에 상호금융자금으로 6억 원을 연 5% 저리로 지원하면서 기존의 오이 재배 기반을 강화하였고, 7월 21일에는 익신오이작목반과 목성오이작목반 오이농가 15명을 대상으로 1만 4000평 규모의 수출오이 관련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오이 수출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2월 말까지 204톤(3억 2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광양농협의 수출농업은 이후 농가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1996년 도월리 215-2번지 도월창고 부지에 50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해 오이 출하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다. 또 1998년 12



월에는 이덕재 조합장과 김옥현 시장 등 광양농협·광양시 인사들이 함께 후쿠오카, 히로시마, 야마구치 등지의 야채공판장 및 백화점 등 일본 현지의 유통시설을 둘러보고 위탁판매 방식에서 일본 공판장 직접 상장경매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는 방울토마토를 함께 수출하여 품목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오이를 중심으로 한 광양농협의 수

- 1995년 수출회사-광양농협-오이농가 사이에 체결된 수출용 오이재배 계약서의 일부.
- 오이를 선별하는 모습.

출농업은 1999년 농산물 수출 100만불과 2001년 농산물 수출 200만불 탑 수상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2000년대 광양농협 경제사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오이 수출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물량	204	550	432	476	819	1,296	1,678	648	535	257	440
금액	326	830	649	915	1,380	2,232	2,472	964	1,020	495	723

※ 1999~2000년은 토마토 포함.

나. 작목반 활성화와 새농민상 수상자 배출

광양농협은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목반 지원에 주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 오이작목반에 팩스 8대를 지원, 농산물 정보 수시 점검 및 확인으로 수취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이다. 오이 수출도 익신과 목성 등 작목반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계약을 추진해 진행하였다.

작목반 지원은 소득작목 다양화와 함께 추진하였다. 오이 외에 세풍지역 쌀작목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죽림과 사곡지역에는 부업축산 한우작목반을 조직

하였다. 특히 한우작목반 육성을 위해 1995년 중앙회로부터 3억 800만 원을 5%의 저리 장기자금으로 지원받아 세풍지구 세풍작목반, 임기작목반, 삼성작목반 등 축산농가에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월평깻잎작목반을 육성하여 깻잎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켰다.

작목반 활성화 및 소득작목 다양화를 위한 광양농협의 노력은 수출오이 작목반인 익신작목반이 1996년 협동조직 최고상인 '1996 협동조직' 대상을 수상하고, 1999년에는 월평깻잎작목반이 '이달(12월)의 작목반' 조직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2001년 10월에는 도청오이작목반이, 2002년 7월에는 서석오이작목반이 각각 '이달의 작목반'에 선정되었다.

광양농협의 작목반 활성화와 소득작목 다양화를 위한 지원은 새농민상 수상자를 잇달아 배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먼저 광양을 박정모·백점순 부부가 1994년 6월의 새농민으로 선정된 이후 이덕재 조합장 재임 시기에 6부부가 새농민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박정모·백점순 부부는 작목반을 이끌며 광양오이의 일본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새농민상 본상의 한 분야인 협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선별 및 포장한 깻잎을 출하하기 위해 차에 싣는 모습.

이덕재 조합장 재임기의 새농민상 수상 부부

지역	수상자	수상 시기 (본상)	주소	주 작목	농장 명
광양	박정모 백점순	1994. 06.(1997 협동)	광양읍 읍성길	토마토	대아농장
봉강	박희봉 오복례	1996. 06.	봉강면 부저리	화훼(덴파레)	일봉난원
옥룡	홍우원 강봉악	1996. 11.	옥룡면 죽천리	과수 축산(한우)	백산농장
옥룡	장임기 김선심	2001. 11.	옥룡면 산본길	애호박	백운농장
광양	백기인 전순희	2003. 05.	광양읍 도월리	갯잎	백운농장
광양	김영식 박향란	2008. 09.	광양읍 인서리	애호박	영식농장

다. 쌀 품질향상 노력과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광양은 자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지보다 임야 면적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에 세풍리 일대의 간척사업으로 500여 ha에 이르는 광활한 농경지가 조성됨으로써 1960년대부터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고장으로 변모하였다.

광양농협은 지역의 쌀산업 발전을 위해 세풍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을 농산물 판매장에 항시 비축해 지역 양질미 판매를 촉진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미

곡종합처리장(RPC)을 갖춘 농협들이 증가하자 1995년산 추곡의 경우 6683가마를 미곡종합처리장 보유 농협에 연계 판매하고 세풍간척지 출하분 4521가마는 세풍 2개 도정공장에서 자체도정하여 관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어 1996년산 추곡 2만 5700가마도 가마당 4만 9730원에 수매(총수매가 12억 7800만 원)하여 1만 1274가마는 보성농협에 출하하고, 잔량 1만 4426가마는 관내 도정공장을 이용해 가공 및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 쌀의 소비기반을 확고히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 미곡종합처리장 보유를 추진하였다.

광양농협은 먼저 1998년 중앙회와 광양시 도움으로 세풍창고를 개조하여 연 600톤 저장과 1000톤 건조가 가능한 정조(곡물) 건조장을 건립함으로써 많은 양의 산물벼를 수매 및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02년에는 광양시와 공동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처음으로 추진해 세풍간척지 42농가의 4만 8000평에 친환경자재 등 3400만 원을 지원하여 79톤을 생산하였고, 이를 전량 ‘하늘이 내린 광양쌀’ 브랜드의 10kg과 4kg 규격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늘이 내린 광양쌀’은 2004년 68농가가 참여하여 167톤을 생산했는데,



1998년 세풍창고를 개조해 만든 건조저장시설.



2007년 친환경 도정공장으로 준공된 미곡종합처리장 전경.

친환경 무농약법 도입으로 품질관리원의 무농약 안심쌀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광양농협의 쌀가공 및 판매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때는 2007년이다. 7월 5일 세풍리 1264 외 1필지 5411㎡에 친환경 도정공장인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에 착공하여 12월 11일 준공함으로써 광양쌀의 건조-저장-도정 일관체제를 갖춰 농가 실익을 크게 높였고, 자체 브랜드인 ‘선샤인 광양쌀’도 개발 및 출시하였다. 또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로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농산물유통개혁 대상 수상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양농협의 사업 전개는 자연스럽게 농산물과 자재 유통의 기반 조성 및 개혁으로 연결되었다. 광양농협은 특히 1995년부터 농산물을 출하하는 조합원들의 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출하 농산물의 순회수집과 영농자재의 주문배달이다.

농산물 순회수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광양농협이 차량을 이용해 농가 또는 영농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수거 및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오지 영농회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수매현장까지 농산물을 수송하였으므로,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1996년의 경우 순회수집 판매 실적이 백미, 오이, 감, 밤 등 10여 개 품목에 8503톤, 8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농업자재의 현장배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물량이 많고 중량이 무거운 비료의 경우 농번기에는 조합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무상 배달하였다. 농번기에는 농업자재와 함께 생활물자의 순회 이동판매를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도월리에 50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하여 당시 수출오이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업비로 자부담 1171만 원과 보조 2661만 원 등 총 3812만 원을 투입하였다.



차량이 영농현장을 방문해 밤 등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는 순회수집 모습.

도월리 농산물 집하장 건립 운영

사업 내용	투입 사업비		
	자부담	보조	계
농산물 간이 집하장	1171만 원	2661만 원	3832만 원

광양농협은 농산물 순회수집, 오이 생산 증가 및 수출 증대, 쌀 가공과 판매사업 호조 등의 추세에 맞춰 영농 및 유통을 지원함은 물론 경제사업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2일 경제사업 종합센터 설치와 함께 주유소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2004년 9월 1일에는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광양농협은 2000년도와 2008년도 연말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유통개혁 대상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로써 광양농협은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라는 위상을 탄탄히 하며 전국 농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덕재 조합장도 농산물 수출로 농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선 공로로 제 5회 농업인의 날인 2000년 1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제4절 • 가치를 본다

조합원과 고객의 편의 증진

가.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준공과 주유소 운영

영농편의시설 모아 자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

광양농협은 경제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중반에는 농번기 때마다 영농자재의 주문배달제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1990년대 우리 농업의 특징은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시설하우스도 일반화하였다. 이에 광양농협은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해 조합원의 농기계 수리를 집중 지원하였다.

우선 1995년 18회의 영농회 순회 수리 및 점검으로 132대를 수리했고, 작업도중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출장하여 172회에 걸쳐 190대를 수리하였다. 또 1996년에는 영농회 순회 100회 및 4230대 수리와 함께, 작업현장 출장 600회 및 920대 수리라는 실적으로 총 5150대의 농기계를 수리함으로써 영농 차질을 방지하였다.

한편 농기계 보급 확대 및 시설하우스 증가로 난방용 등 유류 수요가 증가하자 광양농협은 유류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난방용 유류 공급은 1994년 요일별 영농회 순회 공급을 실시하며 본격화했는데, 정량의 신속배달체계를 구축한 1996년에는 연 3천 가구에 2억 원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농기계수리센터와 유류판매소 등 시설이 협소하고 흩어져 있어 농업자재의 효율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광양농협은 1998년 농업 관련 자재를 조합원들이 한 장소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관련 총사업장 건립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다.

경제사업 종합센터 고정투자 내용

구분	대지	건물(주유소, 농기계센터, 장제사업)			비고
		위험물저장시설	경정비·점포시설	건물 계	
면적	838평	48평	199평	247평	-
금액	10억 원	7억 9천만 원(건물 일괄취득)			17억 9천만 원

전남 최초로 NH-POLE 주유소 전환

광양농협은 2003년 6월 2일 인서리 대로변에 먼저 S-oil 브랜드의 주유소를 개점하며 경제사업 종합센터의 문을 열었고, 2004년 9월 1일에는 830여 평의 부지에 농기계수리센터, 장제사업소, 비료·농약 판매장, 주유소 등 조합원 편



● 2004년 열린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개장식 모습.



2009년 NH폴주유소로 전환한 광양농협 주유소.

익시설을 한데 모은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이 한 번의 왕래로 면세유를 비롯한 모든 농업용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광양농협 주유소는 개점 2년 만인 2005년 6월 23일 S-oil이 전국 자사 브랜드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 판매량,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챔피언 주유소'에 등극했으며, 11월 30일에는 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모범주유소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광양농협은 나아가 2005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던 면세유 구입카드를 2008년 전면 도입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면세유 구입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제공했고, 2009년 8월 11일에는 전남에서 최초로 NH-POLE 주유소로 전환함으로써 농협 브랜드의 신뢰와 자부심을 높였다.

나. 영농자금 공급 확대와 정책보험 취급

친절봉사와 실력으로 금융경쟁 우위 확보

1990년대 들어 금융 부문의 전산화와 함께 다양한 상품 및 신기술이 도입되

었다. 1991년에는 회원농협에 현금자동지급기(CD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전화료에 이어 1993년에는 전기료 자동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어 1994년부터는 맵시창구 운동이 전개되었다.

광양농협은 금융 분야의 기술 발전과 사업 확대에 따라 조합원 및 고객들이 상호금융과 보험 등의 사업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즉 1995년부터는 공과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등 일반지료와 적금·공제료 등 각종 월부금 자동이체 약정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과 밀착한 은행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였고, 1996년 도입된 텔레뱅킹과 2000년을 전후해 확산된 인터넷뱅킹의 홍보 및 정착도 도모하였다.

광양농협이 상호금융 확대와 관련하여 중점 추진한 것 중 하나는 맵시창구 운동이었다. 맵시창구 운동은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던 시기에 농협 전 계통사무소에서 전개한 친절봉사운동이다. '맵시(MAPSI)창구'는 Mind reformation, Active behavior, Pro-teller, Service innovation, Image up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농협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농협 특유의 창구를 뜻했다. 우리말로는 '곱게 매만진 모양으로 짜임새 있게 잘



● 매일 아침 친절체조와 함께 고객만족을 다짐하는 맵시창구 운동은 광양농협의 친절봉사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다듬어진 모습'의 의미도 지녔다. 광양농협은 직원들이 매일 아침 8시 30분 맵시창구 발대식을 개최하여 친절체조를 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자세를 다짐하는 등 친절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지식 함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 결과 2005년 전국 1269개 농협 직원들이 참여해 겨룬 업무처리능력과 고객서비스 평가(OJT)에서 광양농협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양농협 직원들의 친절과 실력은 2007년 신용카드 신규추진 2천 건과 이용액 160억 원 돌파에 힘입은 카드추진 우수사무소 선정으로 증명되었으며, 2009년 총자산 3000억 원 및 자본금 300억 원 달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 시기에 광양농협의 자금 조달과 공급 능력도 크게 확대되었다. 잔액 기준으로 예수금은 1994년 말 379억 원에서 2010년 말 2620억 원으로, 대출금은 376억 원에서 1748억 원으로 각각 급증하였다. 또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자금의 비중이 같은 기간 19% 수준에서 5% 이하로 낮아짐으로써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자금의 대부분을 상호금융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정책보험 적극 추진으로 자연재해 극복

광양농협은 1990년대 이후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협동조합 보험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였다.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이 불의의 재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조합원 재해공제 가입 독려 및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 품목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자 농작물별 보험 가입을 안내하였다.

2003년의 경우 9월 12일을 전후해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해 감과 배 등의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4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광양농협 발전기의 상호금융과 공제사업(보험) 성장 (단위: 억 원)

연도	상호금융예수금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대출금 계		공제료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평잔	잔액	
1994	344	379	271	305	78	72	350	376	25
1995	425	528	328	354	79	68	406	421	33
1996	601	707	368	407	78	68	445	475	41
1997	767	824	429	489	80	74	510	561	49
1998	981	1,053	554	585	135	115	689	701	68
1999	1,091	1,095	605	680	138	133	743	813	83
2000	1,107	1,172	705	754	144	128	849	883	127
2001	1,213	1,266	755	783	143	144	898	927	121
2002	1,277	1,344	805	836	147	130	952	966	121
2003	1,396	1,470	865	945	133	121	998	1,066	110
2004	1,500	1,566	968	1,035	113	91	1,082	1,127	115
2005	1,663	1,774	1,011	1,082	91	85	1,103	1,167	174
2006	1,995	2,053	1,138	1,161	117	109	1,255	1,270	164
2007	2,098	2,136	1,194	1,321	106	100	1,299	1,421	223
2008	2,157	2,199	1,337	1,430	96	92	1,434	1,522	196
2009	2,308	2,358	1,416	1,520	87	89	1,503	1,609	221
2010	2,440	2,620	1,522	1,663	85	84	1,607	1,748	230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감·배 농가의 재해보상 내용 (단위: 호, 천 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상액(B)	비고(C=B-A)
	수해 농가	국고 보조	시 보조	자부담(A)	계		
광양	58	29,829	9,395	7,751	46,975	59,900	52,149
봉강	34	17,970	5,660	4,669	28,299	68,735	64,066
계	92	47,799	15,055	12,420	75,274	128,635	116,215

다. 지역 복지의 중심축 역할 수행

장제사업 실시와 결혼식장 운영

광양농협은 1990년대 들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영 성과를 조합원과 고객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 영농자재 운반 차량이 장례식에 쓰일 상여를 운반하고 있다.

수 있는 복지사업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제사업 수행과 예식장 운영이었다.

당시 농촌에서는 장례식을 가정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장례식장에서 치른다 하더라도 장의업체의 횡포 때문에 장의용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족은 물론이고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조합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1993년 하반기부터 장의용품 전 품목을 구비해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 사망시 상가에 신속하게 배달하는 등 장제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장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광양농협의 장제사업은 1994년 210건(1억 2400만 원), 1995년 186건(1억 2천만 원), 1996년 193건(1억 2200만 원) 등 매년 200명 안팎의 조합원과 고객이 이용함으로써 평균 60만~65만 원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또 1994년 1월부터는 3층에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했는데, 1995년 예식장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용객에게는 소정의 수수료 및 청소비 등 실비만 받음으로써 조합원 가족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광양농협 예식장은 1990년대에 매년 150건 안팎의 결혼식을 치를 만큼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결혼 적령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전문 예식장과의 경쟁도 심화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광양농협 예식장 이용 현황

(단위 : 건)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 현황	70	136	156	123	150	132	87	61	64

자녀 장학금과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의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은 자체장학금과 공제계약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장학금으로 구분해 지원했는데, 새농민대회나 정기총회 등의 행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제(보험)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996년 공제가입자 중 13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건강검진 지원도 매년 확대하였다. 1997~1998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차사업으로 각각 50명과 60명의 부녀자 건강진



● 조합원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행사.

단을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나주 동신대 한의학과와 협력하여 농촌지역 한방 무료진료(150명)를 실시하였다. 또 2003년에는 순천 금당병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조합원 108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였다.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자체장학금	5	4,000	5	4,000	8	4,000	8	4,000	12	6,000	6	3,000
공제장학금	12	2,150	5	4,000	11	2,350	10	2,900	6	3,000	6	3,000
계	17	6,150	10	8,000	19	6,350	18	6,900	18	9,000	12	6,000

법률구조·정보화교육 등 생활편의 증진

1990년대 이후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전문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소비자보호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1996년부터 조합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몰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침



광양농협은 1996년부터 농업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하였다.



2001년 열린 제1기 농업인 정보화 기초교육.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강연과 상담 등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한 것이다.

또 1998년 4월부터 토지대장, 호적등본·초본 등 20여 종의 행정민원서류를 농협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자 광양농협은 이 해에 312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대행하고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은 전액 광양농협이 부담하는 등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였다.

한편 2000년을 전후하여 PC 보급과 함께 사회 전반에 정보화의 열풍이 불고 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업무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광양농협은 2001년 7월 3~20일 광양북초등학교 전산실을 임대해 40명을 대상으로 제1기 농업인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영농회와 부녀회를 통해 모집한 희망자 63명에게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농업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2002년 11월 1일에는 광양농협 홈페이지(www.kynh.co.kr)를 개설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한편 금융고객 및 조합원들에게 방문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제4절 • 가치를 본다

하나로마트 신축과 농촌사랑 운동

가. 하나로마트 신축 개점

광양농협은 1970년대부터 연쇄점을 운영하여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생활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물류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연쇄점 역시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했다.

마침 농협중앙회는 1997년 기존 연쇄점으로 운영되던 회원농협의 생활물자판매점을 하나로마트로 개칭하며 도매유통 부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광양농협도 연쇄점을 하나로마트로 개편하고 1998년부터 예식사업과 연계해 혼수품을 판매하는 등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며 지역의 거점 슈퍼마켓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양농협 하나로마트는 지하에 위치해 매장 확장 및 고객 주차 등에 한계가 있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광양지역 입점까지 추진됨에 따라 2004년 대형 하나로마트 신축을 추진하였다.

광양농협 하나로마트는 2005년 7월 15일 신축 개점하고 17일 개점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판매의 전진기지이자 광양지역의 새로운 쇼핑 명소로 거듭났다. 부지 1400평, 연건평 730평, 주차장 600평, 물류창고 150평에 매장 면적만 350평 규모인 광양농협 하나로마트는 신축 이듬해인 2006년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0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해요소중



2005년 하나로마트 개점을 기념해 주부대학 풍물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점관리기준을 통과하여 해썬(HACC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하나로마트 개편 및 신축 이후 생활물자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31	33	27	28	30	28	26	24	69	115	126	139	150	162

※ 1997년 이하의 연쇄점을 하나로마트로 개편.
 ※ 2005년 7월 15일 지상 하나로마트 신축 개점.

나. 1사1촌 자매결연 및 농촌 활성화 도모

1사1촌 자매결연 추진과 다문화가정 지원

1980년대 후반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에는 농가부채 문제 등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도시민과 기업이 농업인과 힘

을 모아 우리 민족의 고향인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03년 12월 11일 ‘농촌사랑 운동 공동선포식’을 열고 전 농협의 역량을 결집해 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사랑 운동의 가장 큰 흐름은 도시 소비자로서 1개의 기업(단체)과 농촌 생산자로서 1개의 마을이 결연(1사1촌 자매결연)하여 서로 교류하는 형태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도시민은 농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은 농촌체험 제공 및 농산물 판매 등으로 활력을 도모하였다.

광양농협은 2005년 5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협회와 광양읍 도월리 도청마을과의 1사1촌 자매결연을 비롯해 여러 건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였다. 광양농협은 또한 어렵게 성사된 결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짐으로써 농촌과 도시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2005년 11월 16~1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도청마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자매결연마을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원한 것이 좋은 예이다.

● 2006년 농협교류센터 임직원들이 부암마을을 방문해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한편 광양농협은 농촌에 증가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자 이들이 농업 후계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였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전통음식과 예절 등 문화체험 및 교육, 농업기술교육, 친정 나들이(모국방문)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2009년에는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의 친정 나들이를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관내 20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부녀회장과 함께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 이해 교육 차원에서 노래 배우기, 전통염색 스카프 만들기, 광양스타일의 라인댄스 배우기, 전통 불고기 먹기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정보전달 확대를 위한 간행물 보급 지원

광양농협은 농업 관련 국내외 정세와 정보를 농업인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농업 전문 간행물을 보급하였다. 당초 농협중앙회의 부서였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며 전문성을 강화한 농민신문사가 발간하는 ‘농민신문’ ‘전원생활’ ‘디지털농업’ ‘월간축산’ ‘어린이동산’ 등의 간행물이 그 대상이었다.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이 이들 간행물을 통해 전문적이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쉽게 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업 관련 동향과 법안 등에 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도록 간행물 구독료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허순구 상무는 직접 농민신문의 객원기자로 참여하여 광양농협의 사업은 물론 쌀, 매실, 고로쇠 등 광양의 농산물을 홍보하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각 영농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원한 농민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는 2005년도의 경우 1232농가, 6358만 원에 이르렀다.

다. 주부대학을 협력조직으로 육성

광양농협은 1990년 제1기 주부대학을 운영한 이래 매년 주부대학을 개설해 100명 안팎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광양농협은 특히 1996년 주부대학을 운영할 때 수강 대상자를 광양읍뿐만 아니라 주부대학을 자체적으로 개설해 운영하기 어려운 봉강농협·옥룡농협 관내 여성으로 확대하여 연합으로 개설함으

로써 계통농협 간 하나 되기를 추진하였다. 또 1997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압농협과 연합하여 주부대학생을 모집하였고, 2000년 제9기 때는 진월농협에까지 개방하여 주부대학생을 모집하였다. 광양농협은 이로써 보다 많은 여성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광양농협의 주부대학을 수료한 여성들은 동창회를 조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으로서 광양농협의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였다. 따라서 주부대학 동창회는 1990년대 이후 광양농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여성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광양농협 주부대학 동창회는 도시 소비자와의 중간고리로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과 농촌사랑 운동, 봉사 및 취미활동 등에 참여하며 자생력을 길렀다. 주부대학 동창회는 설과 추석 명절이면 귀향객에 대한 무료 찾집 운영으로 훈훈한 고향의 정을 전하며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였고, 유희농지를 이용한 농사체험장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다.



1998년 광양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출범하였다.



2009년 열린 제1기 광양농협 주부대학원 수료식.

주부대학 동창회는 특히 영농과 생활 폐자재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자체적으로 또는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농번기 일손 돕기에도 참여하였다. 또 농악팀을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하거나, 부녀회장 등과 함께 농촌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연말이면 불우이웃과 경로당 등에 김장김치 및 쌀 전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농촌사랑 실천 자원봉사자(간병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는데, 33명이 수료하여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자원봉사요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제4절 • 가치를 본다

경영위기 극복과 제도 개선

가. IMF 체제하의 농업·농협 위기 극복

영농비·금리 급등으로 농업부문 총체적 위기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면서 전대미문의 외환위기에 휩싸였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로 달러 고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12월 3일 자금지원과 이행 프로그램에 대해 IMF와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로 들어섰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업·농촌부문은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자 비료·농약·사료·유류 등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농업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때문에 도시가구의 소득이 줄면서 시설채소·축산물 등의 소비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여기에 IMF 관리체제의 충격은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금리의 급등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농림업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농업 노임이 하락하는 등 농업노동력 구조가 달라졌다.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부문 등 자본집약적 농업생산이 위축될 정도로 농업생산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농업과 농업인의 위기는 곧 농협의 위기이기도 하였다.

안전한 은행 이미지 제고, 수출농업·농가지원 확대

광양농협은 우선 1998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되자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자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더구나 1998년 6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을 퇴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은 금융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게 되었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20%대로 치솟았지만 광양농협은 15% 이하로 운용하였다. 광양농협은 또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호금융대출금 중 1998년 하반기 기일 도래분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면 상환기일을 6개월 연장하거나 재대출(1년간)을 해 주었고, 시설원예농가의 만기도래 정책자금도 상환을 연기하였다.

광양농협이 적극적인 예금 유치와 농업인에 대한 여신 지원 확대 및 연체관리 등 금융 부문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예수금이 1998년 8월 31일 1천억 원을 돌파하였고 연체율도 1998년 말 4.2%에서 1999년 말 3.7%로 낮아지는 등 ‘안전한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광양농협은 생산 부문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절약형 농업을 적극 보급하고, 유통 부문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IMF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수출농업을 강화한 결과 대일본 오이 수출 등으로 1999년 농산물 수출 100만 불과 2001년 200만 불 탑을 각각 수상하는 기업을 토했다.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수출농업으로 외화획득에 기여한 것이다. 광양농협은 수도작 농가에도 영농자재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0년 경우 농약(제초제)과 맥류 계약재배 농가 300평당 1포 기준 비료(복비) 등 총 2055농가에 4900만 원을 지원하며 IMF 관리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IMF 충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설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 광양농협은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오이 수출로 외화획득에 기여하였다.

2000년 기준 수도작 농가 지원

구분	농약(제조제)			비료(복비)		
	농가	공급량	금액	농가	공급량	금액
지원현황	1516호	1만 2926봉	2600만 원	539호	3399포	2300만 원

준조합원 증가로 사업기반 강화

농협에 준조합원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때는 1976년이다. 당시 준조합원은 가입 자격이 조합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단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1988년 12월 23일부터 비농업인 개인에게도 준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였다.

광양농협의 준조합원은 1989년 436명에 불과했으나 1992년 5천 명을 돌파했고 1995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광양농협은 IMF 구제금융 체제가 시작되자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기반 확대 및 강화에 나섰다. 지역 주민이기도 한 준조합원은 농협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농협운동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양농협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준조합원은 IMF 관리체제가 가장 냉혹했던 1998년 한 해에만 3천 명 넘게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총 2만 명을 넘어섰다. 대규모의 준조합원으로 광양농협은 새로운 사업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금융서비스와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중심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IMF 관리체제 전후 준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인원	10,405	12,037	13,429	16,507	18,012	19,340	20,300

나. 제도 개선과 경영기반 안정

체질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제도 개선

광양농협은 1998년 1월 1일을 기해 선도복지농협의 지위에 올랐다.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 1997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는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량 농협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 이후 시작된 금융 구조개선 등 새로운 경제 질서는 광양농협에 더욱 강한 체질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먼저 직제를 개편하여 1998년 6월 30일자로 부장제도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부장 직명을 과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3급 부장을 과장대리로, 3급 직원을 3급 갑과 3급 을로 구분하되 갑은 대리대우, 을은 계장으로 변경하였다. 또 4급 서기보는 주임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부터는 전국 농협 차원의 '3·3·3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여성조합원 가입비율 30% 높이기, 여성대의원 30% 선출, 여성임원 30% 선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가 심화함에 따라 여성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협사업과 경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다. 광양농협도 여성조합원의 농협운영 참여를 권장했는데, 1999년 전체 조합원 3752명 중 여성조합원이 787명으로 20.97%를 차지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가 점차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농협·축협·인삼협의 중앙회 통합에 따른 농협법 개정으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외이사제를 신설하며,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상임이사제를 2005년 최초 도입하였



● 여성의 지위 향상과 농협운영 참여는 광양농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1999년 생활개선반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 모습.

으며, 같은 해 7월 1일 전무 출신인 김봉안 상임이사가 취임하였다.

총자산 및 출자금 확대

광양농협은 이덕재 조합장 재임 시기에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자산과 출자금도 확대되었다. 총자산의 경우 1994년 521억 원에서 2009년 313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출자금은 같은 기간 2억 5900만 원에서 77억 64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광양농협은 특히 IMF 관리체제가 종결되고 1998년 봉강농협과 2006년 옥룡농협의 합병을 거쳐 경영 안정을 확고히 하면서 교육지원 부문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사업량 확대라는 선순환을 불러왔다. 사업량 확대는 또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 광양농협의 경영이 더욱 탄탄해졌다. 광양농협의 순이익 규모는 1994년 1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03년 15억 원, 2007년 55억 원을 기록하였다.

광양농협 성장기의 경영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총자산	521	909	1,416	1,661	1,742	2,014	2,637	2,868	3,303
출자금	2.6	4.4	10.3	19.6	27.7	33.7	60.3	72.5	101.3
순이익	1.1	3.0	5.3	5.5	9.6	15.2	22.4	34.8	57.4

※ 1998년 봉강농협 합병, 2006년 옥룡농협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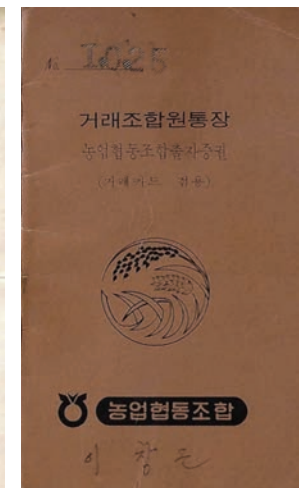
제4절 • 가치를 본다

봉강·옥룡농협 합병과 지점 증설

가. 봉강농협 합병 및 지점 전환

봉강농협 약사(略史)와 현황

봉강농협은 광양시 서쪽에 위치한 봉강면을 구역으로 1970년 8월 18일 면 관내 이동조합의 합병을 완료하며 봉강리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봉당리 413번지를 소재지로 한 봉강리농업협동조합은 1973년 3월 5일 법률 제2577호에 의거 봉강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6년 3월 10일에는 사무소를 봉당리 465-3으로 이전하였다. 또 1989년 4월 1일 명칭을 봉강



● 봉강리조합 시절인 1972년도 이종수 조합원의 출자증권. [이창근 제공]
 ●● 봉강농협 시절인 1977년도에 발급되고 1982년 이창근 조합원이 상속받은 거래조합원통장(출자증권) 표지. [이창근 제공]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봉강농협은 상호금융을 취급하고 연쇄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판매·구매 등 경제 사업을 영위하며 봉강면 일원 농업인들의 자조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봉강면의 자연환경이 백운산을 비롯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농경지도 협소해 봉강농협은 안정적 사업량 확보와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봉강농협의 사업량은 합병 직전 연도인 1997년 말 기준 ▲판매사업 43억 원 ▲구매사업 14억 원 ▲생활물자 2억 7800만 원 ▲예수금(잔액) 102억 원 ▲대출금(평균) 100억 원 ▲공제료 9억 4500만 원 수준이었다. 또 경영 현황도 ▲총자산 179억 원 ▲출자금 1억 4천만 원 ▲순이익 4천만 원으로서 영세한 규모였다.

더구나 봉강농협은 1997년 말 조합원이 754명에 불과했고 준조합원도 948명으로 성장잠재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봉강농협은 지역농협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최하위 단계인 성장조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인근의 우량 조합이며 복지조합인 광양농협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봉강농협 역대 조합장으로는 초대 김덕준 조합장으로부터 모두 6명이 재임했는데, 이수균 조합장은 4대와 6대로 2회 재임하였고, 유명대 조합장은 7~8대를 연임하며 광양농협과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봉강농협 역대 조합장 재임 명세

구분	성명	취임일	퇴임일
제1대	김덕준	1972. 05. 08.	1974. 08. 19.
제2대	채정규	1974. 08. 20.	1977. 08. 06.
제3대	주경요	1977. 08. 11.	1980. 08. 09.
제4대	이수균	1980. 08. 10.	1984. 04. 28.
제5대	박병순	1984. 04. 29.	1987. 04. 29.
제6대	이수균	1987. 04. 30.	1990. 02. 23.
제7~8대	유명대	1990. 02. 24.	1998. 03. 31.

- 왼쪽부터
- 제1대 김덕준 조합장
- 제2대 채정규 조합장
- 제3대 주경요 조합장
- 제4, 6대 이수균 조합장
- 제5대 박병순 조합장
- 제7, 8대 유명대 조합장



봉강농협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판매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	창고·운송	예수금(잔액)	대출금(평균)	공제
1978	38	99	28	7	108	210	123
1979	79	149	35	13	131	461	146
1980	196	154	35	15	188	562	207
1981	337	214	54	17	315	675	223
1982	392	317	45	26	391	879	269
1983	352	255	135	29	381	1,034	291
1984	362	249	124	27	383	1,166	221
1985	609	108	134	25	566	1,370	503
1986	687	130	89	28	706	1,541	849
1987	1,442	146	96	26	1,035	2,013	1,081
1988	1,247	171	102	24	1,613	2,403	1,360
1989	1,351	232	91	33	2,273	2,809	1,888
1990	1,349	270	184	31	-	-	-
1991	1,475	481	222	38	3,873	4,950	293
1992	1,743	706	277	54	4,468	5,975	332
1993	1,852	854	252	54	5,334	6,886	472
1994	2,542	901	268	56	5,966	7,959	565
1995	3,036	1,107	269	66	6,926	9,344	718
1996	3,094	1,222	306	52	8,725	9,765	721
1997	4,268	1,386	278	55	10,188	9,963	945

※ 구매사업의 1978~1984년 실적은 비료를 포함함.

※ 대출금은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의 합계임.

※ 공제의 1978~1989년 실적은 계약고, 1991~1997년 실적은 공제료임.

※ 출처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1990년도의 예수금·대출금·공제 실적은 낙장(落張)으로 인해 확인 불가.

봉강농협 연도별 경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총자산	출자금	순이익	조합원	준조합원	발전 단계
1976	-	30	2	623	-	-
1977	-	36	2	690	-	-
1978	468	32	3	810	-	-
1979	722	43	4	821	-	-
1980	844	57	5	873	-	-
1981	1,045	68	6	868	-	-
1982	1,342	69	8	863	-	-
1983	1,489	72	11	863	-	-
1984	1,654	75	7	857	-	-
1985	2,028	78	7	847	-	성장조합

연도	총자산	출자금	순이익	조합원	준조합원	발전 단계
1986	2,234	82	4	817	-	성장조합
1987	2,988	80	16	819	-	"
1988	3,654	80	16	818	-	"
1989	4,433	81	16	755	85	"
1990	5,656	80	18	753	85	"
1991	7,221	81	19	750	210	"
1992	8,390	82	26	756	408	"
1993	9,880	84	22	729	558	"
1994	11,783	86	31	752	643	"
1995	13,980	102	34	759	743	"
1996	16,083	127	32	752	856	"
1997	17,910	138	40	754	948	"

※ 출처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광양농협으로의 합병과 봉강지점 전환

독자적인 사업 수행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한 봉강농협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영대 조합장이 광양농협과의 합병을 타진하였다. 마침 광양농협은 전임 최규관 조합장이 1992년 일본을 방문해 오기(小城)·오야마(大山)·아시가나(足柄)농협 등을 둘러보고 조합원들에게 대규모 합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던 데다 당시 혁신적 리더였던 이덕재 조합장도 합병에 적극적이었다.

광양농협이 봉강농협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997년 11월 5일 광양농협과 봉강농협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두 농협 모두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봉강농협 관내 조합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광양농협도 더 큰 농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양농협·봉강농협 합병 찬반 투표

(단위 : 명, %)

구분	투표 대상			개표 결과	
	총조합원	투표조합원	투표율	찬성표	찬성률
광양농협	3,127	2,801	89.6	2,579	92.1
봉강농협	733	678	92.5	648	95.6
계	3,860	3,479	90.1	3,227	92.8



1986년 봉강단위농협 청사 모습.

●● 봉강단위농협 시절의 새농민대회.

합병에 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오자 1998년 1월 두 농협은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봉강농협은 4월 1일부터 광양농협의 봉강지점으로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광양농협은 봉강농협과의 합병이 마무리되자 1998년 6월 16~18일 임원 3명, 대의원 9명, 영농회장 10명, 부녀회장 10명, 주부대학 임원 11명 등을 전북 전주에 있는 농협지도자교육원에 입소시켜 사업 확대 및 농협과 조합원 간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합병활성화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또 2000년 11월 17에는 봉강농협과 합병 후 처음으로 2500여 전 조합원이 실내체육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축제이자 풍년농사 축제인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1997년 기준 봉강농협의 내부조직과 편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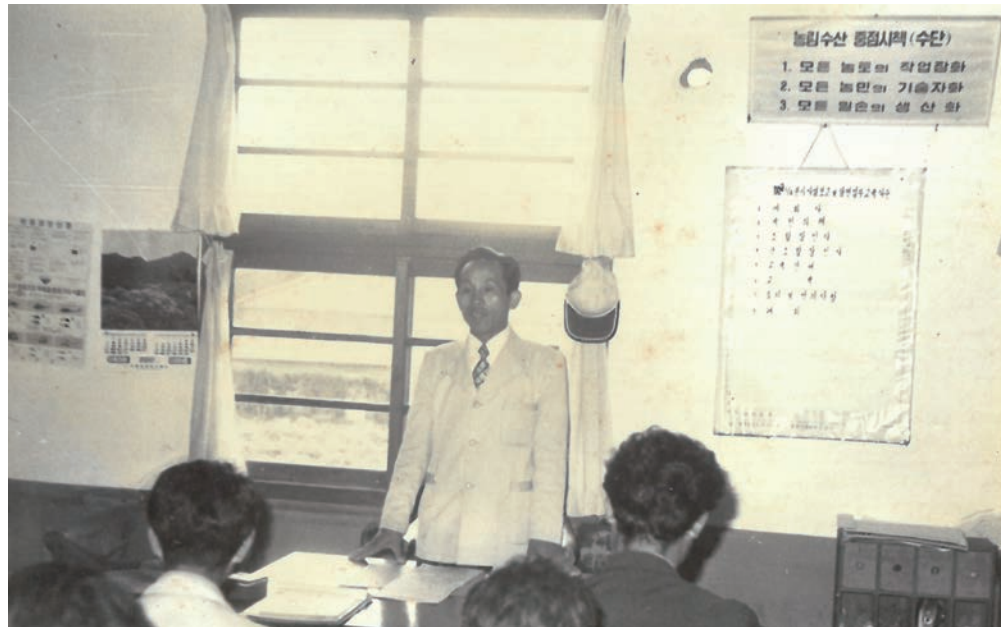
(단위 : 개)

내부조직			편의시설						
영농회	부녀회	작목반	연쇄점	간이 집하장	유류 판매소	가스 판매소	독서실	양곡창고	기타창고
18	18	11	1	1	1	1	1	2	7

나. 옥룡농협 합병 및 지점 전환

옥룡농협 역사(略史)와 현황

옥룡농협은 옥룡면을 구역으로 1969년 12월 17일 면 관내 이동조합의 합병



장지현 조합장이 1978년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교육을 하고 있다. [곽성열 제공]



옥룡농협이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소한 농기구서비스센터. [곽성열 제공]

을 완료하며 옥룡리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옥룡면 지역의 이동조합 합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법인 성립 일자는 1970년 5월 19일로 등재되어 있다.

운평리 271-2를 소재지로 한 옥룡리농업협동조합은 1973년 3월 5일 법률 제 2577호에 의거 옥룡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9년 4월 1 일에는 명칭을 옥룡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옥룡농협은 상호금융·공제·하나로마트 등의 주력 업무와 판매·구매 등 경제사

업을 영위하며 옥룡면 일원 농업인들의 자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91년에는 68명으로 1800여 마리 규모의 한우작목회를 결성하고 한우 전문 판매점을 개설해 한우의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지역 전통 농경문화로 농민들이 기계화가 이뤄지기 전 모내기를 끝낸 뒤 다음 해 농사에 대비해 씨레를 깨끗이 씻어 보관하던 '씨레씻이'를 농협 차원에서 복원 및 계승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옥룡면은 봉강면과 마찬가지로 백운산 등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농경 지가 협소하며, 생활과 경제의 중심도 인접한 광양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안정적인 사업량 확보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옥룡농협의 사업량은 광양농협과의 합병 직전 연도인 2005년 말 기준 ▲판매 사업 25억 원 ▲구매사업 20억 원 ▲생활물자 3억 5100만 원 ▲예수금(잔액) 219억 원 ▲대출금(평잔) 177억 원 ▲공제로 22억 원 수준이었다. 또 경영 현황도 ▲총자산 316억 원 ▲출자금 9억 9700만 원 ▲순이익 1억 57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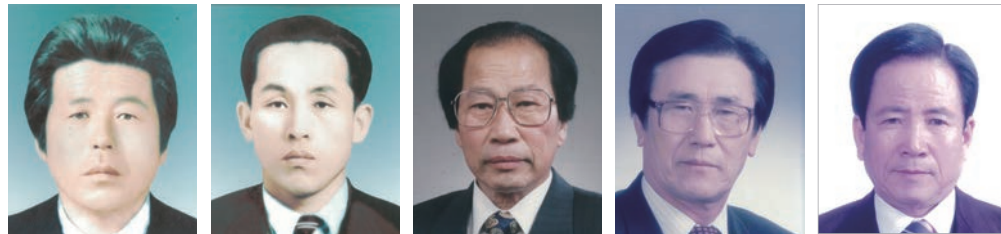
또한 옥룡농협의 조합원은 2005년 말 1081명에 불과했고 준조합원도 1614명으로 정체 상태에 있어 사업 확장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옥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 용자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 [곽성열 제공]

옥룡농협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곽성열 제공]



● 왼쪽부터
제1, 2대 허만수 조합장
제3, 4, 5대 장지현 조합장
제6, 7, 8대 정양기 조합장
제9, 10대 서채수 조합장
제11대 나중윤 조합장



룡농협은 지역농협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1985~1991년 가장 낮은 단계인 성장조합에 머물렀고, 1992년 이후에는 봉사조합에 올랐지만 최상위 단계인 복지조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옥룡농협은 결국 봉강농협처럼 광양농협과의 합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옥룡농협 역대 조합장으로는 총 11대에 걸쳐 5명이 재임하였다. 이 가운데 광양농협과의 합병을 진행한 제11대 나중윤 조합장을 제외한 4명은 최소 2선 이상의 다선을 하였다.

옥룡농협 역대 조합장 재임 명세

구분	성명	취임일	퇴임일
제1~2대	허만수	1969. 08. 20.	1974. 10. 28.
제3~5대 (직무대리)	장지현 (서한두)	1974. 10. 29. (1980. 10. 30.)	1984. 04. 26. (1981. 04. 26.)
제6~8대	정양기	1984. 04. 27.	1994. 02. 24.
제9~10대	서채수	1994. 02. 25.	2002. 02. 24.
제11대	나중윤	2002. 02. 25.	2006. 04. 21.

옥룡농협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판매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	창고·운송	예수금(잔액)	대출금(평잔)	공제
1978	158	193	30	15	213	251	234
1979	423	269	43	19	261	553	333
1980	774	332	61	19	387	759	431
1981	705	381	67	24	507	930	161
1982	752	479	65	28	687	1,039	560
1983	788	438	155	30	617	1,182	397
1984	1,014	461	205	31	655	1,395	635

연도	판매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	창고·운송	예수금(잔액)	대출금(평잔)	공제
1985	1,067	164	322	37	845	1,684	858
1986	1,151	192	81	35	1,133	1,749	1,514
1987	1,514	193	103	31	1,807	2,269	1,611
1988	1,830	195	131	38	2,228	3,075	2,830
1989	1,640	194	190	38	2,872	4,042	4,654
1990	1,635	330	284	41	-	-	-
1991	1,900	816	361	66	4,831	6,473	473
1992	2,375	1,344	377	83	5,857	7,805	611
1993	2,037	1,503	356	85	6,985	9,068	746
1994	2,891	1,748	408	79	8,242	10,771	975
1995	3,548	1,911	413	65	10,235	12,727	1,160
1996	3,543	2,374	456	73	12,562	13,523	1,428
1997	4,743	2,777	448	87	13,491	14,613	1,580
1998	3,862	2,524	483	99	14,254	14,891	1,626
1999	3,854	2,096	470	99	15,456	14,131	1,535
2000	3,645	2,045	444	69	17,728	15,578	2,407
2001	3,457	1,957	400	56	18,932	15,296	2,052
2002	2,555	1,878	455	144	11,092	39,296	2,488
2003	2,842	1,612	422	100	22,786	16,583	2,745
2004	2,916	1,766	435	68	22,109	17,837	1,645
2005	2,453	1,961	351	80	21,862	17,720	2,226

※ 구매사업의 1978~1984년 실적은 비료를 포함함.

※ 대출금은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의 합계임.

※ 공제의 1978~1990년 실적은 계약고, 1991~2005년 실적은 공제로임.

※ 출처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 1990년도의 예수금·대출금·공제 실적은 낙장(落張)으로 인해 확인 불가.

옥룡농협 연도별 경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	총자산	출자금	순이익	조합원	준조합원	발전 단계
1976	-	-	-	1,020	-	-
1977	-	-	4	1,131	-	-
1978	730	45	5	1,069	-	-
1979	1,042	57	8	1,150	-	-
1980	1,349	74	13	1,153	-	-

연도	총자산	출자금	순이익	조합원	준조합원	발전 단계
1981	1,536	81	15	1,162	-	-
1982	1,752	88	14	1,167	-	-
1983	1,717	92	5	1,158	-	-
1984	2,086	96	10	1,140	-	-
1985	2,399	100	21	1,127	-	성장조합
1986	2,766	100	15	1,101	-	"
1987	4,077	102	27	1,116	-	"
1988	5,019	102	25	1,111	-	"
1989	5,991	102	28	1,096	72	"
1990	7,628	102	28	1,096	85	"
1991	9,242	101	31	1,079	118	"
1992	11,088	107	47	1,098	161	봉사조합
1993	13,474	115	31	1,111	312	"
1994	15,742	129	34	1,126	448	"
1995	18,277	141	38	1,133	650	"
1996	21,569	192	53	1,129	835	"
1997	23,326	236	61	1,132	989	"
1998	24,196	279	71	1,136	1,236	"
1999	25,502	389	83	1,119	1,261	"
2000	27,419	533	131	1,110	1,353	"
2001	27,920	669	157	1,113	1,458	-
2002	28,421	846	169	1,124	1,513	-
2003	31,446	888	262	1,123	1,544	-
2004	31,261	937	116	1,110	1,593	-
2005	31,616	997	157	1,081	1,614	-

※ 출처 : 농협중앙회 '조합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광양농협으로의 합병과 옥룡지점 전환

옥룡농협은 산으로 둘러 막힌 자연환경과 광양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경제권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조합원에게 지속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존속을 모색해야 했다.

다행히 옥룡농협에서는 봉강농협의 전례를 참고할 수 있었다. 봉강농협이 경영이 안정된 광양농협의 지점으로서 관내 조합원들에게 영농과 생활에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옥룡농협 나중윤 조합장과 광양농협 이덕재 조합장은 두 농협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2005년 9월 25일 합병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6%와 찬성률 86%로 합병이 가결되었다.

옥룡농협은 2006년 4월 24일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광양농협에 흡수되어 옥룡지점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광양농협은 동일 경제·생활권인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임원 15명, 직원 117명, 조합원 4312명, 준조합원 2만 6465명의 대형 지역농협으로 거듭났으며, 사업 추진의 새로운 동력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광양농협은 합병 이후 옥룡지점의 노후화된 건물 보수와 함께 365코너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또 2007년 매실 본지점 공동선별로 11톤을 출하하고 밤 본지점 공동선별을 통해서 460톤을 출하하였으며, 과거 명성이 높았던 옥룡지역 한우작목반 육성과 매실작목반 육성에 착수하였다. 2008년에도 매실 10kg 3만 상자와 밤 342톤을 공동선별하는 등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옥룡농협 시절의 청사.

2002년 기준 옥룡농협의 내부·협력조직과 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

내부조직		편의시설						
영농회	작목반	하나로 마트	집하장	주유소	농기구 센터	저온 저장고	양곡창고	기타창고
25	3	1	2	1	1	2	3	7



광양농협과 옥룡농협의 합병계약서 조인식.

다. 북부지점 이전, 중부·서부지점 신축

광양농협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금융시장에서 앞서가고 조합원 및 고객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소(지점)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고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등 사무자동화 확충으로 창구인력 절감을 도모하였다.

1995년 3월 27일에는 북부지점을 광양읍 칠성리 182-9로 이전하였다. 북부지점은 당초 1990년 칠성리 896-11에 개설했는데 약 5년 만에 대로변으로 옮긴 것이다.

2002년 10월 7일에는 중부지점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중부지점은 인동리 399-2에 자리한 과거 본점 청사가 1990년 목성리로 이전하자 지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노후화에 따라 신축이전하였다.

또 2010년 3월 3일에는 1992년 덕례리 1726-1에 설치했던 서부지점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2년 신축이전한 중부지점 개점식.



“합병은 조합원 지원 역량 강화에 필수”

회고담④ 옥룡농협 합병과 광양농협 발전

나는 옥룡면 석곡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1966년 막 서른에 접어든 나이였는데, 당시 옥룡리조합 장지현 조합장께서 집으로 찾아와 사정하러 왔다면서 “우리 조합 비료창고가 엉망이니 자네가 맡아 관리 좀 해주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이 되었지요.



서재수 전 옥룡농협 조합장 (1937년생)

옥룡면은 1963년 면 소재지 일대 이동조합들만 옥룡리조합으로 합쳐진 상태였습니다. 조합 규모가 작으니 면 전체 이동조합이 통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차츰 생겼지요. 1966년 용곡리조합이 먼저 옥룡리조합으로 합병되었고, 1969년에는 산본리 등 8개 조합들도 옥룡리조합으로 합류해 옥룡농협이 완성되었습니다. 옥룡농협은 이동조합 합병이 당시 광양군에서 가장 먼저 완료되었어요. 조합원들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켜보자.” 라는 의지로 뭉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합병 후 초대 조합장이 허만수 조합장인데, 이분이 창고를 크게 신축하고 상호금융도 광양에서 가장 빨리 도입했습니다. 창고 지을 때 허 조합장님하고 나하고 농협 뒤편 예전에 시내가 흘렀다는 곳에서 모래를 퍼다 시멘트 벽돌을 얼마나 찍어 댔는지 사람들이 “저 둘이 미쳤는갑다.” 하며 웃던 것이 지

금도 잊히지 않네요. 내가 간부직원이던 1991년 주축이 되어 한우작목회를 만들고 광양읍에 식육점도 내는 등 옥룡농협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관내에 도축장이 없으니 벌교까지 가서 도축을 해왔지요. 마을 어르신들과 의논해 전통 농경의례로 모내기를 마친 뒤 서로 노고를 위로하던

‘씨레씻이’도 복원했고요. 조합장으로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2선을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와 IMF 사태 등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웃 봉강농협이 1998년 광양농협과 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옥룡농협에서도 합병에 관한 찬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룡면은 생활 및 경제권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못했고 농산물 외에 마땅한 성장 기반도 없었기에 나는 합병을 해야 조합원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임 조합장 때에 합병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률 86%로 합병이 가결되었지요.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양농협을 지켜보노라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농협을 이 만큼 발전시키기 위해 고생을 참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네요. 고마운 일입니다.

·대담 일자 : 2023년 9월 20일 ·정리 : 김홍선 작가

제5절
꽃을 피우다

光陽

광양농협의 눈부신 도약

1973-2023

광양농협은 2010년대 들어 크게 도약하며 조합원과 고객에게 다가갔다. 영농자재의 공급과 배송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뱅킹을 넘어 모바일뱅킹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을 높였다. 보험사업 확대와 경영기반 강화를 함께 이룬 광양농협은 복지·환원사업도 확대하였다.

광양농협 도약기의 조합장

제14~15대 김봉안 조합장 | 취임일 2010. 03. 22. 퇴임일 2019. 03. 20.

제5절 • 꽃을 피우다

영농 지원과 농산물 판매 편의 도모

가. 신규 소득원 개발과 고품질화 추진

2010년 3월 취임한 김봉안 조합장은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과 판매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관내 채소류 가운데 중심 품목으로 떠오른 애호박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취임 첫해부터 시설원에 농가에 대한 인큐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의 경우 본점과 봉강·옥룡지점 관내 78농가에 약 608만 매의 인큐를 공급했는데, 광양시가 30%에 해당하는 4487만 원을 부담하고 광양농협도 20%인 3018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다.

2010년 시설원예(애호박) 농가 인큐 지원 내용

구분	농가(명)	지원량(천 매)	지원액(천 원)	
			광양농협(20%)	광양시(30%)
본점	52	4,605	23,552	34,010
봉강	18	1,213	6,204	8,959
옥룡	8	258	1,320	1,905
계	78	6,076	31,076	44,874

2012년에는 고사리·취나물·두릅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산채작목반을 운영하였다. 농가별로 소규모 생산 및 개별판매하는 유통구조를 농협 단위의 물량 집

중과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 산채를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의 경우 고사리 28농가를 비롯해 모두 50농가가 산채 생산에 참여하였다. 출하량은 8240kg이었으며 출하액은 4417만 원에 이르렀다.

2012년 산채작목반 출하 현황

구분	농가(명)	출하량(kg)	출하액(천 원)
고사리	28	3,920	19,602
취나물	7	4,048	21,065
두릅	15	272	3,503
계	50	8,240	44,170

2012년에는 또 매실 선별 및 포장용 자동화기기를 도입하였다. 7920만 원 상당의 제함기 3대를 본점, 봉강지점, 옥룡지점에 배치한 것이다. 광양농협은 이를 통해 매년 수매량이 증가하는 매실의 상품성을 향상시켰으며, 수매 물량뿐만 아니라 공동선별 확대로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에는 옥룡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을 지역특화 대표 브랜드



● 선별기 도입에 따른 포장자동화로 매실 상품성이 향상되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드로 정착시키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전문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옥룡생강작목반을 신설하였다.

한편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광양농협은 2018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유도하였다.

나. 농산물 판매 확대 도모

광양농협은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장과 수매 확대를 추진하였다. 우선 2010년 8월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건조기 2기를 증설하고, 2009년산 벼 전량 판매와 함께 2010년산 추곡 수매를 완료하였다. 2004년을 끝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농가의 가장 큰 고민이 쌀 보관 및 판매였는데 광양농협이 벼 건조기를 증설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

광양농협은 또 쌀값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던 2015년을 전후하여 '광양쌀 사



●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기 2기 증설에 따른
산물벼 수매.

‘먹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광양쌀 통합판매를 추진하여 광양시청과 광양농협 실무자로 통합판매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관내 유관기관·기업체·식당 등 대량소비처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홍보와 협약에 나섰다. 광양쌀 더먹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판매처가 2015년 말 기준 700개소나 확보되었다. 2016년부터는 정부의 산지유통 정책 변경에 따라 관내 전 농협과 함께 연합판매사업에 참여하였다. 184농가가 참여한 2016년도 연합사업 출하 실적은 1715톤에 43억 원이었다.

2016년도 연합사업 출하 현황

구분	농가(명)	물량(톤)	금액(천 원)
광양	162	1,566	3,996,650
봉강	16	108	203,861
옥룡	6	41	72,703
계	184	1,715	4,273,214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2010년 하나로마트 리뉴얼 공사를 통해 매장을 확장하고 6천여 종의 ‘생활잡화 및 소형농기구 매장’을 개장하였다. 2011년에는 진열



● 광양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용 쌀 증정.

표준화작업을 완료하고 안심계란 냉장매대를 설치했으며, 2012년에는 하나로마트에서 관내 농업인들이 사육한 한우고기를 취급해 한우농가의 판로 확보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8년에는 농협의 택배사업이 개시되자 관내 주요 농산물인 매실·감·밤·고로쇠 등의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에 나섰고, 1만 5311건 5900만 원 상당을 취급하였다.

한편 광양농협은 영농자재 중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류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영농과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자 2011년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증설하였다. 증설한 저장탱크는 5만 리터 4기로서, 2011년 말 기준 총 8기(휘발유 5만 리터 2기, 경유 5만 리터 5기, 등유 5만 리터 1기)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적정량의 유류 재고 유지와 함께 급격한 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제5절 • 꽃을 피우다

정보화시대 대응과 상호금융 확대

가. 디지털 금융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2000년대 이후 금융산업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디지털 금융은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영업점을 비롯한 시설 및 인력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이용객에게는 시간·공간·비용 절약 등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자동화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 고객을 많이 보유한 농협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다.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 금융사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양농협은 2010년을 전후하여 조합원과 고객에게 인터넷 사기나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였다. 이를 위해 창구에서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광양경찰서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양농협 직원들은 금융거래를 위해 창구를 방문한 조합원 및 고객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 중단을 요청 또는 설득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손태정, 2016년 박지나 직원 등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여 고객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였다.

나. 외국인 업무 취급

글로벌 시대의 개막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증가 등에 따라 농협의 외국인 업무 취급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협은 이들이 임금이나 기타 자금을 본국에 손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회원농협의 외국인 업무 취급을 차츰 확대하였다. 즉, 2008년 환전 수준의 외국인 업무를 처음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해외송금을 개시하여 2018년 본점 기준 전 회원농협으로 확대하였다. 광양농협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8년 3월부터 환전업무를 개시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외국인 업무 취급기관 등록을 하여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대상 통화는 USD(미국 달러), JYP(일본 엔화), CNY(중국 위안화), EUR(유럽 유로화)였다. 이로써 광양농협 관내 조합원들의 해외여행

을 위한 환전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본국 송금 등도 크게 편리해졌다. 광양농협의 해외송금 등 외국환 업무가 본격화한 2011년 미국 달러화의 경우 2만 2655달러(매입 5571달러, 매도 1만 7084달러)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9만 9030달러(매입 5만 8483달러, 매도 14만 547달러)에 이를 만큼 확대되었다.

외국환사업 성장 현황

구분	미국 달러화(USD)		일본 엔화(JYP)		중국 위안화(CNY)		유로화(EUR)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매입	5,571	58,483	468,000	2,709,000	9,015	15,009	-	1,775
매도	17,084	140,547	1,574,000	3,322,000	17,150	115,709	-	1,970
계	22,655	199,030	2,042,000	6,031,000	26,165	130,718	-	3,745

다. 상호금융 확대와 여신 건전성 제고

상호금융 자금 조달 및 공급 능력 확대

광양농협은 상호금융 취급을 통해 지역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조달한 자금은 관내에 영농 및 생활자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광양농협 예수금의 경우 2010년 말 잔액이 2620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4081억 원으로 55.8%나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대출 잔액도 1663억 원에서 2936억 원으로 76.6% 증가하였다. 다만 정책자금대출은 이때에 8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41.0% 감소했는데, 이는 예수금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양농협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 2012년도 상호금융대상 수상.



광양농협은 이러한 상호금융 성장에 힘입어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2010년도 상호금융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마침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양농협 도약기의 상호금융 현황(잔액 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도	상호금융예수금	대출금		
		상호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대출금 계
2010	261,958	166,289	8,464	174,753
2011	283,040	189,270	7,119	196,389
2012	298,776	209,946	7,399	217,345
2013	314,355	220,755	6,518	227,273
2014	342,618	232,949	6,277	239,226
2015	380,699	242,300	5,904	248,204
2016	386,097	261,418	5,629	267,047
2017	396,481	286,697	5,254	291,951
2018	408,132	293,584	4,991	298,575

대출금 연체관리 효율화로 클린뱅크 달성

광양농협은 상호금융의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즉,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통해 대출금의 연체율을 낮춤으로써 경영수익을 늘리고, 이는 곧 조합 재산 증대와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 증가로 이어졌다.

광양농협 전 임직원이 총력적으로 추진한 연체채권 관리는 2010~2011년 2년 연속을 비롯해 거의 매년 연체채권 비율 1% 수준의 클린뱅크에 선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인정받았다.

제5절 • 꽃을 피우다

내실 있는 복지·환원사업 전개

가. 보험 통한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

광양농협은 협동조합회사인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의 다양한 상품 및 정책보험사업 활용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이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농협보험은 과거 농협공제로 불렸으나 민영보험사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2006년부터 공제 대신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나아가 2012년에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각각 전문보험사로 분리 설립되었다. 이로써 광양농협은 법적 지위가 종전 공제사업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변화되었다.

광양농협은 현대사회에서 보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조합원과 고객의 보험 가입 안내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보험시장 추세가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정책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위주의 영업을 강화하여 가입자가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정책보험료의 조합원 가입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의 보험료 수납액은 2014년 347억 8600만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향하였으며 이후 100억 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위주로 추진된 만큼 보장 기능은 오히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광양농협 도약기의 보험료 추세

(단위 : 억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험료	230	219	218	321	348	220	198	143	114

광양농협은 계약자(피보험자)가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12년의 경우 한반도에는 태풍이 볼라벤·덴빈·산바 등 3차례나 상륙해 광양 지역도 큰 영향을 받았다. 당시 광양농협 관내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광양농협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4명 69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232농가 5억 7000만 원, 일반 손해 및 생명보험 664명 7억 원 등 유례없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광양농협의 이러한 보험사업 확대와 가입자 지원 서비스는 2012년도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수상에 이어 2013년도에도 NH농협생명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 보험사업 확대를 위한 직원 보험교육.

나. 여성의 자기계발과 원로조합원 복지 확대

여성의 자기계발과 취미활동 지원

광양농협은 종전 부녀회와 주부대학 중심으로 펼쳐온 여성조직과의 협력 및 복지지원 사업을 201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여성의 자기계발과 복지증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하였다. 여성의 건강하고 건전한 자기계발 지원을 통해 농협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1년간 운영해온 제1기 주부대학원 수료식을 2010년 4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지역문화복지센터를 개설하여 기존 서예반과 풍물반 위주로 운영되어온 여성문화교실을 노래교실, 건강교실, 풍물과 사물교실, 서예교실, 한국무용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24일에는 부녀회와 주부대학총동창회가 참여하는 여성조직 활성화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성문화교실은 2011년 들어 노래교실, 라인댄스, 서예, 한춤, 풍물교실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되었다. 노래교실은 2017년 41기까지 운영된 가운데 12월 21일 제1회 노래교실 연말 노래자랑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문화교실 참여 회원들은 광양농협은 물론이고 광양시와 인근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실력을 과시하며 회원 본인의 자존감과 함께 광양농협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매년 개설되며 광양농협 여성조직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

● 여성문화교실의 라인댄스 시간.

●● 결혼이민여성 대상 가베지도사 과정 모습.



되어 온 주부대학의 경우 총동창회가 농사체험장을 운영하거나 농산물 홍보에 앞장서고 복지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등 광양농협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주부대학은 2016년 제19기부터 명칭이 여성대학으로 바뀌었으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결혼이민여성의 안정과 모국방문 지원 등을 지속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한국인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17년에는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여러 모양의 교구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 등을 키울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배워 '가베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고령·원로조합원 및 지역 주민 복지 강화

광양농협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협력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농업인 및 원로조합원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1년 부녀회장단과 주부대학총동창회로 구성된 여성조직장들이 독거노인 가정과 노인정의 청소 및 빨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땀 흘리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영농회별 복달임과 씨레짓이 등의 행사에서도 여성조직장들의 헌신적인 협력이 펼쳐졌다.

광양농협 자체적으로도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봉사와 함께 심신 건강을 위한

● 원로조합원 및 노인 위안잔치.

●● 광양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0년 원로조합원 및 노인 위안잔치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 9일에는 18개 팀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광양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다. 게이트볼대회는 이후 연례대회로 열려 원로조합원 및 노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2011년에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돕고자 각종 수상금으로 마련한 쌀을 본점에 설치한 ‘사랑의 쌀 뒤주’에 100여 포 수집하여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8월 총 18회에 걸쳐 3천여 명에게 세계적인 ‘월드아트 서커스’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2014년에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양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노인의 신발, 모자 등에 반사지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원로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 전개 및 확대하였다.

다. 장학금·건강검진 지원, 교육·견학 실시

광양농협은 전통적인 환원사업 중 하나인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녀의 장학금 지원은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뿐



● 조합원 해외연수 (일본 규슈).

만 아니라 그 자녀가 농협을 바르게 이해하는 미래의 지원군이자 인재로 성장하는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영농과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도 진행한다. 2011년 8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의 건강검진 지원이 매년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 조합원 건강검진 모습.

광양농협 도약기의 건강검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80	80	80	68	73	79	82	85	78
금액	24,000	24,000	24,000	20,400	22,500	23,700	24,700	25,500	23,400

한편 광양농협은 임직원은 물론 조직장과 원로조합원 등이 농업 발전의 선진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안목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조합원 240여 명이 해외문화탐방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2011년에도 우수조합원과 농업발전 기여자 등 120여 명이 해외 문화탐방으로 일본 규슈 지역을 견학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임원과 대의원 100여 명이 안성교육원에 입소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리더교육을 수료하는 등 농협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지를 높였다.

제5절 • 꽃을 피우다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반 확충

가. 지점 확충과 하나로마트 증설

본지점 확충

광양농협은 조합원 및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 개설 및 환경개선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3월 3일에는 1993년 개설한 바 있는 서부지점을 아파트가 밀집하고 대학이 있는 서부권에 경영기반을 확대하고자 광양읍 덕레리 1726-14(덕레



북부지점 신축 이전.

길 73)로 신축 이전하였다. 이어 2012년 11월 12일에는 서천권역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광양읍 구산리 843-1(서평로 28)에 서천지점을 대지 223평 및 건물 105평 규모로 신축 개점하였다.

또 2014년 1월 20일 광양읍 용강리 856-1(희양현로 214)에 용강지점을 하나로마트와 함께 신축 개점하였으며(개점식은 2월 24일), 2015년 1월 5일에는 조합원과 고객에게 교통편의 및 최신시설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부지점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건너편에 대지 281평 및 건평 103평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한편 본점은 2017년 사무실 환경개선 및 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건물 노후화와 주차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문객이 사고 위험성 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로마트 증설

광양농협은 2014년 용강지점과 함께 하나로마트 용강점을 신축 개점하였다. 하나로마트 용강점은 대지 1147평에 건평 524평(마트 234평) 규모로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된 용강동 일원 주민들에게 마트와 함께 금융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용강지점 및 하나로마트 용강점 개점.

하나로마트 본점은 2005년 개점 이후 13년이 경과한 2018년 대규모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나로마트 본점은 특히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고 관내 116농가가 출하한 3억 3200만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나. 출자증대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광양농협은 사업 확대 및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출자금 증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출자금을 비롯한 자본금은 새로운 사업 도입이나 시설 구축 등에 필수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농협에 대한 관심과 사업 참여의 척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광양농협의 출자금은 1980년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하였고, 1998년에는 10억 원을, 2006년에는 5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전 임직원과 조합원이 출자 증대 운동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9년 77억 6400만 원이던 출자금이 2010년 12월 21일 마침내 100억 원에 도달하였고, 연말에는 101억 2800만 원에 이르렀다.

광양농협의 조합원 출자금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과 3년 만인 2013년 150억 원을 상회함으로써 광양농협 조합원들의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신규사업 투자의 재원 역할을 하였다.

한편 광양농협은 2016년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 등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정예조합원 육성 및 조합원의 사업 참여와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3~8월 6개월간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무자격 조합원 617명이 정리되었고, 신규가입과 자연감소 등을 반영한 연도 말 조합원 수는 3352명으로서 2015년 말 3900명보다 548명이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 실적이 없는 준조합원도 정비하여, 2015년 3만 2319명이던 준조합원이 2016년 2만 6078명으로 6241명 감소하였다.

광양농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영농회별 조합원 수가 변화함에 따라 대의

원 정수도 111명에서 96명으로 조정하였다.

광양농협 도약기의 출자금과 조합원·준조합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자금	78	101	110	138	150	159	170	176	162	167
조합원	4,103	4,080	4,049	4,007	3,964	3,935	3,900	3,352	3,322	3,320
준조합원	22,377	22,377	23,038	30,526	31,146	31,827	32,319	26,078	25,511	25,839

다. 종합업적 전국 1위 달성과 총화상 수상

전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사업 추진에 매진한 결과 광양농협은 2010년도 카드사업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0년도와 2012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하였다.

광양농협은 이와 함께 2012년 7월 3일 농협창립 제51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총화상은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친절봉사, 직원간 인화단결, 사회봉사 및 농정활동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우수 농협에 수여하는 농협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봉안 조합장도 2013년 농협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2 총화상
 2012 상호금융대상
 2012 종합업적 전국1위
 2012 NH생명보험 연도대상
 2012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그동안 성원해 주신 조합원님
 고객님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고객, 지역민과
 가슴으로 소통하는 **광양농협**"
 조합장 김봉안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신재로 10 ■ 대표전화:061-760-2233 ■ 홈페이지:www.kynh.co.kr

총화상 수상과 종합업적 전국 1위 수상을 홍보하는 광고 도안.

라. 노동조합과의 갈등 극복

2015년 2월 광양농협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노조는 출범 불과 1년 남짓 만인 2016년 5월부터 사 측과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직원들도 노조원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에 상호 간에 대처가 미흡했으며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추수가 다가오는 2016년 9월 26일부터 직원 150여 명 중 노조원 96명이 두 주일간 전면파업에 참여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10월 하순 노조는 2차 파업을, 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갈등이 심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사는 조합원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과 본점마트를 비롯한 일부 지점 업무, 산물벼와 밤 수매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파국을 막았다.

광양농협 노·사는 끈질긴 노력으로 임금과 인사 등 협상에 진척을 보였으며, 11월 7일 노조가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잉클어졌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광양농협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는 노·사 간 상호 대화 및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였고, 농협의 주인으로서 파업으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조합원과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노·사가 함께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광양농협 노동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전개한 환경보호 활동.



“부녀회는 농협과 함께 성장했어요”

회고담◎ 여성조직과 농협사업 연계



정영애 총부녀회장 (1955년생)

친정이 광양읍 죽림리 쌍백마을인데, 세풍리 신두마을 사람인 남편과 1975년 1월에 결혼했고 현재는 이웃 해두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녀회 활동은 결혼 후 신두부녀회에서 시작해 해두부녀회로 이어졌고, 2010년부터는 해두부녀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광양농협 총부녀회장

도 맡고 있네요. 1970년대에는 농번기에 공동취사장을 운영했지요. 모내기할 때는 지금과 달리 다들 품앗이를 하고 손모를 심었는데, 공동취사에서 밥을 해서 일꾼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녀회의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은 공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사업으로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막걸리 장사를 한 것입니다. 주조장에서 한 말짜리 통으로 떼어온 막걸리를 주전자로 받되나 한 되씩 팔았어요. 농번기에는 마을회관에서 구관장도 운영했습니다. 농협 연쇄점에서 생필품 등 간단한 물건과 안줏감 등을 가져다 마을 주민들에게 팔았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주민이 줄어들고 장을 보러 가는 교통도 점차 좋아져서 구관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광양농협이 새농민대회를 할 때는 부녀회도 덩달아 바빠졌지요. 영농회원들과 함께 식사할 음식을 준비하고, 달리기 등 경

주에도 직접 참가하고 그랬으니까요. 부녀회는 회원들이 예금이나 공제 가입에 앞장서고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등 농협의 사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제 가입에 부녀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주부대학이 운영되면서 부녀회원들도 대부분 주부대학을 수강

하면서 농협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고요. 농협의 성장과 발전에는 우리 부녀회원들의 치다꺼리와 전이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농촌이 너무나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성조직만 봐도 예전에는 농가 위주의 부녀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주축인 여성대학이 활성화되어 있지않습니까? 나라가 잘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하는데, 부녀회도 회원들이 나이가 들고 숫자가 줄어드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그래도 광양농협이 부녀회를 비롯한 여성조직 지원에 열성을 기울여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녀회에 일거리와 함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의 기회가 꾸준히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대담 일자 : 2023년 8월 10일 · 정리 : 김홍선 작가

제6절
열매를 맺다

光陽

광양농협과 지역사회의 동행

1973-2023

광양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판매농협이며 지역의 금융센터이자 생활 장터로서 생산자·소비자·주민 모두와 상생하고 있다. 광양농협은 또 3년 연속 종합업적 전국 1위 타이틀에 맞게 탄탄한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광양농협 결실기의 조합장

제16~17대 허순구 조합장 | 취임일 2019. 03. 21. 현재 재임(2선)

제6절 • 열매를 맺다

조합원의 소득 높여주는 판매농협

가. RPC 사일로 증설

2019년 3월 21일 허순구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광양농협은 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 바탕에는 허순구 조합장의 오랜 실무 경험과 새롭게 다진 경영자로서의 안목이 있었다. 허 조합장은 취임 당년도인 2019년 12월 제8기 서울대학교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과정(AAMP)을 수료했는데, 서울대 총장상을 수상하면서 농협의 사업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광양농협은 우선 2019년 12월 12일 미곡종합처리장의 대형 사일로 6기를 준공하면서 수도작 조합원의 애로를 덜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였다. 사실 광양농협은 1998년 세풍리에 연 600톤 저장과 1000톤 건조가 가능한 정조(곡물) 건조장을 건립하였고, 2007년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벼 건조기 2기를 증설하는 등 광양쌀의 건조-저장-도정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설의 규모가 빈약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또한 소규모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애써 생산한 벼를 야적하거나 멀리 떨어진 양곡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른 노동력 소요 및 쌀 품질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광양농협은 산물벼 수매 보관과 건조 도정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저장시설 구축에 나섰으며, 광양시 등의 협조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 벼 저장시설이 증설된 미국종합처리장.

에 선정되어 국비 3억 7600만 원과 지방비 6억 27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54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기당 500톤씩 3천 톤 규모의 사일로를 갖추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벼 출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샤인 광양 좋은쌀' '하늘이 내린 광양쌀' '친환경으로 재배한 안심쌀' 등 고품질 광양쌀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게 되었다.

● 벼 투입을 기존 툰백 방식(왼쪽)에서 수매통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산물벼 수매 및 저장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다.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허순구 조합장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

광양농협의 숙원 가운데 하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갖추는 것이었다.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은 애호박, 매실, 밤 등의 농산물과 임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합리화와 함께 고품질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광양농협의 농산물 선별은 그동안 1996년 도월리 215-2에 정부지원 유통시설로 마련한 50평 규모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간이집하장은 당초 수출오이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용하던 것으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기계화 등에 있어서도 현대적인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광양농협은 2019년 도월리 550-6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3천 평을 마련하고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2021년 정부지원 발작물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사업비 10억 원(국고 5억 원, 지방비 4억 원, 자부담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건축면적이 400평인 광양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밤을 시작으로 가동에 돌입하였다.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매실·밤·애호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박·토마토·산채 등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저장·운송 등의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성 향상과 판매 확대를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을 높여주면서 가공 및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판매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광양농협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갖추기 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 규격화 및 고급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조합원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산지조직화 기반의 유통경쟁력 확보인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애호박 생산농가의 공동선별을 예로 들 수 있다. 애호박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은 2021년에는 기존 6농가에서 31농가 전체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출하물량과 수취가격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애호박공선출하회는 2022년 3월 농협중앙회에서 ‘2021년 생산자조직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2021년도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수상 (공선출하회 전국 1위).

광양농협은 또 2020년을 전후해 농산물 소포장 출하를 본격화하고, 고로쇠수액 출하농가 간담회와 산채 생산농가 간담회를 상황에 맞도록 마련해 판매를 확대하였다.

광양농협이 경제사업의 여러 부문 중 구매사업·마트사업 등에 비해 수익이 적게 나면서 위험부담은 큰 판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판매사업이야말로 농협 본연의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임직원 모두가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농협은 판매사업을 수탁판매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조합원과 농협 간의 신의성실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의 경영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최근 광양농협의 판매사업은 조합원 고령화 등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광양농협 결실기의 판매사업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실적	91	110	113	118

제6절 • 열매를 맺다

고객이 믿고 찾는
디지털 금융센터

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광양농협은 2020년 상호금융예수금이 잔액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선 5329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1년에는 상호금융대출금도 5439억 원으로서 예수금과 대출금을 합친 신용사업량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1조 1508억 원)하였다.

광양농협의 이러한 신용사업 성장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절한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광양농협은 특히 서로 간에 힘을 모아 자금을 융통한다는 상호금융(相互金融)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한 예수금을 관내 농업인과 고객에게 농업생산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공급하였다.

광양농협은 이 과정에서 2019년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마트의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금융시대를 선도하고자 'NH로뱅크' 등 모바일 앱 설치와 활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준조합원 확대 캠페인으로 신용사업 기반 확충 및 잠재 신규고객 증대에도 나섰다.



상호금융 1조 3천억 원 돌파 자축연.

광양농협 결실기의 신용사업 실적 추이

(잔액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상호금융예수금	4,447	5,329	6,003	6,642	
대출금	상호금융	2,909	4,259	5,439	6,060
	정책자금	52	56	66	86
	대출금 계	2,961	4,315	5,505	6,146
신용사업 계	7,408	9,644	1조 1,508	1조 2,788	

광양농협은 신용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고객이 금융범죄나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장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조합원 및 고객이 금융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창구와 ATM기 거래자의 이상행동을 주시하였다. 그 결과 본점 광진경 과장보와 옥룡지점 서주용 계장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범죄를 막아 광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안전한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연체율이다. 연체율이 낮다는 것은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경영도 효율적으로



대포통장 근절과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전개.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광양농협은 최근 연속하여 0%대의 연체율을 기록함으로써 클린뱅크로 인증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광양농협의 외국환사업은 미국 달러화의 경우 업무가 본격화한 2011년 2만 2655달러(매입 5571달러, 매도 1만 7084달러)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60만 5605달러(매입 35만 3817달러, 매도 25만 1788달러)에 이른 것을 비롯해 일본 엔화(688만 3천 엔), 중국 위안화(1만 3521엔), 유로화(8만 6590유로) 등의 거래도 활발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입지를 다졌다.

나. 농업인과 고객이 만족하는 보험 추진

광양농협은 보험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계약자(피보험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피해를 극복하고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홍보 및 추진 활동.

특히 농업계의 보험시장이 생명보험보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위주로 형성됨에 따라 이를 감안한 보험 추진으로 조합원들의 가입률을 높이며 실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보험료 납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13% 이상 성장한 100억 원대로 복귀함으로써, 2014년 348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하향세이던 흐름을 멈췄다.

광양농협은 2022년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농작업 재해를 입은 133명에게 1억 5500만 원, 농작물 피해를 입은 150건에 1억 6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일반 생명·손해보험도 914명에게 1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광양농협 결실기의 보험사업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유효계약고	1,770	1,767	1,777	1,741
보험료	95	108	113	108



2020년도 농협 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정책보험료 지원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1,171	10	200	107	122	14	128	280
2020년	1,471	13	291	137	204	26	118	300
2021년	1,790	16	106	71	240	40	140	102
2022년	1,814	16	133	155	388	24	150	168

한편 광양농협은 2019년 광양농협 최초로 농협생명 연도대상에서 신인상 수상자(북부지점 양승희 과장)를 배출하는 등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농협손해보험의 순일반보험부문 대상과 연도대상, 농협생명보험의 연도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연도대상 동시 수상이라는 기쁨을 토하였다. 당시 손해보험 연도대상에서는 김재현 계장이 챌린저리그 뉴스타상을, 생명보험 연도대상에서는 김해강 과장이 신인상 및 양승희 팀장이 퓨처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6절 • 열매를 맺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즐거운 로컬마트

1970년대 구판장을 거쳐 연쇄점으로 출발한 광양농협의 마트사업은 1997년 지하 연쇄점이 하나로마트로 개편되고 2005년 지상에 하나로마트가 신축 개점되는 등 차근차근 성장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용강동에 용강지점과 함께 하나로마트 용강점이 신축 개점하였다.

하나로마트는 고품질 농축산물 및 가공품과 공산품 등을 취급해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기여하며 농협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2019년 10월 18일 열린 로컬푸드(로컬푸드직매장·하나로마트) 본점과 용강점 동시 개장식.



● 로컬푸드 출하농가 보수교육.

지만,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광양농협은 하나로마트를 조합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로컬푸드(local food)의 원리와 이념은 농협이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도입한 신토불이(身土不二)와 같다. 즉,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광양의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광양 주민들이 소비하는 형태인 것이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 간 배송 거리가 짧고 유통 단계도 축소되므로 식품의 신선도가 높아지는 반면 가격은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광양농협은 2019년 3회에 걸쳐 로컬푸드를 출하할 조합원 192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하였고, 그해 10월 18일 하나로마트 본점과 용강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여 ‘로컬마트’로 동시 개점하였다. 2곳의 광양농협 로컬마트는 개점과 함께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마진 없이 판매하고, 전남농협 최초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선도

적인 마트사업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농산물 판매의 전진기지이자 광양 지역의 새로운 쇼핑 명소로 거듭났다.

광양농협 로컬마트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일반상품	211	269	278	263
로컬푸드	7	16	20	30
합계	218	285	298	293

관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매일 새롭게 진열되는 광양농협 로컬마트는 개장 이전 하루 평균 내방객 2천 명과 매출액 5800만 원 수준에서 개장 이후 내방객 2200명과 매출액 61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해 농가소득 및 광양농협 마트사업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개점 3년 만인 2022년에는 출하농가가 400명, 로컬푸드 매출액이 30억 원에 이를 만큼 호응을 얻었다.

광양농협은 해마다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우수 출하 농가에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로컬마트가 조합원이 만족하고 소비자도 즐거운 생활장터로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정부의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용강점의 로컬푸드존 확대와 출하농가 공동작업장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더 넓고 편리하며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였다. 2022년 연말에는 로컬푸드 출하농가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결산 및 전진대회를 열고 로컬푸드사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제6절 • 열매를 맺다

편리함을 더하고
부담을 더는 농가지원

가. 자재유통센터 단장과 병해충상담센터 개설

광양농협은 2003년 경제사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주유소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2004년에는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를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영농자재 및 유류 구입, 농기계 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여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의 시설이 낡고 공간 재배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광양농협은 조합원 및 고객에게 품질과 서비스



● 병해충상담센터 신설 및 상담 개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자재센터의 매장이 쾌적해지고 진열대가 정비되었으며 판매 및 결제 시스템이 개선됨으로써 농약 한 병까지도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의 시설 개선은 주유소의 매출 증대와 농기계수리의 편의 제고라는 선순환을 불러와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농기계센터는 광양농협 본·지점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10년간으로 확대하였다.

광양농협은 2020년 본점에 농약 소매점인 병해충상담센터도 신설하였다. 병해충상담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면서 모든 작물에 필요한 농약 및 영양제를 취급하게 되었다. 특히 2021년부터 모종 전문가를 배치해 운영함으로써 작물의 생육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작물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방도 제공하게 되었다.

농약과 영양제 외에 씨앗과 모종 및 각종 소농자재를 구비한 병해충상담센터는 본점 건물 측면에 위치함으로써 은행 업무, 로컬마트 쇼핑과의 연계성도 높아졌다.

나.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농작업은 고가의 농기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령화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점차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양농협은 농작업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일손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광양농협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주로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콤바인을 이용한 벼와 보리 수확 및 드론을 이용한 농약 공동방제 등이 주요 작업이다. 초기에는 보리 수확과 수도작 드론 공동방제 위주로 추진하다 2021년부터는 벼수확 작업도 대행하기 시작하였다.

광양농협은 산간지역 및 다랑논 등 대형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지와 고령 농



보리 수확 농작업
대행서비스

업인의 벼 수확 대행은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다. '새농민'과 '청년농부 희망모임' 육성

광양농협은 선도농업인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만 해도 오길석·이양숙 부부(옥룡면), 정택수·이재순 부부(봉강면), 강정호·임현정 부부(광양읍) 등이 새농민으로 배출되는 경사를 맞았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과 생산력을 인정받는 선도농업인으로서 광양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광양농협은 이들 선도농업인들이 광양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 속에 영농에 전념하는 한편 우수한 농업기술을 이웃과 후배 농업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광양의 농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2월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강정호·임현정 부부 모습.

2010년대 이후의 새농민상 수상 부부

지역	수상자	수상 시기	주소	주작목	농장명
옥룡	곽동철 조윤희	2012. 04.	광양시 중동	화훼 (알스트로메리아)	
봉강	송만중 윤윤애	2014. 12.	봉강면 석사리	애호박	밀레농장
봉강	박상중 이자옥	2017. 11.	봉강면 지곡리	화훼 (알스트로메리아)	다원농장
옥룡	오길석 이양숙	2019. 09.	옥룡면 죽천리	조경수	금실농원
봉강	정택수 이재순	2021. 05.	봉강면 봉당리	딸기 애호박	건강플러스농원
광양	강정호 임현정	2023. 02.	광양읍 목성리	갯잎	서광농원

한편 광양농협은 2019년 12월 '청년농부 희망모임'을 결성하고 육성 및 지원에 나섰다. 청년농부 희망모임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20여 명이 참여하는 모임인데, 광양농협은 이들의 농업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농부 희망모임 간담회.

청년 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따라서 광양농협은 청년농부 희망모임에 스마트농법을 전수하고 농사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상생 및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하게 된다.

라. 조합원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광양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사업 이용 시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해 왔다.

불편사항 개선의 대표적인 경우가 2020년 본점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변경하고 주차 부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광양농협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주차 면이 부족한 데다 본점 금융고객과 로컬마트 쇼핑객이 함께 이용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5일시장까지 인접하여 장날이면 무단 주차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광양농협은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본점 및 로컬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무단 주차 차량에

서부지점 '덕례리 무장애 동네 만들기' 1호점 현판식.



주차장 공사 전(왼쪽 사진)과 공사 후의 모습

주차비를 부과하였다. 이후 장날이면 특히 혼잡했던 주차장이 한결 이용하기 편해졌으며, 광양농협은 주차장 수납 요금을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였다.

고령 조합원이나 몸이 불편한 고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기할 만하다. 2019년에는 본점에 건물 전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문화복지센터 이용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영농회장·부녀회장 등 조합원과 고객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 2022년에는 덕례리 서부지점에서 '광양읍 덕례리 무장애 동네 만들기' 1호점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무장애 동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영업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과 내부 시설 등을 방문객의 편의성 위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협의 택배사업이 정착해가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광양농협은 비대면 배달에 나서는 한편, 하루 전 콜센터에 접수한 택배는 물품을 방문접수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또 택배 취급처도 본점 자재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로컬마트 본점과 용강점, 옥룡지점과 봉강지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6절 • 열매를 맺다

상생하고 동행하는 지역사회 공헌

가.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 '상생'

최근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활력 저하가 꼽힌다. 이러한 흐름은 광양농협 관내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광양시청이 제공하는 통계연보를 통해 2010년과 2020년의 전체 인구 및 고령화율 변화를 살펴보면 ▲광양읍 인구 5079명(11.4%) 증가, 고령화율 4.2%p 증가 ▲봉강면 인구 148명(6.2%) 감소, 고령화율 6.1%p 증가 ▲옥룡면 인구 160명(4.9%) 감소, 고령화율 5.2%p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강·옥룡면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율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증가한 광양읍도 고령화율 증가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농협 관내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체	65세 이상	고령화율	전체	65세 이상	고령화율	전체	65세 이상	고령화율
광양읍	44,708	4,476	10.0	50,348	5,684	11.3	49,787	7,050	14.2
봉강면	2,381	660	27.7	2,157	691	32.0	2,233	754	33.8
옥룡면	3,296	1,038	31.5	3,164	1,094	34.6	3,136	1,152	36.7

※ 광양통계연보의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자료이며 외국인 포함 등록인구임.



우리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캠페인.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단순히 조합원만을 위한 경제단체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 모두의 활력과 상생을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농촌 자체의 흐름을 광양농협의 힘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농업인과 주민들의 분위기가 침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농협은 여성대학 및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게이트볼대회·파크골프대회·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며, 노래교실·서예교실 등을 열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2022년의 경우 제주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서귀포농협의 선과장을 방문하는 등 조합원들의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역의 농업 발전과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광양농협도 사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꽃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희망의 꽃 나눔 행사를 열고, 비대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봉사에 나서는 등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침체를 막고 활력을 유지하였다.

임직원과 여성대학 등 협력조직 구성원들이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팔을 걷



● 매실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 화훼농가 희망의 꽃 나눔 행사.



고 나서는 것도 지역 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함께 광양농협은 2021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탐색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이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지역민 복지 증진으로 '동행'

광양농협은 전통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요한 분야로 여겨왔다. 조합원 본인의 건강검진 지원이나 자녀의 장학금 지급 등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 조합원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감 강화와 만족감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농협은 고령 주민들의 마을회관 공동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도청 마을회관과 2022년 기두마을회관의 도색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산뜻하게 단장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26~27일 이틀간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해 조합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함께 개인별 검안 및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하였다. 100세를 맞은 봉강면 명암마을 김상근 조합원의 상수연(上



● 농촌마을회관 도색지원사업 전개.

● 행복나눔 꾸러미 생필품 지원.

壽宴)을 지원해 축하한 것도 조합원 복지 및 동행의 의미를 담은 행사였다. 한편 광양농협은 명절이면 조합원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하거나 복날에 보양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불우시설 방문 및 행복나눔 기부 등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지역민 모두와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양농협은 2021년 12월 3일 허순구 조합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생필품 꾸러미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사랑의 집 고쳐주기,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기탁 등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것이 인정받은 것이다.

광양농협 결실기의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영농지원	511	858	1,186	1,532	조직장 수당 등
영농지도	534	443	493	641	영농자재 지원 등
생활지도	87	14	23	45	여성대학·문화복지 등
교육사업	36	27	0.4	8	농업인 각종 교육비
홍보선전	198	157	176	199	농민신문 보급 등
복지지원	84	89	141	209	조합원 복지 지원 등
계	1,450	1,588	2,019	2,634	-



●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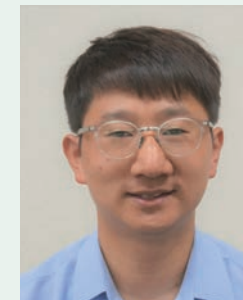


● 요양병원과의 상생발전 협약.

광양농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생활지도사업과 복지지원사업을 다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지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실내활동 또는 단체활동의 제약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만큼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조합원 복지지원의 경우는 2022년 집행액이 2억 900만 원으로 2019년의 84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149%) 증가하였다.

“광양농협의 더 큰 미래를 일구겠습니다”

인터뷰 | 광양농협 직원의 다짐



이노영 광양농협 기획과장 (1983년생)

2011년 광양농협에 입사해 1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관리팀에서 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0년 전통을 가진 광양농협에 근무한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광양농협은 농업인 등 지역민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처럼 어우러져 왔습니다. 농협에 오신 원로 조합원님들로부터 “돈 없고 가난하던 시절 보리쌀 한 되씩 출자하여 세운 우리 조합”이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힘들게 지켜온 광양농협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면서 지금의 광양농협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농업인을 대변하고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섬기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농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는 주거의 안정성, 자연환경의 혜택, 여유로운 삶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농협이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영농기술 및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 농촌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광양농협의 젊은 직원으로서 우리 농협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은 농촌은 물론이고 산촌·어촌·공장지대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이 허순구 조합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는 데에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양농협이 이미 종합업적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사업 추진과 경영 안정을 통해 지도지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조합원과 지역민에게서 받은 성원에 보답해 나가기 바랍니다. 광양농협 창립 50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배 임직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고의 농협에서 근무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광양농협을 더 키우고 발전시켜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대담 일자 : 2023년 8월 10일 · 정리 : 김홍선 작가

제7절
다시 꿈을 심다

光陽

광양농협의 100년을 향한 비전

1973-2023

광양농협은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양농협이 농가소득 증진에 앞장서고, 조합원·고객·지역민과 동행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때 미래가 보장됨을 임직원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광양농협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제7절 • 다시 꿈을 심다

미래를 내다보는 감동경영

광양농협을 이끌어가는 허순구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농협의 경영은 궁극적으로 조합원과 고객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원은 농협의 경영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 감동하고, 진정한 농협의 가족으로서 존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규사업 추진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내실경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분과별 토론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는 ‘광양농협 소식’ 등 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마을 좌담회 등을 통해 소상히 공개하고 있다.

광양농협은 또 직원들의 업무지식 함양과 친절도 향상으로 조합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염두에 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광양농협은 연초 시무식 및 주요 행사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모두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확립에 앞장서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도 직원 간 화합과 신뢰 제고 및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광양농협만의 독특한 사업 추진 방식이 또 하나 있다. 허순구 조합장 취임 이듬해인 2020년 시무식을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 ‘마케팅이 생존이다!’라는 캐치



● 허순구 조합장은 매년 시무식에서 신년 화두를 제시한다. 2020~2023년 화두는 각각 사석위호(射石爲虎), 우공이산(愚公移山), 무실역행(務實力行), 토적성산(土積成山)이었다.

프레이즈 아래 거행하였으며, 해마다 신년 화두(話頭)를 정해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화두는 사석위호(射石爲虎), 2021년 화두는 우공이산(愚公移山), 2022년 화두는 무실역행(務實力行), 2023년 화두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이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강조하는 이들 화두는 광양농협과 허순구 조합장의 경영 방향으로서 조합원과 고객의 ‘감동’을 향하고 있다.

광양농협의 이러한 경영 방향과 활동은 실제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빼어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양농협은 허순구 조합장 취임 이후 각종 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히 2020~2022년도에 걸쳐 이룬 종합업적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는 다른 농협들이 범접하기 힘든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허순구 조합장은 2022년 7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하였다. 이는 조합장 개인의 영예이기도 하려니와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지향하는 광양농협으로서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탄탄한 디딤



● 허순구 조합장이 종합업적 3년 연속 1위의 금자탑을 세우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수상 기(旗)를 받고 있다.

돌을 놓은 것과 다름없다. 1973년 6월 16일 출범한 광양농협은 50년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총사업량 1조 5천억 원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광양농협은 현재의 경영활동이 현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과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바탕임을 임직원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

물론 광양농협이 이제껏 이룬 성과나 현재의 위상이 광양농협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광양농협도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으며, 금융과 마트 등 날로 격화하는 시장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러나 광양농협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17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농협과 더 행복한 농촌을 향해 정진하는 것, 이것이 곧 3300여 광양농협 조합원을 위한 감동경영이며 미래를 향한 가장 큰 투자이다.



● 허순구 조합장은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동농교류의 날에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하였다.

광양농협 결실기의 주요 성과

일자	내용	비고
2019. 10. 18.	로컬마트 본점·용강점 동시 개점	
2019. 12. 12.	미국종합처리장 사일로(6기) 준공	
2020. 12. 21.	상호금융예수금 5천억 원 달성	
2020. 12. 31.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2021. 03. 30.	상호금융 1조 원 달성	광양시 관내 최초 달성
2021. 08. 02.	상호금융대출금 5천억 원 달성	
2021. 12. 03.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2021. 12. 31.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2연패
2022. 03. 03.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수상	애호박 공선출하회
2022. 06. 10.	상호금융예수금 6천억 원 달성	
2022. 07. 07.	허순구 조합장 산업포장 수훈	
2022. 12. 05.	상호금융대출금 6천억 원 달성	
2023. 06. 2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준공	광양읍 도월리 550-6

2022년 말 기준 광양농협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 원)

총사업량	자산총계	예수금 잔액	대출금 잔액	경제사업 계	당기순이익
15,214	7,543	6,642	6,060	685	31

●● 광양농협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내일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광양농협 조합원들의 미래가 허순구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직원 및 직원들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제7절 • 다시 꿈을 심다

새로운 비전 제시한 한마음 대축제

가.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 개최

광양농협은 조합원·고객·지역민과 임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며 종합업적 3년 연속 1위 등 전국 최우량 농협으로서의 위치를 탄탄하게 다졌지만, 이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다행히 창립 50주년인 2023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대규모 실내

●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된 광양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





● 광양농협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

행사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지난 50년간 광양농협을 성원하고 함께 땀 흘린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광양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3년 10월 31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마음 대축제는 농협과 조합원의 잔치를 넘어 광양시 일원의 축제가 되었다. 개최 전부터 플로어와 객석이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민들로 가득 찼고, 광양농협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한마음 대축제는 1부 식전행사로 풍물패를 비롯해 광양농협 문화교실에서 실력을 연마한 요가·라인댄스·노래교실 회원들과 다문화여성대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2부 공식행사는 난타 축하공연에 이어 광양농협의 전국단위 수상 기(旗)들과 행복나눔봉사단 기가 입장해 단상에 자리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허순구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광양농협 기를 받아 늘어선 수상 기 앞에서 힘차게 흔들며 지난 50년간 전국 최고 농협으로 성장해온 광양농협의 빛나는 업적과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보여주었다.

이어 광양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 각종 시상이 있었고, 허순구 조합장이 기념사를 하였다. 허순구 조합장은 “광양농협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광양농협은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인과 지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장이 축사를 통해 광양농협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조합원 및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영상 메시지로 광양농협 창립 50주년 및 한마음 대축제를 축하하였다.

2부 공식행사는 편찬 준비 중인 '광양농협 50년사' 전달 퍼포먼스에 이어 조합원 대표들과 주요 내빈들이 단상에 오른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한편 3부는 체육관을 둘러싸고 마련된 영농회별 야외 음식 부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화합행사로 진행되었다. 또 4부 축하행사는 불나비 퓨전장구예술단 축하공연, 로컬마트 경품추첨, 한마음 노래자랑 본선, 진성·주병선·서지오 등 인기가수 공연 등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날 경품으로는 대상 1명에게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금상 2명에게 김치냉장고, 은상 4명에게 58인치 텔레비전 등을 각각 제공하였다.



●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조합원과 고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허순구 조합장.



●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식.

● 한마음 대축제 대상
경품으로 준비된
승용차(2024년식 모닝).

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광양농협 비전 선포



● 김상완 상임이사가 광양농협 임직원 대표로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광양농협의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는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과시하며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데서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민들 앞에서 광양농협의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를 향해 쉽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임직원이 청렴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지니면서 구성원인 조합원들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의 품위와 자세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 나가기 위한 슬로건과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광양농협 임직원은 지나온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인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100년 농협의 비전 선포 및 임직원의 다짐을 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광양농협은 사전 준비를 통해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광양농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즉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메인 슬로건으로는 ‘함께 해 온 50년! 함께 가야 할 100년!’을, 서브 슬로건으로는 ‘50년을 넘어 다 함께 미래로!’를 준비하였다. 이와 함께 광양농협 임직원들의 굳은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비전 선포문’도 만들었다.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광양농협 임직원들은 비전 선포식을 갖고, 김상완 상임이사가 대표로 낭독한 비전 선포문을 통해 더 큰 농협과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였다. 광양농협이 조합원·고객·지역민 그리고 내빈들 앞에서 지나온 50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새로운 미래 100년으로 향하는 순간이자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광양농협의 비전과 슬로건 및 비전 선포문

비전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
슬로건	함께 해 온 50년! 함께 가야 할 100년! - 50년을 넘어 다 함께 미래로! -
비전 선포문	<p style="text-align: center;">비전 선포문</p> <p>광양농협 200여 임직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3500여 조합원, 농업인, 지역민의 실익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p> <p>하나. 농업인·조합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p> <p>하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통해 전국 최고 농협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p> <p>하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조합원·농업인·지역민과 항상 동행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p> <p>함께 해 온 50년을 넘어 함께 가야 할 100년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 10. 31. 광양농협 임직원 일동</p>

● 허순구 조합장과 조합원 대표, 내빈들이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함께하였다.



제3장 광양농협의 조직과 사업

제1절

- 정관의 총칙과 기관 및 조직
정관의 총칙 해설 / 기관과 위원회 / 내부 협력조직

제2절

- 사업과 사업장
광양농협의 사업 / 사업장

제1절

光陽

정관의 총칙과
기관 및 조직

1973-2023

광양농협 정관은 명칭·소재지·구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의원·총회·이사회 등 기관,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한 사항도 신고 있다. 광양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양농협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위원회·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농협 운영의 효율화와 공정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다.

제1절

정관의 총칙 해설

가. 명칭

광양농협의 정확한 명칭은 ‘광양농업협동조합’이다. 광양농협 정관은 제1조(명칭)에서 ‘우리 조합은 광양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광양농업협동조합은 약칭으로 ‘광양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1973년 6월 16일 설립 때의 명칭은 현재와 다른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이었다. 당시 농협중앙회가 소규모로 조직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동조합을 읍이나 면 단위로의 대규모 합병을 추진하면서 1973년 3월 5일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합병을 완료한 조합을 ‘단위조합’이라 하고, 명칭에 지방명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광양 지역의 원로 조합원이나 고령 고객 중에는 현재도 광양농협을 ‘광양단위조합’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명칭이 1989년 4월 1일 개정된 농협법 시행으로 ‘단위’를 삭제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사용되었던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아직도 ‘광양단위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광양농협과 고락을 함께해온 조합원이거나 오랜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

광양농협 명칭 변경 역사

일자	명칭	비고
1973. 06. 16.	광양단위농업협동조합	광양농협 설립
1989. 04. 01.	광양농업협동조합	1989. 04. 06. 등기(법률 제4080호)

나. 설립 목적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경제조직이다.

광양농협 설립 목적(정관 제2조)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광양농협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다. 사진은 하곡수매 모습.

이러한 광양농협의 설립 목적은 정관 제2조(목적)에 함축되어 있다. 광양읍·옥룡면·봉강면의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양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봉사 외에 지역 시장 경제의 상도덕 재건 및 경제질서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 사무소의 소재지

자연인(사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이 주소이다. 농협과 같은 법인도 일정한 장소를 주소로 하여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는다. 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하며, '주된 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외의 모든 사무소를 포함한다.

광양농협은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설립 당시 광양농협의 소재지는 광양읍 덕례리 8-6이었다. 이후 광양농협은 1975년 인동리로, 1990년에는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현재 광양농협의 소재지는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이며, 지번 주소로는 '광양읍 목성리 710-34'이다.

광양농협 주소변경 역사

일자	주소	비고
1973. 06. 16.	전남 광양군 광양읍 덕례리 8-6	광양농협 설립
1975. 04. 06.	전남 광양군 광양읍 인동리 399-2	1975. 05. 23. 등기
1990. 02. 20.	전남 광양군 광양읍 목성리 710-34	1990. 02. 23. 등기
1995. 01. 01.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10-34	광양군·동광양시 통합, 광양시 출범
2014. 11. 1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	도로명 주소 적용



● 광양농협의 소재지는 본점이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이다.

라. 구역

농협의 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농협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직구역'이고, 또 하나는 농협의 사업활동이 미치는 '사업구역'이다. 광양농협과 같은 지역농협은 이러한 구역이 인접한 지역농협과 중복되거나 경합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광양농협은 정관 제4조(구역)에서 '우리 조합의 구역은 광양시 일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광양시에는 현실적으로 각 읍·면과 동 등 행정구역에 따른 다수의 지역농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양농협의 조직구역은 사실상 광양읍을 비롯해 흡수합병 지역인 봉강면과 옥룡면 일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관 제9조(조합원) ②항에서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중복가입 불가는 모든 지역농협의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농협이 정관에서 구역을 광양시 일원으로 한 것은 '광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농협으로서의 상징성 부각과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가입을 위한 것이며, 실제 조직구역은 정관에 불구하고 광양시의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일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광양농협이 지점 등 사업장을 광양시 전역에 마구잡이로 설치하지 않는 것 또한 사업구역이 사실상 조직구역과 일치함을 말해준다.

마. 공고, 통지, 최고

공고는 기관이나 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광양농협은 공고방법으로 정관 제7조(공고방법)에서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조합원에게 기별을 보내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정관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에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1절

기관과 위원회

가. 조합원과 준조합원

광양농협은 정관 제9조(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①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법 제19조 제4항은 농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하였다. 대통령령 제33321호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23년 3월 7일)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의거 광양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 광양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광양농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자격)를 정관에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시설원에 작목반의 결산총회 모습.

이와 같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광양농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광양농협은 이사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광양농협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사업 및 시설의 이용권 등 권리와 함께 출자금 납입, 경비와 손실액 부담, 사업 이용 등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다. 광양농협의 조합원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3303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광양농협은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관 제15조(준조합원)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준조합원도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과 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또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광양농협의 준조합원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2만 4666명이다.

광양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조합원			준조합원		
	남	여	계	자연인	법인	계
현황	2,235	1,068	3,303	24,623	43	24,666

나. 총회(대의원회)

광양농협의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이사회·감사·조합원대표가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소집 기준과 방법은 정관 제33~35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정관 제37조에 제시되어 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정관 제37조)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
7.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특정 사항(정관 제37조 8항 가~다 목)의 변경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0.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광양농협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의결의 효과가 발휘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 조합원의 투표로써 의결의 효과가 발휘되는 사항은 ①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②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③제57조 제1항(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④합병 등이다.

정관 제46조(대의원회)에 따르면 광양농협의 대의원회는 조합장 외에 대의원 96명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또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조합장 이외의 대의원은 2023년 9월 30일 현재 95명이며, 선출구역은 표와 같다.

광양농협 대의원 선출구역 및 대의원(95명)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산저·교촌	김용철	기두	김두식	창덕A	김덕운	산본	김수연
내우	장우철	용두	김충훈	e편한A	서홍석	남정	최천규
월파·계곡	홍자경	석정	신희수	우두	전채주	하평·상평	박옥근
신기	오경희	도청	손영태	서북2	이기현		정순자
마산	백록	월평·신도	이용모	송보A	곽대식	상운	이철권
호북	정용민	신촌	문승희	오네뜨A	하태서	추동	김재성
성북	주차엽	해창	김옥기	덕진A	김재윤	양산	장원호
서북1	박인배		이심순	동석	유상욱	외산	심옥수
신흥·동외	이용길	삼성	서종윤	서석	-	동곡	서강식
성항·목성A	김동일	세승	박인숙	명암	백기선	답곡	차정준
개성	송숙자	부흥	고경남	지곡	박상중	죽림	김용환
신성	김학동	신두	이문형	상봉	정택수	개현	이운집
인동	이인재	해두	김춘곤	당저	주진열	내천	박일규
인서	최윤호	회암	이명숙	하봉	허윤구	항월	강대준
익신	한신호	무선	배관휴	석평	이형호	대방	송상수
	박화자	예구	김향임	저곡	허만익	흥룡	서옥기
현월	김홍길	덕산	박영환	부현	주경섭	초암	라상채
초남	손병우	동주	오길중	구서·정자	이용구	석곡	김길순
역만	서동현	부영A	정기택	마시	허양봉	옥동	정순철
본정	박희덕	칠성A	박충봉	덕촌	박증기	율곡	장영채
점동	하원채	인서3	박병우	부암	한기원	덕천	성낙범
임기	박병아	오성A	서명수	하조	조시용	재동	박상국
쌍백	문부귀	예구2	윤상기	개룡	박만수	갈곡·은죽	정우기
호암·대실	정상욱	광양	허명구	신촌(봉)	오경진	선동	김종호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2023년 정기총회의 광양쌀 판매 우수 조직장 시상 모습.

다. 이사회

광양농협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회(대의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임에 비해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조합원인 이사 11명,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 감사(2명)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관 제49조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사항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 모습.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임원

임원의 종류와 자격

임원은 보수를 받으며 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직원과 비슷하나, 선출의 절차가 필요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다르다. 또 상임이사나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여 상근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비상근이며 보수도 실비변상의 성격이다.

광양농협의 임원 정수와 임기(정관 제51조, 제55조)

구분	조합장	이사			감사	계
		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정수	1명	11명	3명	14명	2명	17명
임기	4년	4년	2년	-	3년	-

※ 비조합원인 이사는 상임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그 의사결정이 농협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농협 경영은 조합원의 재산과도 결부되므로, 임원의 자격을 정관에 상세히



• 허순구 조합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인 임원은 일반 조합원과 달리 출자금 및 경제사업·신용사업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도덕성을 갖춘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2014년 11월 18일 개정된 광양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선거일공고일 현재 광양농협, 중앙회 또는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선거일공고일 이전 1년간 광양농협의 사업이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람 등을 결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사업이용실적의 기준금액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참조.

조합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현재 광양농협



• 허순구 제17대 조합장 취임식.

조합장은 제17대 허순구 조합장이며, 2023년 3월 21일 취임하였다.

광양농협의 조합장

구분	성명	취임일	비고
제17대	허순구	2023년 3월 21일	제16대부터 연임 중

이사와 감사

이사 중 조합원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원이 아닌 이사로서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외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현재 광양농협의 감사는 모두 비상임이다.

광양농협의 이사와 감사

구분	성명	
이사 (14명)	상임(1명·비조합원)	김상완
	비상임(11명·조합원)	김한호, 송종섭, 염규선, 한민섭, 허상모, 허정태, 이상영, 정성기, 이춘연, 장임기, 허항
	사외(2명·비조합원)	김숙희, 서영기
감사(2명·조합원)	강대현, 서일주	

마. 위원회 및 협의회

광양농협발전협의회

광양농협발전협의회는 퇴직한 전직 임원(이사·감사)으로 구성되어 광양농협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논의한다.

광양농협발전협의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	김윤근, 이무원, 강경휴, 조용래, 정웅기, 최창원, 주신영, 서호석, 정희주, 박예석, 김성태, 박일복, 이강욱, 정태중, 이돈채, 양옥례, 박정모, 김갑석, 추동구, 성춘이, 강윤옥, 박상님, 박동기, 배경안, 김용, 김한식, 이돈국, 정숙자, 이웅배, 조정숙, 황명자, 정용대, 박병기, 이창근, 허행구, 김형기, 허만두, 이대규, 서병석, 서종학, 이상호, 정명화, 김병택, 서동석, 박종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 선거 등 자체 선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협의체이다.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자격 심사, 등록신청서 심사 및 접수 결정,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장	서병국
부위원장	고복현
위원	오관선, 김채진, 김동문, 성춘이, 조명용, 오동석, 박상중, 조시용, 이은호, 성낙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직원 신규채용 및 징계의결, 변상 판정과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인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장	허순구
위원	한민섭, 정성기, 장임기, 허항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여신과 수신 금리 결정 등 신용사업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장	김상완
위원	송종섭, 한민섭, 허항

매취판매 리스크관리위원회

매취판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판매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농산물 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상 농산물 매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품목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매취판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	장임기

용자협의회

용자협의회는 영농자금 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이다. 광양농협의 임원은 물론

이고 외부 행정가, 독농가 등도 참여한다.

용자협의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장	김상완
위원	읍사무소 개발과장(당연직),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당연직), 광양영농회 대표(곽수홍), 농업후계자 회장(정민수), 독농가(김병택·하태홍)

조직장자격심사위원회

조직장자격심사위원회는 신규 영농회장, 부녀회장의 자격을 심사한다.

조직장자격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장	허순구
위원	김상완, 김한호, 허정태, 정성기, 장임기, 양재동, 곽수동, 박준순, 정영애, 조정옥, 김정순

소비자위원회

소비자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농협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개선 사항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생필품꾸러미 구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소비자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원	김영단, 김민자, 정갑순, 박점옥, 황순엽, 윤옥자, 오영자, 김향임, 김영남, 정순자

제1절

내부·협력조직

가. 영농회

광양농협은 1970년대부터 마을 단위로 영농회를 조직하여 농협의 내부조직으로 육성하였다. 새마을운동과 식량증산 등을 수행해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조직이 영농회이다. 광양농협은 영농회를 통해 현장과 밀착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지원은 물론이고 과학영농 전파를 위한 교육·훈련·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농협은 자연마을 단위에 맞춰 106개 영농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영농회의 주요 활동

- 종합영농과 생산 및 생산지도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 농협 전이용사업
- 농촌부업진흥사업
- 과학영농에 필요한 교육·훈련·연구·전시포사업
- 공동이용사업
-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별포장 출하사업
-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적정사업

영농회 현황(2023년도 기준)

영농회	영농회장	영농회	영농회장	영농회	영농회장	영농회	영농회장
산저	이현심	대실	백성석	창덕A3	주형로	남정	정현식
교촌	황인수	기두	조재인	E편한A	배준엽	하평	성낙원
내우	박재웅	용두	장순남	우두	유용원	상평	이찬주
월파	이영숙	석정	양봉환	서북2	양옥례	하운	이용재
계곡	정은영	도청	양재동	송보A1	윤중수	상운	변동하
신기	전원자	월평	백동인	송보A2	황진욱	추동	정충기
마산	손석모	신도	서종관	오네뜨A	김용철	양산	이기홍
호북	김영홍	신촌	배경안	덕진A	곽수홍	외산	박준순
성북	채정희	해창	김현재	동석	홍복례	동곡	성태문
서북1	박인배	삼성	박성은	서석	송만중	답곡	허향
신흥	이용길	세승	손영태	명암	박현호	죽림	한상안
동의	정홍길	부흥	김윤식	지곡	이승식	개현	박채규
성황	강정호	신두	이상휘	상봉	최성영	내천	정길재
개성	박동근	해두	김종화	당저	조규홍	항월	서정순
신성	정동림	회암	이형화	하봉	고길자	대방	박경대
목성A	나종래	무선	고석길	석평	박학기	흥룡	서재석
인동	김정숙	예구	손순자	저곡	이호진	초암	나승수
인서	박종삼	덕산	조명용	부현	최인숙	석곡	서종학
익신	한민섭	동주	신용식	구서	이상호	옥동	이성기
현월	김성태	부영A	최경순	마시	이경애	율곡	장영옥
초남	손재기	칠성A	박충봉	덕촌	정성기	덕천	주태준
억만	성봉길	인서3	김형도	부암	정흥기	재동	이건준
본정	고동석	오성A	정영기	하조	조진국	갈곡	정현순
점동	하홍태	예구2	조강순	개룡	김회현	은죽	백상선
임기	김영춘	매화A	최월순	신촌(봉)	오후근	선동	김근식
쌍백	장경완	창덕A1	권은순	정자	이상영	-	-
호암	박향규	창덕A2	이은영	산본	안두안	-	-

나. 부녀회

광양농협의 여성 내부조직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조직이 부녀회다. 영농회와 함께 자연마을별로 1970년대부터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부녀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 운영은 물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저축·보험·생활용품 등 농협 전이용에 앞장섬으로써 농촌복지 증진과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 여성들의 지위 향상 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녀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부녀회의 주요 활동

- 농촌복지 증진과 부녀회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 및 홍보
- 농도교류사업
- 농촌 생활개선사업
- 지역사회 봉사활동
- 회원의 자질향상 및 자기개발사업
- 회원의 친목 도모
- 농협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영농회장 회의 모습. 신규 영농회장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부녀회장 회의 모습. 신규 부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부녀회 현황(2023년도 기준)

부녀회	부녀회장	부녀회	부녀회장	부녀회	부녀회장	부녀회	부녀회장
산저	오춘심	대실		창덕A3		남정	양인자
교촌	박복엽	기두	김선심	E편한A		하평	정우연
내우	김임순	용두	조춘자	우두		상평	김옥순
월파		석정	조복란	서북2	김옥란	하운	김종례
계곡		도청		송보A1		상운	이상심
신기	김만순	월평	이군자	송보A2		추동	박영이
마산	이봉남	신도		오네뜨A		양산	
호북	이정심	신촌	정영희	덕진A	박종애	외산	
성북	김영단	해창	정숙자	동석	박영순	동곡	서상순
서북1	손은주	삼성		서석	손현주	답곡	유말례
신흥		세승	박이녀	명암	강선영	죽림	박정례
동외	김정란	부흥	정윤례	지곡	이옥심	개현	이선자
성황	유제순	신두	이형순	상봉	곽복수	내천	정덕엽
개성	나계자	해두	정영애	당저	이현미	항월	안순애
신성		회암		하봉		대방	정계선
목성A		무선		석평		흥룡	서록자
인동		예구	조순악	저곡		초암	
인서		덕산	정금자	부현	주정금	석곡	김선례
익신	양재희	동주	이순남	구서		옥동	현영순
현월	박연심	부영A		마시		율곡	김정순
초남	김순남	칠성A	서효숙	덕촌	조정옥	덕천	문영심
억만	이영자	인서3		부암	김다자	재동	
본정	조정옥	오성A		하조	복채옥	갈곡	김현신
점동	서인덕	예구2		개룡	서명희	은죽	
임기	윤순애	대림A		신촌	백영숙	선동	황에스더
쌍백	이영자	매화A	박귀남	정자		-	-
호암		창덕A1		산본	최은식	-	-

다. 통합작목반

통합작목반은 기존 회암작목반과 목성작목반을 통합한 조직으로, 주요 농산물은 애호박, 토마토 등이다.

통합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황인철	유상옥	19명

라. 빛그린작목반

빛그린작목반은 도청작목반과 덕산작목반을 통합한 조직으로, 주요 농산물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애호박 등이다.

빛그린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황승용	양영택	17명

마. 월평작목반

월평작목반은 광양읍 도월리에서 깻잎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대표 농산물은 깻잎, 애호박, 토마토 등이다.

월평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강정호	강정호	14명

바. 봉강작목반

봉강작목반은 봉강면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으로, 주요 농산물은 애호박, 토마토, 오이 등이다.

봉강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박만수	정택수	15명

사. 옥룡작목반

옥룡작목반은 옥룡면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이며 주요 농산물은 애호박, 화훼, 버섯 등이다.

옥룡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장입기	김형수	10명

아. 감작목반

감작목반은 옥룡면에서 감을 재배 중인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감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서병석	정길재	40명

자. 생강작목반

생강작목반은 광양읍과 봉강면 일원에서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 월례회의에 참석한 여성대학 임원들.

생강작목반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총무	총 회원 수
성명	정명화	서병국	105명

차. 여성대학총동문회

여성대학총동문회는 여성대학을 수료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대학총동문회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총 회원 수
성명	정미숙	오정임	서경숙	전건희, 김영옥	2,100명



● 행복나눔봉사단의 제주도 선진지 견학 모습.

가. 행복나눔봉사단

광양농협 행복나눔봉사단은 이전 ‘여성대학임원회’에서 2021년 ‘행복나눔봉사단’으로 변경되었다. 농번기 일손부족 극복을 위한 농산물 수확 지원,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김장김치·쌀 나눔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광양농협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복나눔봉사단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총 회원 수
성명	정미숙	오정임	서경숙	전건희, 김영옥	100명

타. 광양농협 노동조합

광양농협 노동조합은 2015년 2월 25일 설립되었으며 민주노총 광주전남사무

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의 조직이다. 광양농협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광양농협 발전을 도모하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양농협 노동조합 임원(2023년도 기준)

구분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감사	상조회장	집행부	총 조합원
성명	강대영	추지울	박주호	이예지	곽진경 이병길	이정미	박지나 정강목 손정언 문병일	118명

제2절

光陽

사업과 사업장

1973-2023

광양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통해 이뤄지며,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 로컬마트,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자재 종합유통센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이 있다.

제2절

광양농협의 사업

가. 사업 수행의 목적

광양농협은 직원을 채용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며,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은 또 광양농협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업에서 창출한 수



● 광양농협은 다양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쏟은 결과 종합업적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익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때 조직 역량 집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조합원을 위한 실익지원과 고객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정관상 사업의 종류

광양농협은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관에 제시해 놓았다.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광양농협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근무가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듯이 사업(업무)의 장소 또한 마을회관·농경지·시장 등에서도 이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무소는 사무실 등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률적 공간이자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광양농협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항에 제시된 사업의 종류

1. 교육·지원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나.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바.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육묘장·연구소의 운영
-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 아.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 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 복지후생사업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장제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 유희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직접사업

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농업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 조합원이라는 특정인들의 인적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한다. 그러나 농협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광양농협 역시 정관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를 통해 비조합원도 정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교육·지원사업,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등 경제사업, 내국환·어음할인 등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사업장

가. 본점

광양농협 본점은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에 소재한다. 1990년 신축한 종합회관으로서 3층 건물인 본관에 조합장실·상임이사실·회의실·365코너·구내식당 등이 있다. 임원 외에 직원 부서로는 경영관리팀, 감사·채권팀, 지도·유통팀, 신용팀이 있고 직원 중에서 디지털홍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광양농협 본점은 광양시 동부 지역의 경제와 금융 허브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본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상호금융(잔액)		보험료	경제사업		
	예수금	대출금		구매	판매	가공·기타
실적	2,408	2,833	50	16	20	55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지번 : 광양읍 목성리 710-34)					
소통경로	전화 : 061-760-2233~8 / 홈페이지 : www.광양농협.kr					

2023년 9월 30일 현재 본점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조합장				상임이사			소계
	1				1			
인원								2
부서	상무	팀장	과장	과장보	과장대리	계장	주임	소계
경영관리팀	1		2		3	1	4	11
감사·채권팀	1			1	1			3
지도·유통팀	1		1	1	2		1	6
신용팀		2	2	4	2	1		11



광양농협 본점을 길 건너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본점 1층 내부.



김상완 상임이사의 집무 모습.



경영관리팀 박준행 상무.



경영관리팀 직원들의 근무 모습.



경영관리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감사·채권팀 신종영 상무.



감사·채권팀 직원들의 근무 모습.



감사·채권팀 직원이 업무를 상의하고 있다.





지도·유통팀 배승호 상무.



APC 앞에 선 지도·유통팀 직원들의 당당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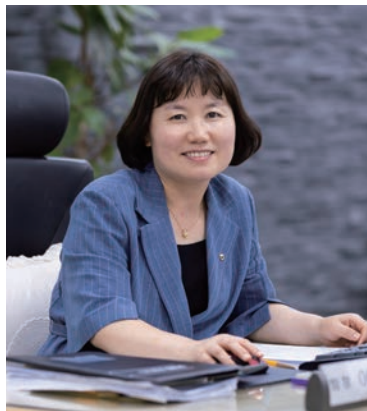
신용팀 직원들의 밝고 친절한 고객 응대.



조합원과 고객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신용팀 직원들.



2023년 준공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신용팀 이정미 팀장.



신용팀 직원들의 업무 모습.



허순구 조합장을 비롯한 광양농협 본점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손가락하트에 담아내고 있다.

나.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병해충상담센터

광양농협은 2003년 6월 2일 경제사업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주유소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2004년 9월 1일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 2월 7일에는 병해충상담센터를 개점하였다. 광양농협의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는 자재센터·농기계센터·주유소가 함께 운영됨으로써 조합원의 적기 영농 지원 및 면세유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병해충상담센터는 농약 공급과 안전사용 등의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2022년 말 기준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병해충상담센터 현황

구분	규모			연간 매출액 (백만 원)
	매장 면적(m ²)	저장 용량(리터)	주유기(대)	
자재센터	908.85	-	-	2,767
농기계센터	53.41	-	-	244
주유소	1,160.24	400,000	16	11,893
병해충센터	59.52	-	-	457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1(지번 : 광양읍 인서리 466-2) ※ 병해충센터 : 광양읍 신재로 10(지번 : 광양읍 목성리 710-34)			
소통경로	전화 : 061-762-6326(자재센터) 061-763-3530(농기계센터) 061-762-4252(주유소) 061-760-2217(병해충상담센터)			

2023년 9월 30일 현재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병해충상담센터 인원

(단위 : 명)

구분	소장	과장	계장	기능과장 대리	업무계장	기능계장	주임	계
자재센터	1	1	1				1	4
농기계센터				1		1		2
주유소					1	1	6	8
병해충센터							1	1

※ 소장은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총괄, 과장은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주무임.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에는 자재센터·농기계센터·주유소가 모여 있다.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구상민 소장.

진열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자재센터 내부.



자재센터 직원들이 자재를 진열하고 있다.



자재센터는 조합원들의 자재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농기계센터 내부 모습.



농기계센터 기사들이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주유소 전경.



주유소 사무실 모습.



유류 공급 도중 '엄지 척'을 해 보이는 주유소 직원.



주유소 직원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병해충상담센터 상담원이 약제를 살펴보고 있다.



병해충상담센터 직원과 농약회사 직원이 약제 납품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직원들 모습.



다. 미곡종합처리장

광양농협은 2007년 12월 11일 세풍간척지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하였다. 산물 상태의 미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반입에서부터 선별, 계량, 품질검사, 건조, 저장, 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갖춘 광양농협은 2019년 12월 12일에는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6기를 준공함으로써 수매 확대를 통한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광양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단위 : 톤)

구분	도정 능력		건조저장 능력		주요 생산 브랜드
	일일	연간	일일건조	총저장	
현황	20	4,000	150	4,000	선사인광양좋은쌀, 하늘이내린쌀, 친환경으로재배한안심쌀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해창길 8-26(지번 : 광양읍 세풍리 1264)				
소통경로	전화 : 2061-763-6753 / 팩스 : 061-763-6743				

2023년 9월 30일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인원

(단위 : 명)

구분	공장장	주임	소계
인원	1	3	4

- 미곡종합처리장 허남열 공장장.
- 광양읍 세풍리의 미곡종합처리장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들녘.



- 미곡종합처리장의 광양쌀 상차작업 모습.
- 미곡종합처리장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 모습.
- 허남열 공장장과 직원이 '선사인 광양좋은쌀' 최고를 외치고 있다.

라. 로컬마트 본점

광양농협은 1970~1990년대에 연쇄점을 운영하여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생활물자를 공급했으며, 2005년 7월 15일에는 하나로마트를 신축 개점하여 지역의 쇼핑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2년도 하나로마트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 10월 18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한 로컬마트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싱싱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로컬마트 본점 현황

구분	규모(m)				연간 매출액 (백만 원)
	매장	물류창고	편의시설·기타	계	
현황	1,429	731	436	2,596	20,738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지번 : 광양읍 목성리 710-34)				
소통경로	대표전화 : 061-760-2290				

2023년 9월 30일 현재 로컬마트 본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장장	부장	업무계장	주임	소계
인원	1	1	2	28	32



로컬마트 본점 서환원 사장.



로컬마트 본점 외부 전경.



공산팀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농협의 가공식품이다.



수산팀의 엄지 척,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축산팀의 한우 사랑.



로컬마트 본점의 내부 모습.



관리팀의 사무실 업무 모습.



즐거운 쇼핑 마무리는 계산팀에서.



로컬마트 본점 직원들이 "광양농협 로컬마트 최고"를 외치고 있다.



농산팀의 광양쌀 자랑.



농산팀에 수박 한 덩어리는 깃털처럼 가볍다.



마. 로컬마트 용강점

로컬마트 용강점은 하나로마트로 신축되어 2014년 1월 20일 용강지점과 함께 개점하였으며, 2019년 10월 18일 로컬마트 본점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로컬마트 용강점으로 개편하였다. 용강동 신도시 초입에 자리한 로컬마트 용강점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소비자들에게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쇼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말 기준 로컬마트 용강점 현황

구분	규모(m)				연간 매출액 (백만 원)
	매장	물류창고	편의시설·기타	계	
현황	1,067	-	330	1,397	7,619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214(지번 : 광양읍 용강리 856-1)				
소통경로	대표전화 : 061-762-5790				

2023년 9월 30일 현재 로컬마트 용강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점장	부장	업무계장	주임	소계
인원	1	1	1	14	17

● 로컬마트 용강점
함형기 점장.

●● 로컬마트 용강점
바깥 모습.



● 로컬마트 용강점은 진열대가 깔끔하고 쇼핑 동선도 편리하다.



● 농산팀이 외칩니다. "광양농협은 참외가 참해!"



● 공산팀은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임을 강조한다.



● 수산팀의 한 끼 유혹.



● 축산팀의 갈등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그것이 문제라다!"



치명적인 미소로 응대하는 계산팀.



관리팀의 업무 모습.

로컬마트 용강점 직원들의 고백 "농업인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광양농협은 2022년 11월 21일 도월리 부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여 2023년 6월 27일 준공하였다.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의 핵심 시설인 APC를 갖추에 따라 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이 힘써 생산한 매실·밤·호박·토마토 등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예냉, 저장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하처를 다원화하는 마케팅 기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

단위 : m(평)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공일 : 2022년 11월 21일 준공일 : 2023년 6월 27일
면적	7,992 (2,421.8)	1,321.80 (400.5)	1,727.04 (523.3)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지번 : 광양읍 도월리 550-6)			
소통경로	대표전화 : 061-761-4780			

도월리에 세워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모습.





지도·유통팀 직원들의 '더 큰 농협! 더 행복한 농촌!'을 향한 다짐.

사. 봉강지점

광양농협은 1998년 4월 1일 봉강농협을 흡수합병하고 봉강지점으로 조정하였다. 봉강면 일원의 조합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강지점은 저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봉강지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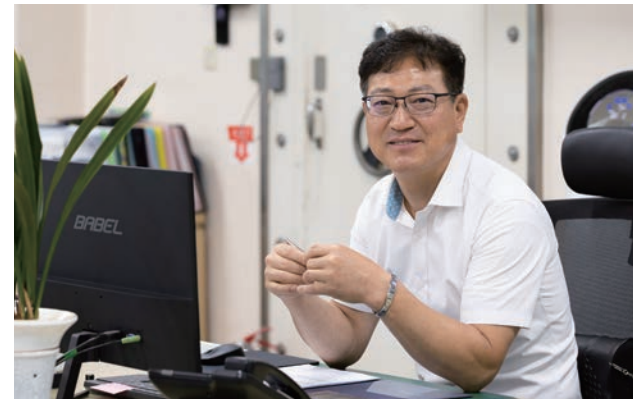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경제사업 매출액	하나로마트 매출액
	예수금	대출금			
실적	36,755	27,080	916	1,874	319
소재지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39(지번 : 봉강면 봉당리 465)				
소통경로	전화 : 061-762-0166(지점) 061-762-6678(하나로마트)				

2023년 9월 30일 현재 봉강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과장대리	계장보	주임	소계
인원	1	1	3	1	1	1	8



봉강지점 김장현 지점장.



밖에서 바라본 봉강지점.



봉강지점 내부 모습.



봉강지점은 고령 조합원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봉강지점 직원들의 업무 협의.



● 봉강지점의 미니 하나로마트.



● 규모는 작아도 큰 정이 오가는 미니 하나로마트.



● 조합원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저유소.

● 봉강지점 전체 직원.



아. 옥룡지점

광양농협은 2006년 4월 24일 옥룡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옥룡농협을 흡수 합병하여 옥룡지점으로 조정하였다. 옥룡지점은 하나로미니, 주유소, 병해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옥룡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경제사업 매출액	주유소 매출액	하나로마트 매출액
	예수금	대출금				
실적	64,148	34,954	1,006	5,549	3,130	578
소재지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7(지번 : 옥룡면 운평리 271-2)					
소통경로	전화 : 061-761-7101(지점) 061-798-4671(하나로미니)					

2023년 9월 30일 현재 옥룡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팀장	과장	과장보	과장 대리	계장	기능과장 대리	업무 계장	주임	소계
인원	1	1	1	2	1	1	2	1	3	13

● 옥룡지점 노태호 지점장.
● 옥룡지점 전경.





옥룡지점 내부 모습.



병해충상당실 모습.



하나로마트



옥룡지점의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 응대.



영농철에는 손각을 다루는 농기계 수리.



옥룡지점 주유소.



옥룡지점 주유소는 주유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조합원님 파이팅! 옥룡지점 파이팅!"



자. 중부지점

중부지점은 1990년 2월 20일 개설하였다. 중부지점은 광양의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읍내리 일원의 조합원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부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예수금	대출금	
실적	58,260	51,929	805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28(지번 : 광양읍 읍내리 364-9)		
소통경로	전화 : 061-762-5720 팩스 : 061-762-5722		

2023년 9월 30일 현재 중부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과장대리	업무계장	소계
인원	1	1	1	2	1	6

● 중부지점 오경현 지점장.

●● 중부지점 전경.



● 중부지점 내부 모습.



● 중부지점 직원들의 업무 협의.

● “광양농협 중부지점에 오신 걸 전 직원이 환영합니다!”



차. 북부지점

북부지점은 1990년 10월 13일 개설하였다. 광양시청 제2청사 등 관공서와 아파트단지 인근 고객들에게 광양농협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말 기준 북부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예수금	대출금	
실적	85,806	46,579	1,091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97(지번 : 광양읍 칠성리 991-9)		
소통경로	전화 : 061-762-5740 팩스 : 061-762-5742		

2023년 9월 30일 현재 북부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과장대리	계장보	업무계장	주임	소계
인원	1	1	1	1	1	1	1	7

- 북부지점 이광자 지점장.
- 북부지점 외관.



북부지점 내부 모습.

“이번 달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직원들의 업무 협의.



“조합원님과 고객님께 북부지점 직원들의 마음을 보냅니다.”

카. 서부지점

서부지점은 1992년 11월 30일 개점하였다. 덕례리를 비롯한 광양읍 서부 지역의 조합원과 고객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서부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예수금	대출금	
실적	80,593	50,711	684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73(지번 : 광양읍 덕례리 1726-14)		
소통경로	전화 : 061-762-5730 팩스 : 061-762-5732		

2023년 9월 30일 현재 서부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계장보	주임	소계
인원	1	1	2	1	2	7

- 서부지점 정준기 지점장.
- 서부지점 바깥 모습.



서부지점 내부 모습.



서부지점의 고객 응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서부지점 전 직원이 모여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있다.



타. 서천지점

서천지점은 2012년 11월 3일 개점하였다. 서천이 감도는 구산리에 소재하며, 광양여중·여고를 비롯한 광양읍 시가지 서부 지역의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말 기준 서천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예수금	대출금	
실적	53,306	57,879	574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28(지번 : 광양읍 구산리 843-1)		
소통경로	전화 : 061-762-5710 팩스 : 061-762-5719		

2023년 9월 30일 현재 서천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계장보	업무계장	소계
인원	1	1	1	2	1	6

- 서천지점 박순임 지점장.
- 서천지점 외관.



서천지점 내부 모습.

서천지점의 빈틈 없는 고객 응대.

서천지점 직원들 모습.



파. 용강지점

용강지점은 지점 중 가장 늦은 2014년 1월 15일 개점하였다. 목성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로컬마트 용강점과 함께 금융과 쇼핑의 원스톱 제공이 기대된다.

2022년 말 기준 용강지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상호금융 잔액		보험료
	예수금	대출금	
실적	44,562	53,300	775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214(지번 : 광양읍 용강리 856-1)		
소통경로	전화 : 061-762-5780 팩스 : 061-762-5785		

2023년 9월 30일 현재 용강지점 인원 (단위 : 명)

구분	지점장	과장	과장보	과장대리	계장보	소계
인원	1	1	1	2	1	6

- 용강지점 성치현 지점장.
- 용강지점은 로컬마트 용강점과 같은 건물에 개점해 금융업무와 쇼핑이 편리하다.



용강지점 내부 모습.



용강지점 직원들의 업무 협의.

직원들이 “용강지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 창고

창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비롯해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장소이다. 창고는 농산물의 변질을 방지하고 쥐나 해충을 막아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보유창고

창고명	취득일자	규모(㎡)
도월 농산물 집하장	1996. 11. 25.	178
세풍창고	1998. 10. 28.	488
세풍창고	1975. 06. 02.	330
세풍창고	1979. 05. 28.	122
인동리 신축창고	2009. 01. 06.	434
미곡종합처리장 미곡건조창고	2007. 12. 26.	265
미곡종합처리장 일반창고	2019. 03. 08.	227
미곡종합처리장 미곡건조창고	2019. 03. 08.	164

거. 차량

광양농협은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집과 원격지 출하 및 배송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보유차량

구분	차종 및 용도	취득연도
본점	제네시스(업무용)	2023
	중형버스(업무용)	2006
	다마스(업무용)	2012
	스타렉스(업무용)	2013
	카니발(업무용)	2019
	스타리아(업무용)	2023
	포터(업무용)	2010

구분	차종 및 용도	취득연도
본점	포터(업무용)	2022
	7.5톤 카고(업무용)	2010
미곡종합처리장	포터왕바디(쌀 배달용)	2015
	메카트릭(쌀 배달용)	2019
	봉고왕바디(쌀 배달용)	2022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9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9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2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7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8
	포터(영농자재 배달용)	2013
	포터(영농자재 배달용)	2016
	포터왕바디(농기계 수리용)	2014
	포터(농기계 수리용)	2015
	마이티3.5톤(농기계 수리용)	2015
	포터(병해충상담센터용)	2020
로컬마트(본점)	포터(배송용)	2021
	포터냉동탑차(배송용)	2018
	포터냉동탑차(배송용)	2022
로컬마트(용강점)	마이티왕바디(배송용)	2016
	포터2 냉동탑차(배송용)	2022
봉강지점	포터2 냉동탑차(배송용)	2013
	포터(영농자재 배달용)	2018
봉강지점	포터(영농자재 배달용)	2022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2
	포터(영농자재 배달용)	2019
옥룡지점	포터2(영농자재 배달용)	2023
	1톤 왕바디(영농자재 배달용)	2010
	홀로리(유류 배달용)	2019
중부지점	홀로리(유류 배달용)	2009
	다마스(업무용)	2012
북부지점	다마스(업무용)	2012
서부지점	레이(업무용)	2023
서천지점	레이(업무용)	2022
용강지점	다마스(업무용)	2013

부록 자료와 도표

◆ 농협 마크 / 광양농협 기

◆ 농협의 노래

◆ 광양농협 조직도

◆ 각종 명단

◆ 수상 명세

◆ 사업실적 통계

◆ 언론 지면에 비친 광양농협

◆ 편찬 후기

농협 마크



◆ 제정 일자 : 1961년 9월 11일

◆ 마크의 뜻

- 윗부분 '▼' 모양은 '농'자의 'ㄴ'을 변형한 것으로 싹과 벼를 의미하며 농업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
- 아랫부분은 '협'자의 'ㅇ'을 변형한 것으로 원만과 돈을 의미하며 협동단결을 상징.
- 마크 전체는 '협'자의 'ㅎ'을 변형한 것으로 'ㄴ'+ 'ㅎ'은 농협을 나타내는데, 향아리에 쌀이 가득 담겨 있는 형상을 표시하며 농가경제의 융성한 발전을 표징.

광양농협 기



농협의 노래

◆ 제정 일자 : 1961년 9월 29일

◆ 작사 : 이은상 작곡 : 김성태

협차계

강 산 도 아 름 답 다 기 름 진 터 전
대 대 로 누 - 려 갈 생 활 의 터 전

여 기 서 나 고 자 란 정 든 내 고 - 장
불 리 자 우 리 살 립 우 리 손 으 -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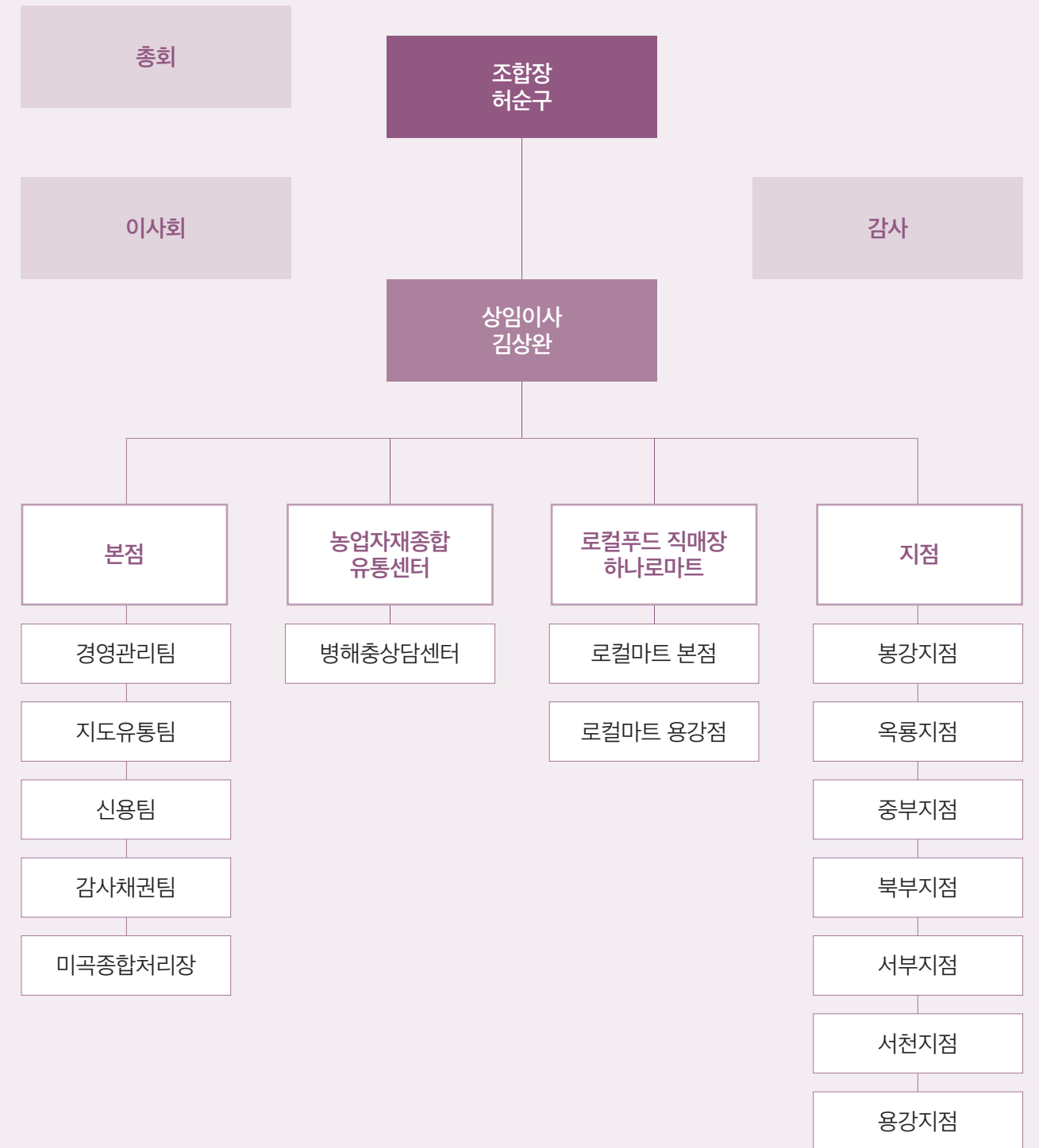
이 땅 은 피 땀 고 인 농 민 의 나 - 라
웃 음 과 희 망 속 에 커 가 는 마 - 을

우 리 는 주 인 이 다 힘 차 계 살 자
이 루 고 야 말 - 리 라 문 화 의 낙 원

(후렴)
협 동 의 깃 발 아 래 한 데 뭉 치 - 자

농 촌 이 살 아 야 만 나 라 가 산 다

광양농협 조직도 (2023. 09. 30. 기준)



광양농협의 구성원 (2023. 09. 30. 기준)

구분	임원				직원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장	이사	감사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현황	1	14	2	17	85	66	151	3,283	25,360

역대 조합장 및 재임 기간과 주요 업적

구분	성명	취임일	퇴임(사임)일	주요 업적
제1대	허동열	1973. 06. 16.	1973. 09. 15.	이동조합 합병 기반 구축
제2대	길호용	1973. 09. 20.	1975. 06. 20.	사무소 이전 새마을운동 추진
제3~5대	정귀남	1975. 06. 21.	1982. 02. 08.	봉사조합 선정 농가소득사업 추진
제6~8대	길창호	1982. 02. 09.	1990. 03. 20.	명칭을 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 본점 종합청사 신축 이전
제9대	최규관	1990. 03. 21.	1994. 03. 20.	첫 직선 조합장 북부·서부지소 설치
제10~13대	이덕재	1994. 03. 21.	2010. 03. 21.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준공 봉강·옥룡농협 합병
제14~15대	김봉안	2010. 03. 22.	2019. 03. 20.	총화상 수상 하나로마트 용강점 신축 개점
제16~17대	허순구	2019. 03. 21.	현재 재임	산업포장 수훈, 3년 연속 종합업적 전국 1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

이사·감사 재임 명세 (가나다순, 청색 표기는 당시 신임 임원)

구분	이사	감사	비고
1973. 06. 16.	김채선 박남주 박성길 최규관	신인호 정정기	
1975. 02. 08.	박남주 박인규 최규관 한상무	신인호 박점옥	
1977. 01. 31.	박남주 박인규 최규관 한상무	신인호 하운호	
1978. 01. 28.	김채선 김판석 박남주 최규관	신인호 하운호	
1981. 01. 25.	김채선 김판석 박남주 최규관	길창호 황치문	
1981. 07. 28.	김채선 김판석 김희중 박남주 박형도 최규관	길창호 황치문	이사 정수 확대
1981. 01. 24.	김채선 김판석 김희중 박형도 손병완 하운호	길창호 황치문	
1982. 05. 26.	김채선 김판석 김희중 박형도 손병완 하운호	정병하 황치문	
1983. 01. 22.	김채선 김판석 김희중 박형도 손병완 하운호	정병하 최규관	
1983. 08. 30.	김채선 김판석 김희중 송동수 이경한 하운호	정병하 최규관	
1984. 01. 27.	김경호 김완수 김희중 송동수 이경한 하운호	정병하 최규관	
1987. 01. 27.	김채선 김희중 장종식 정현승 최규관 하운호	송동수 정병하	
1988. 02. 26.	김영배 김채선 김희중 장종식 정현승 하운호	송동수 정병하	
1989. 04. 01.	김영배 김채선 김희중 장종식 정현승 하운호	김상호 이무원	
1990. 01. 20.	김영배 김윤근 김희중 서백수 장세균 정태기	김상호 이무원	
1994. 01. 20.	강경휴 김영수 김윤근 서백수 장세균 조용래	김상호 이무원	
1995. 01. 20.	강경휴 김영수 김윤근 서백수 장세균 정웅기 조용래 최죽봉	김상호 이무원	이사 정수 확대
1998. 04. 17.	강경휴 김영수 김윤근 박병기 박봉현 서광석 유영대 이창근 조용래 최창원	서백수 이무원	이사 정수 확대
2001. 04. 17.	강경휴 김영수 김윤근 박병기 박봉현 서광석 유영대 이창근 조용래 최창원 주신영(사외)	서효석 정희주	사외이사 도입
2002. 04. 17.	강경휴 김성태 박병기 박예석 서광석 유영대 이무원 이창근 조용래 최창원 주신영(사외)	서효석 정희주	
2004. 01. 18.	강경휴 김성태 박병기 박예석 서광석 유영대 이무원 이창근 조용래 최창원 박일복(사외)	서효석 정희주	
2005. 07. 01.	김봉안(상임) 강경휴 김성태 박병기 박예석 서광석 유영대 이무원 이창근 조용래 최창원 박일복(사외)	서효석 정희주	상임이사 도입

이사·감사 재임 명세 (가나다순, 청색 표기는 당시 신임 임원)

구분	이사	감사	비고
2006. 04. 17.	김봉안(상임) 김성태 서광석 이강욱 이돈채 이창근 정태중 최창원 허행구 박일복(사외)	서효석 정희주	
2006. 05. 06.	김봉안(상임) 김성태 서광석 서병석 서종학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이창근 정태중 최창원 허행구 박일복(사외)	서효석 정희주	
2007. 01. 01.	김봉안(상임) 김성태 서광석 서병석 서종학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이창근 정태중 최창원 허행구 박일복(사외) 양옥례(사외)	서효석 정희주	
2008. 04. 24.	김봉안(상임) 김성태 서광석 서병석 서종학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이창근 정태중 최창원 허행구 박일복(사외) 양옥례(사외)	박정모 정희주	
2009. 12. 04.	김성태 서광석 서병석 서종학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이창근 정태중 최창원 허행구 박일복(사외) 이기형(상임)	박정모 정희주	
2010. 04. 17.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형기 박병기 서광석 서병석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정명화 추동구 허정태	박정모 정희주	
2011. 04. 24.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형기 박병기 서광석 서병석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정명화 추동구 허정태	박정모 허만두	
2012. 11. 30.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형기 박병기 서광석 서병석 이강욱 이돈채 이상호 정명화 추동구 허정태 강윤욱(사외) 성춘이(사외)	박정모 허만두	
2014. 04. 17.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강윤욱(사외) 성춘이(사외)	배경안 허만두	
2014. 11. 30.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강윤욱(사외) 박상남(사외)	배경안 허만두	
2016. 01. 22.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박상남(사외) 이돈국(사외)	배경안 허만두	
2017. 01. 19.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이돈국(사외) 정숙자(사외)	배경안 허만두	
2017. 04. 17.	이기형(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이돈국(사외) 정숙자(사외)	배경안 정용대	
2018. 03. 30.	임창택(상임) 김갑석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형기 박동기 서동석 이강욱 이대규 정명화 추동구 이돈국(사외) 정숙자(사외)	배경안 정용대	
2018. 04. 17.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용원 김 웅 김한식 김한호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이돈국(사외) 정숙자(사외)	배경안 정용대	
2018. 08. 10.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이돈국(사외) 정숙자(사외)	배경안 정용대	

이사·감사 재임 명세 (가나다순, 청색 표기는 당시 신임 임원)

구분	이사	감사	비고
2019. 01. 24.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이돈국(사외) 조정숙(사외)	배경안 정용대	
2020. 04. 17.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이돈국(사외) 조정숙(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1. 01. 27.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이돈국(사외) 황명자(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2. 01. 22.	임창택(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서영기(사외) 황명자(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2. 03. 30.	김상완(상임) 김병택 김 웅 김한식 김한호 박종대 서동석 송종섭 이대규 이상영 이웅배 허정태 서영기(사외) 황명자(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2. 04. 17.	김상완(상임) 김한호 송종섭 염규선 이상영 이춘연 장임기 정성기 한민섭 허상모 허정태 허 항 서영기(사외) 황명자(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3. 01. 27.	김상완(상임) 김한호 송종섭 염규선 이상영 이춘연 장임기 정성기 한민섭 허상모 허정태 허 항 김숙희(사외) 서영기(사외)	강대현 정용대	
2023. 04. 17.	김상완(상임) 김한호 송종섭 염규선 이상영 이춘연 장임기 정성기 한민섭 허상모 허정태 허 항 김숙희(사외) 서영기(사외)	강대현 서일주	

임원 정수와 명단 (2023. 09. 30. 기준)

구분	성명
조합장(1명)	허순구
이사 (14명)	상임 (1명·비조합원) 김상완
	비상임 (11명·조합원) 김한호 송종섭 염규선 한민섭 허상모 허정태 이상영 정성기 이춘연 장임기 허항
	사외 (2명·비조합원) 김숙희 서영기
감사 (2명·조합원)	강대현 서일주

부서(사업장)별 직원 명단 (2023. 09. 30. 기준)

본점 (31명)	[경영관리팀 11명] 박준행(상무) 이노영·강준영(과장) 정성학(과장대리) 정해인·박동준(계장) 정성화·양진영·한지은·우민희(주임) 김은영(과장대리·출산휴가) [감사채권팀 3명] 신종영(상무) 윤태모(과장보) 추지율(과장대리) [지도유통팀 6명] 배승호(상무) 정선화(과장) 이병길(과장보) 강상원·전도현(과장대리) 유예린(주임) [신용팀 11명] 이정미(신용팀장) 김은숙(수신팀장) 서은주·정정미(과장) 공연희·박주호·이문성·김재현(과장보) 이예지·정진영(과장대리) 임찬미(계장보)
농업자재종합유통센터 (14명)	구상민(소장) 김정호(과장) 강선호(계장) 권재백(기능과장대리) 추근구(업무계장) 이동근·박은석(기능계장) 이창호·김종철·정현재·박현영·이경림·채효석·한동관(주임)
병해충상담센터 (1명)	강준원(주임)
미곡종합처리장 (4명)	허남열(공장장) 박두현·임성미·박희원(주임)
로컬마트 본점 (32명)	서환원(장장) 김영호(부장) 이정인·손정언(업무계장) 이재희·김숙경·심미자·박교윤·문병일·이경애·김지은·김미숙·강은희·이경숙·신향숙·김수지·박지연·박은옥·공선영·이신현·최준용·김수홍·김숙희·조영심·신애리·김경희·배복현·박명옥·기성연·주현재·정인혁·이채환(주임)
로컬마트 용강점 (17명)	함형기(점장) 허인찬(부장) 박문기(업무계장) 김민화·박정화·임정순·이영기·김채영·채순희·이승은·곽은화·서미미·김현숙·박경하·유지용·정춘심·양경민(주임)
봉강지점 (8명)	김장현(지점장) 김경모(과장) 이성원·정강목·곽진경(과장보) 서주용(과장대리) 박송이(계장보) 안남숙(주임)
옥룡지점 (13명)	노태호(지점장) 김군하(팀장) 김복심(과장) 이수옥·서효민(과장보) 차미혜(과장대리) 마은석(계장) 이돈수·김형종(기능과장대리) 백종태(업무계장) 정영진·황수현·서금정(주임)
중부지점 (6명)	오경현(지점장) 양승희(과장) 김선일(과장보) 장미영·양아람(과장대리) 박미덕(업무계장)
북부지점 (7명)	이광자(지점장) 김해강(과장) 서태희(과장보) 박승원(과장대리) 손유림(계장보) 이주희(업무계장) 권미소(주임)
서부지점 (7명)	정준기(지점장) 강지원(과장) 오인경·전선화(과장보) 강상아(계장보) 서은우·위정현(주임)
서천지점 (6명)	박순임(지점장) 박지나(과장) 손태정(과장보) 남도현·이수현(계장보) 서미라(업무계장)
용강지점 (6명)	성치현(지점장) 강대영(과장) 차숙진(과장보) 정현배·방수연(과장대리) 조유진(계장보)

선출구역별 대의원 명단 (2023. 09. 30. 기준)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선출구역	대의원
산저·교촌	김용철	기두	김두식	창덕A	김덕운	산본	김수연
내우	장우철	용두	김충훈	e편한A	서홍석	남정	최천규
월파·계곡	홍자경	석정	신희수	우두	전채주	하평·상평	박옥근
신기	오경희	도청	손영태	서북2	이기현		정순자
마산	백록	월평·신도	이용모	송보A	곽대식	상운	이철권
호북	정용민	신촌	문승희	오네뜨A	하태서	추동	김재성
성북	주차엽	해창	김옥기	덕진A	김재윤	양산	장원호
서북1	박인배		이심순	동석	유상욱	외산	심옥수
신흥·동외	이용길	삼성	서종윤	서석	-	동곡	서강식
성황·목성A	김동일	세승	박인숙	명암	백기선	답곡	차정준
개성	송숙자	부흥	고경남	지곡	박상중	죽림	김용환
신성	김학동	신두	이문형	상봉	정택수	개현	이운집
인동	이인재	해두	김춘곤	당저	주진열	내천	박일규
인서	최윤호	회암	이명숙	하봉	허윤구	항월	강대준
익신	한신호	무선	배관휴	석평	이형호	대방	송상수
	박화자	예구	김향임	저곡	허만익	흥룡	서옥기
현월	김홍길	덕산	박영환	부현	주경섭	초암	라상채
초남	손병우	동주	오길중	구서·정자	이용구	석곡	김길순
억만	서동현	부영A	정기택	마시	허양봉	옥동	정순철
본정	박희덕	칠성A	박충봉	덕촌	박증기	울곡	장영채
점동	하원채	인서3	박병우	부암	한기원	덕천	성낙범
임기	박병아	오성A	서명수	하조	조시용	재동	박상국
쌍백	문부귀	예구2	윤상기	개룡	박만수	갈곡·은죽	정우기
호암·대실	정상욱	광양	허명구	신촌(봉)	오경진	선동	김종호

새농민상 수상자 명세

지역	수상 부부	수상 시기 (본상)	주소	주작목	농장명
광양	박정모 백점순	1994. 06. (1997 협동)	광양읍 읍성길	토마토	대아농장
봉강	박희봉 오복례	1996. 06.	봉강면 부저리	화훼 (덴파레)	일봉난원
옥룡	홍우원 강봉악	1996. 11.	옥룡면 죽천리	과수, 축산 (한우)	백산농장
옥룡	장임기 김선심	2001. 11.	옥룡면 산본길	애호박	백운농장
광양	백기인 전순희	2003. 05.	광양읍 도월리	갯잎	백운농장
광양	김영식 박향란	2008. 09.	광양읍 인서리	애호박	영식농장
옥룡	곽동철 조윤희	2012. 04.	광양시 광장로	화훼 (알스트로메리아)	
봉강	송만중 윤윤애	2014. 12.	봉강면 매천1길	애호박	밀레농장
봉강	박상중 이자옥	2017. 11.	봉강면 지실길	화훼 (알스트로메리아)	다원농장
옥룡	오길석 이양숙	2019. 09.	옥룡면 청평길	조경수	금실농원
봉강	정택수 이재순	2021. 05.	봉강면 비봉길	딸기 애호박	건강플러스농원
광양	강정호 임현정	2023. 02.	광양읍 목성1길	갯잎	서광농원

광양농협 수상 명세

일자	내용	수여자
1991. 02. 21.	복지농협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1. 02. 21.	친절봉사상 금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2. 02. 14.	종합업적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3. 09. 30.	예수금 300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5. 04. 23.	농민신문 보급부수 우수	농민신문사장
1997. 02. 12.	종합업적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8. 02. 13.	종합업적 전국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9. 02. 11.	종합업적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1999. 03. 23.	선도복지농협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0. 03. 22.	전남 농수산물 백만불탑	전남도지사
2000. 04. 12.	클린농협 달성	농협 신용대표이사
2001. 02. 22.	농산물유통개척 대상	농민신문사장
2001. 12. 31.	클린농협 인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2. 08. 14.	농민신문 보급부수 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02. 11. 27.	공제ACE조합 선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3. 12. 22.	대출 신상품 특별추진 우수	농협 신용대표이사
2005. 10. 20.	출자증대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6. 02. 23.	2005 종합업적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6. 02. 28.	자기자본증대 최우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7. 06. 01.	농산물 품질경영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7. 08. 01.	농민신문 보급부수 최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08. 02. 28.	2007 종합업적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9. 02. 26.	2008 종합업적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09. 02. 26.	자기자본증대 최우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광양농협 수상 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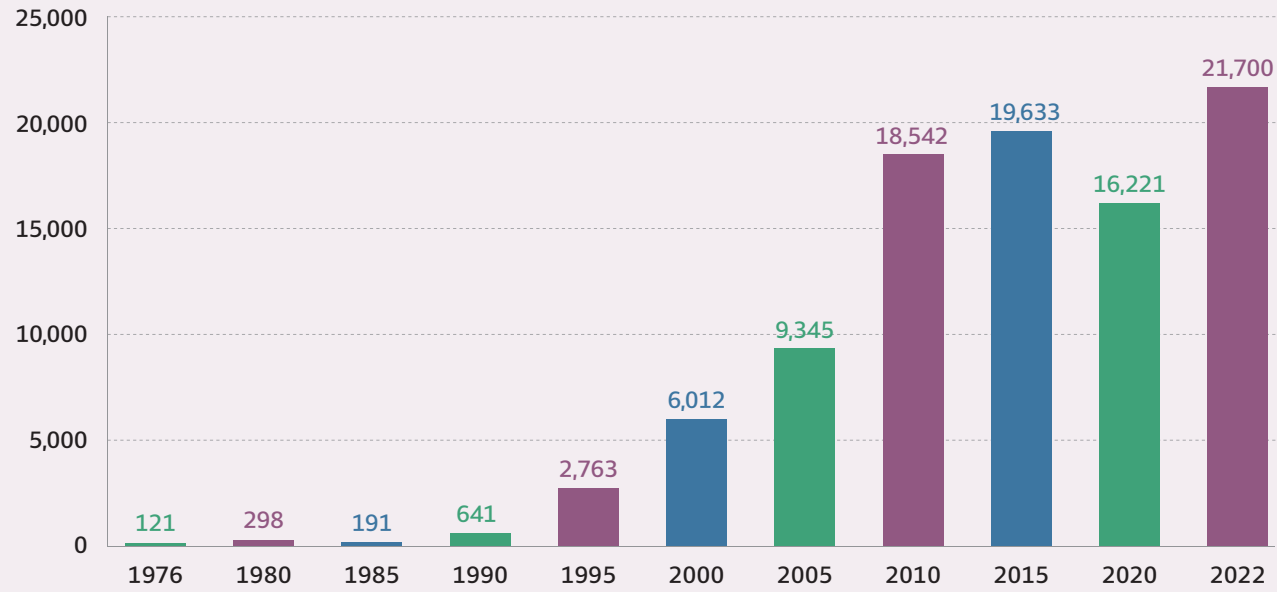
일자	내용	수여자
2009. 03. 02.	2008 농산물유통개척 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0. 04. 05.	상호금융예수금 1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1. 02.	2010 종합업적 농촌형1그룹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1. 02.	2010 상호금융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1. 02. 10.	출자증대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1. 12. 31.	주유소사업 150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2. 02.	2011 상호금융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2. 02. 21.	2011 종합업적 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2. 07. 26.	상호금융대출금 2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 01. 22.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 02.	2012 상호금융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 03. 21.	2012 종합업적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 03. 29.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표창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2013. 08. 12.	농민신문 보급부수 최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13. 11. 01.	2013 공선출하회 우수조직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3. 12. 31.	하나로마트 200억 원 매출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 04. 01.	2013 NH농협생명 연도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6. 08. 10.	농민신문 보급부수 최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17. 08. 10.	농민신문 보급부수 최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18. 08. 14.	농민신문 보급부수 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20. 02. 21.	상호금융대출금 3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0. 12. 24.	상호금융예수금 5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03. 18.	우수조합장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03. 18.	2020 종합업적 최우수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광양농협 수상 명세

일자	내용	수여자
2021. 05. 13.	2020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08. 02.	상호금융대출금 5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11. 18.	공적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1. 08.	2021 상반기 우수생산자조직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2021. 11. 23.	농민신문 보급부수 우수	농민신문사 회장
2022. 01. 04.	금융자산 1조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02.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03. 29.	2021 종합업적 최우수(준농촌형 1그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06. 10.	상호금융예수금 6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12. 05.	상호금융대출금 6천억 원 달성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12. 31.	2022 종합업적 최우수(농촌형 1그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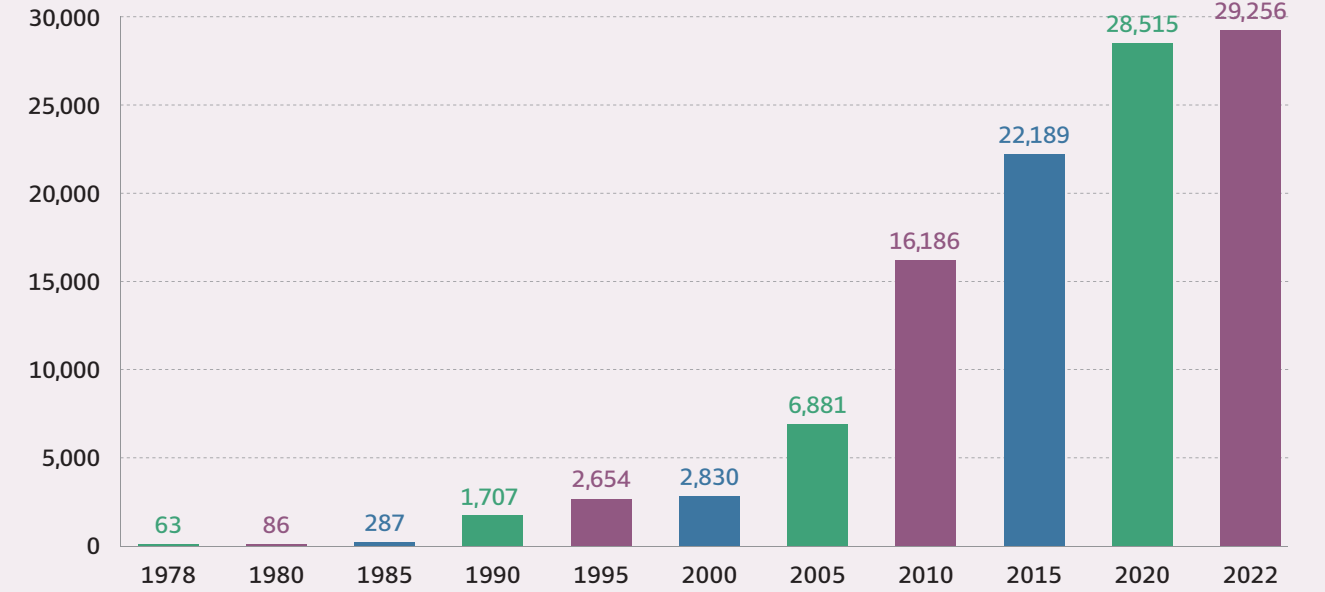
구매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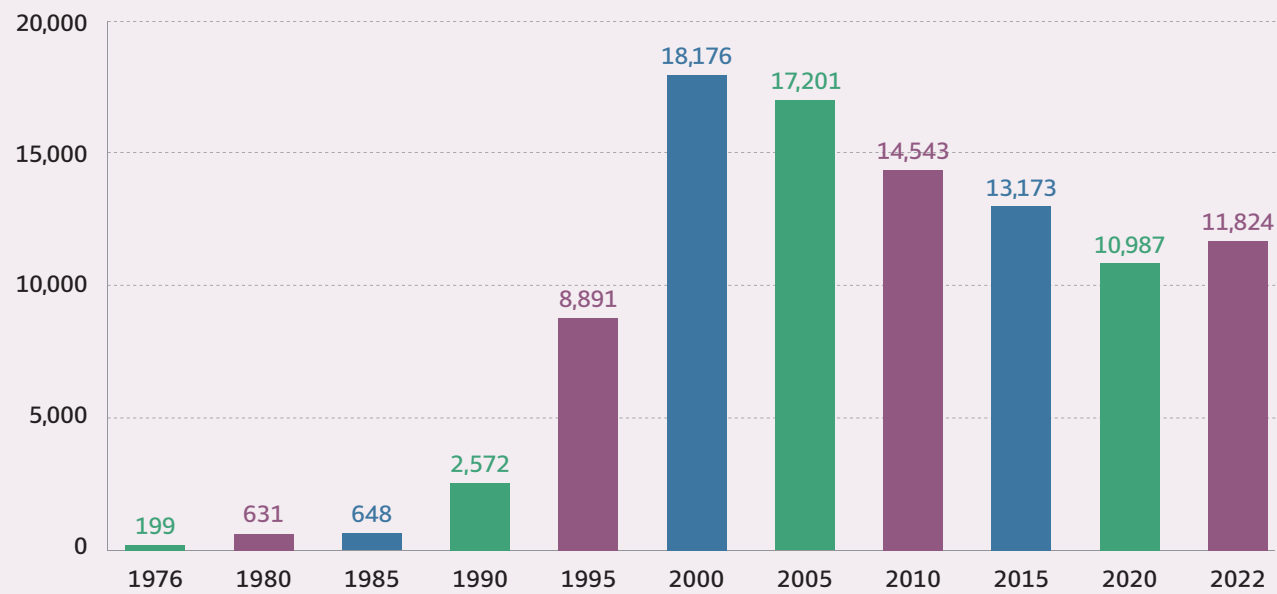
생활물자·마트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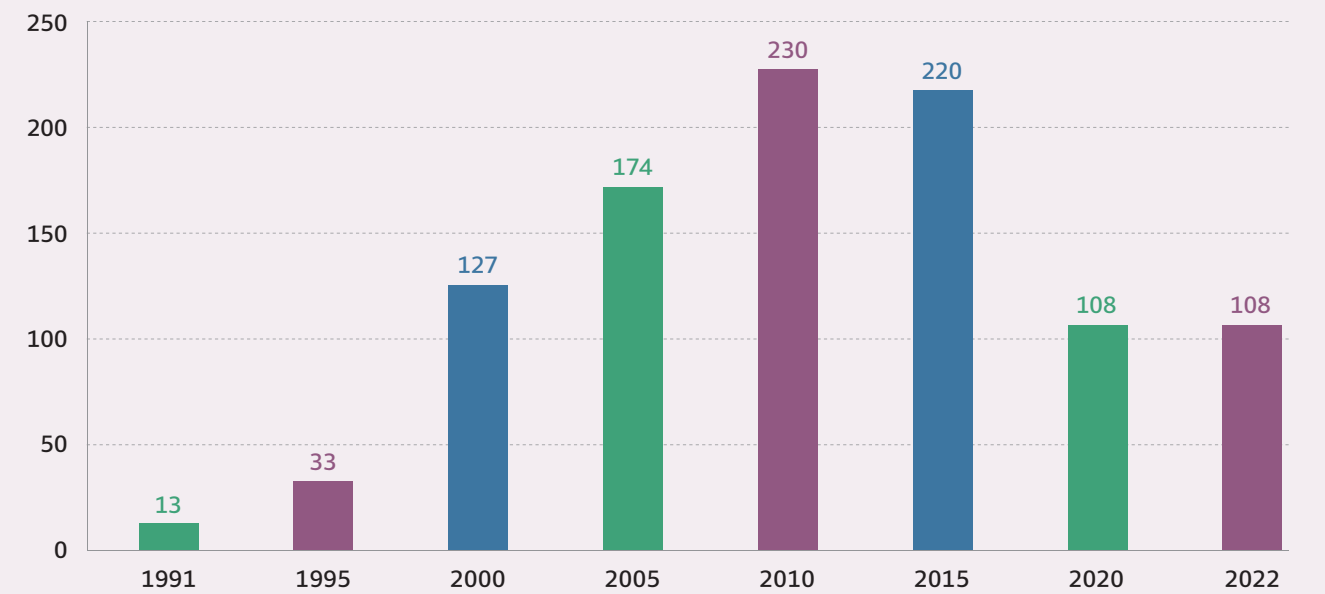
판매사업 추이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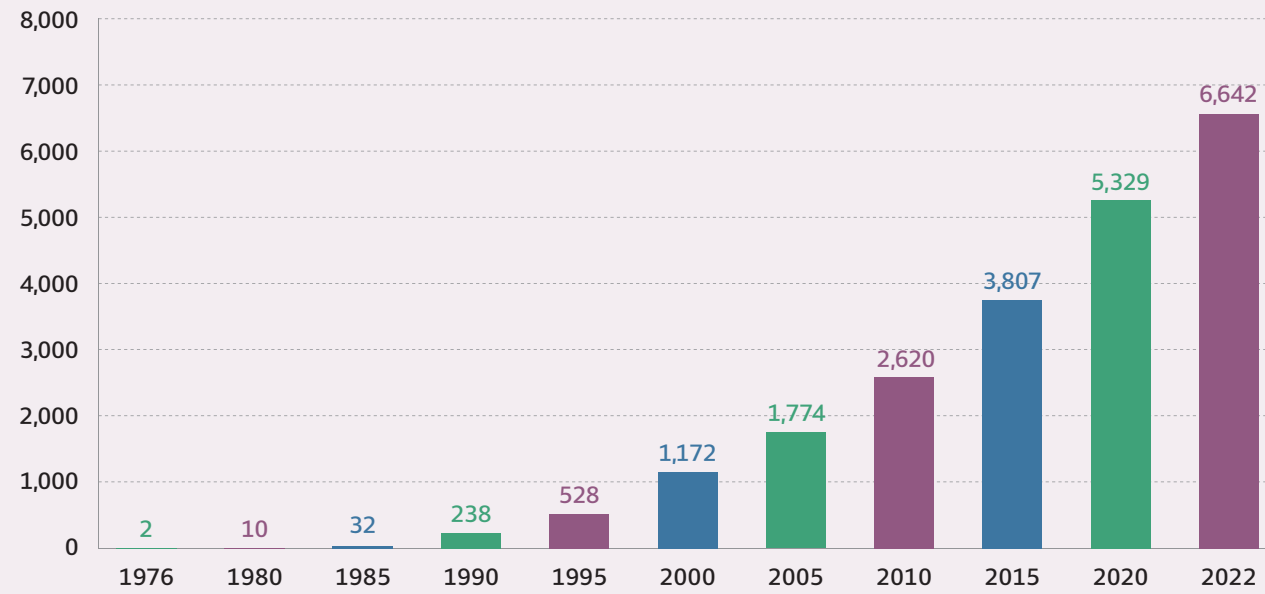
보험료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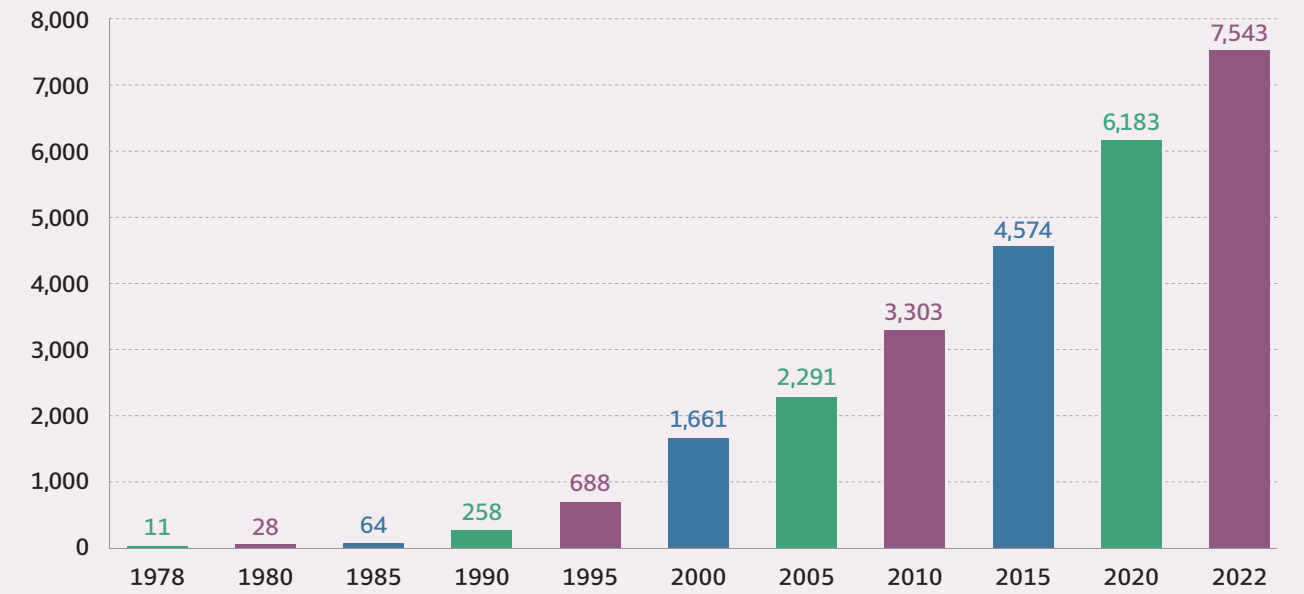
상호금융예수금(잔액)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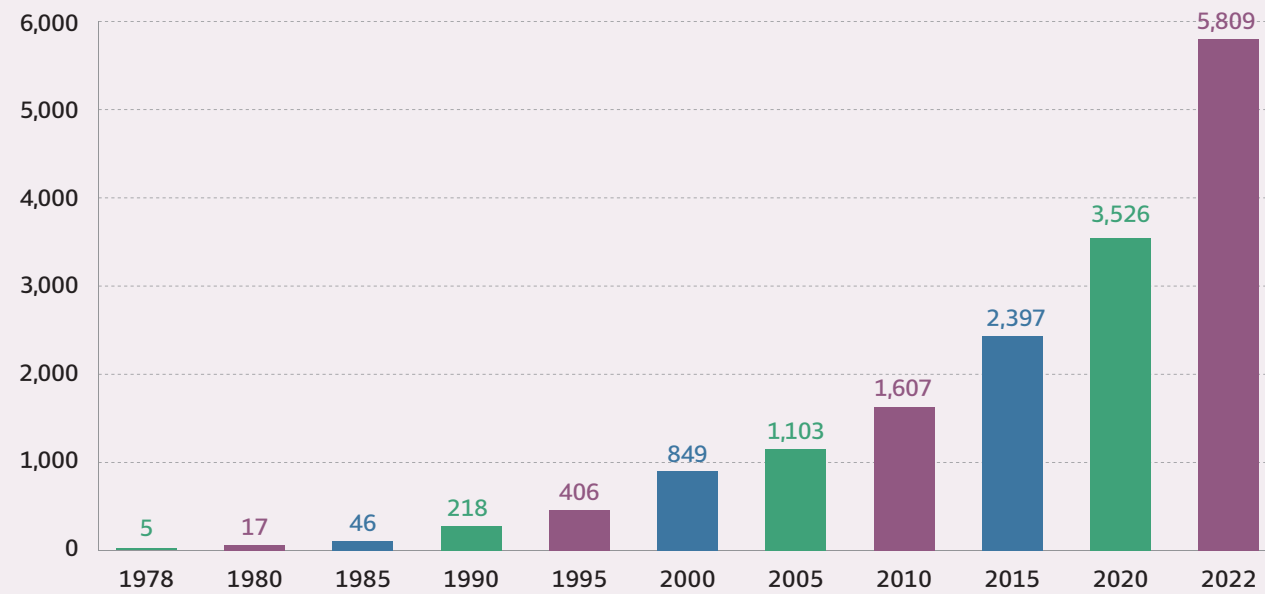
총자산 추이

(단위 : 억 원)



대출금(평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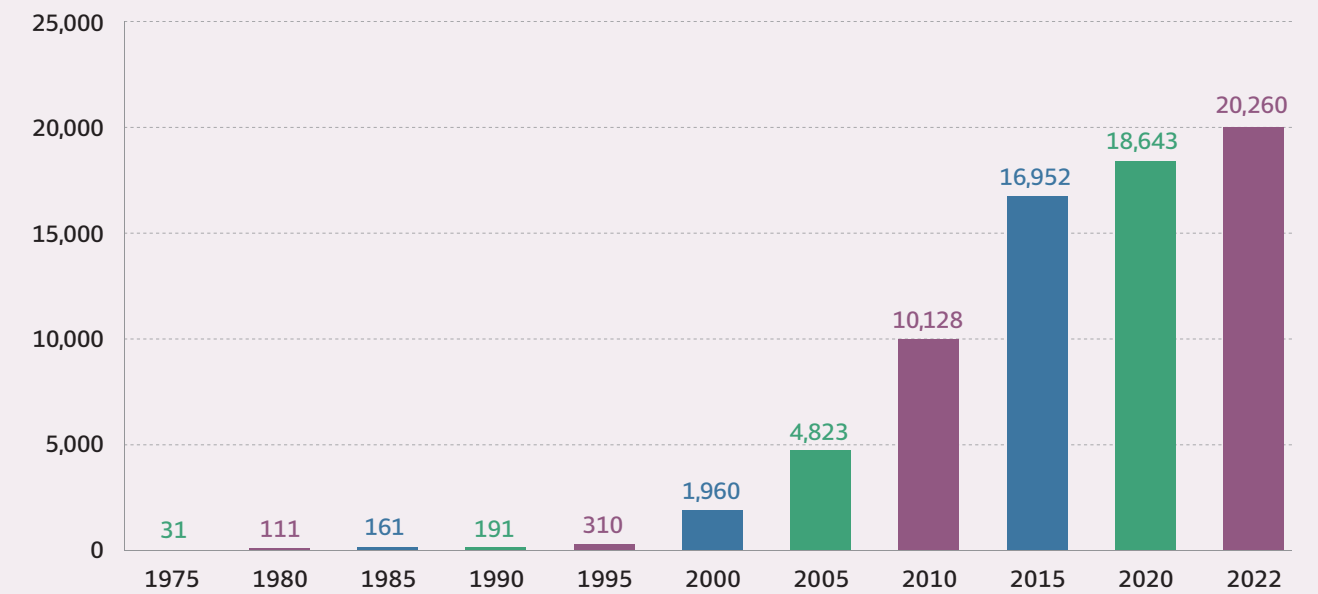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상호금융대출금과 정책자금대출금의 합계임.

납입출자금 추이

(단위 : 백만 원)



언론 지면에 비친 광양농협

농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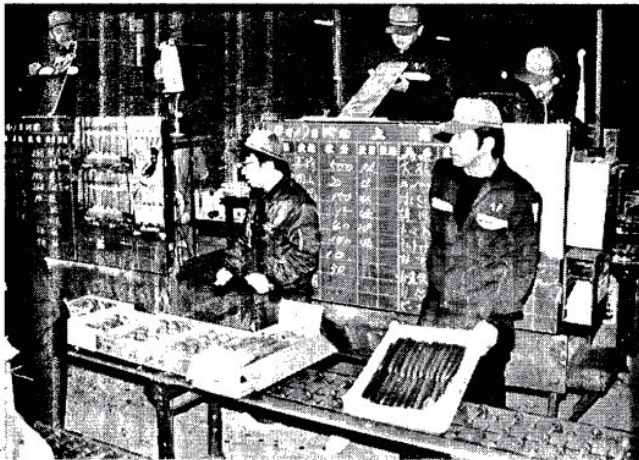
1999년 3월 5일

‘광양오이’ 일본시장 직상장 정착 클레임 없고 농가수취값 높아

일본 도매시장내 오이 상장 경매 수출이 단가계약 형식보다 농가수취값이 높고 단 한차례의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일본내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과채류 가격이 사상 유례 없이 낮게 형성된 지난해말부터 1월말까지의 기간중에도 전남 광양농협의 <광양오이>는 상품기준 5kg 한상자당 최고 2천8백엔까지 경락, 일본산에 버금갈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

광양농협은 2월24일 2층 회의실에서 일본 히로시마와 후쿠오카 도매시장 관계자와 수입상, 재배농가 대표, (주)전남 무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직상장수출평가회에서 오이 수출규모는 첫 선적된 지난해 11월15일 이후 2월말까지 6백55t, 10억5천여 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가격은 10kg 한상자당(상품기준) 평균 1만6천8백42원씩으로 같은 시기 단가계약 형식으로 수출한 다른 지역산 1만5천~1만7천원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상장 수출된 ‘광양오이’가 단가계약 방식보다 농가수취값이 높고 클레임도 없는 등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상장경매 수출방식이 일본시장내 반입물량이 급증하면 수출이 중단되거나 여러차례 클레임이 발생해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단가계약 수출방식과 크게 대조적이라는 것.

<광양오이> 직상장수출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에 연동하는 수출가격으로 시황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단점이 있지만 도매시장 및 수입상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가계약 수준이상의 최저

가격을 보장받을수 있어 농가의 손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히로시마중앙청과 오마에 과장은 “<광양오이>는 일본 도매시장에서 때때로 일본산 최고급품보다 높은 값에 경락될 때도 있다”며 “신선도와 품질·빛깔은 물론 선별·포장 등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최익주>

◆ ‘광양오이’ 일본시장 직상장 정착

농민신문

2006년 2월 13일

광양농협, 전국 최우수 조합 ‘우뚱’

전국농협 종합업적 평가 전남지역 최초 선정 ‘영예’ 작년 총사업 5천억 달해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이덕재)이 농촌형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업적평가에서 전남 농협 사상 처음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됐다. 광양농협은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경기·충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크고 작은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

특히 광양농협은 지역 내에 대형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없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하나로마트를 신축, 개점일 매출이 2억원을 넘어 단위면적당 하루 매출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양농협은 2005년산 추곡 전량을 1등급 가격 이상으로 수매하고 농협주유소 개점 2년 만에 챔피언주유소로 등극해 하루평균 1,7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국농협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차지한 광양농협은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직원 업



이덕재 광양농협 조합장(오른쪽 두번째)이 하나로마트를 찾는 농민·소비자와 함께 광양쌀을 홍보하고 있다.

무능력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로 옥룡농협과 합병 의결을 이끌어냈으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 당기순이익 2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은 열과 성을 다해 농협을 이용한 모든 조합원에게 9억원어치 농산물 상품권을 환원해 조합원들의 노고에 보답했다.

광양농협은 이번 평가가 조합원들에게는 1등 농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업 또

한 더욱 번창해 조합원 삶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재 광양농협 조합장은 “전직원이 나서 조합원 삶의 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힘쓴 결과, 전국 최우수 조합이라는 큰 선물까지 받았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광양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예수금은 1,774억원이며 총 사업량이 5,000억원에 달한다. 광양=임정순 기자 limtech@nongmin.com

◆ 광양농협, 전국 최우수 조합 ‘우뚱’

언론 지면에 비친 광양농협

농민신문

2019년 7월 19일

‘벼 저장시설’ 건립... 농가실익 높여

광양농협, 경제사업 증대 박차
조합원 구매 대기시간 단축
벼 판로확보 등 도움 줄 듯
일일 명예점장제 도입 등으로
하나로마트사업 활성화도 꾀해



허순구 전남 광양농협 조합장(오른쪽 두번째)이 광양읍 세풍리의 벼 저장시설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이 농가실익 증대를 위해 벼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하나로마트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사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양농협은 벼 건조·도정 시설은 갖추고 있었지만 저장시설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농협에서 1km 떨어진 창고에 벼를 보관해야 해서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조합원의 불편이 컸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양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 지원으로 모두 19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일로 6기, 저장창고, 톨백계량기 등을 갖춘 저장시설을 짓고 있다.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8월 중순쯤이면 우리 농협의 숙원사업이었던 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서 “벼 판로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광양쌀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로마트사업을 활성화해 도시 소비자와 지역농민이 상생할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광양농협은 먼저 ‘일일 명예점장제’를 도입했다. 마을 영농회장과 부녀회장을 하루 동안 명예점장으로 위촉하고, 이 들로부터 하나로마트의 장단점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 광양농협은 일일 명예점장들의 조언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허순구 조합장은 “명예점장으로 활동한 이들이 한결같이 지역농산물에 대한 판매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

서 “이를 반영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양농협은 7월말까지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산기반을 빠르게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직매장 취급품목을 기존 마트의 200여개를 포함해 300여개로 늘려 중소농의 소득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허 조합장은 “광양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로컬푸드를 취급할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중소농을 키우고,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판매농협’을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이문수 기자

◆ ‘벼 저장시설’ 건립... 농가실익 높여

농민신문

2020년 10월 23일

로컬푸드직매장 성장세... 농가소득 쑥쑥

탐방 선도농협 광양농협

신선농산물 한곳서 구입
안전성·편의성 높아 호응
출하농가 안정적 판로 확보
1년 만에 매출액 20억 훌쩍
참여농 증가·정부 예산 확보
가파른 사업 성장 기대감도



허순구 전남 광양농협 조합장(가운데)이 하나로마트 본점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출하농가와 함께 농산물을 들여 보이고 있다.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 로컬푸드직매장은 광양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이곳의 쾌적한 쇼핑 분위기와 신선한 지역농산물이 소문이 나면서 장을 보러 나온 이들의 필수 방문지가 됐다. 오경현 광양농협 지도팀장은 “지역 농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다는 쇼핑 편의성에다 식품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경향이 겹쳐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양적 성장은 눈부시다. 직매장 문을 연 지 약 1년 만에 출하농가 매출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 광양농협은 지난해 10월 하나로마트 본점과 용강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새롭게 단장해 소농·영세농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로컬푸드

의 가치를 부각한 것이 주효했다. 요즘 가을 딸기를 생산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수진씨(37·봉강면 석사리)는 “꾸준한 출하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판로를 열어준 광양농협 덕분에 농사지를 맞이 한다”고 말했다. 광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성장세

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점 초기 200명이던 출하자 조직은 현재 500여명으로 늘어나며 안정적인 작부 체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ATF(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광양농협은 이를 활용해 용강점 시설비와 자재 구입비로 쓰고 매장 면적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용강점 인근에 아파트 신축이 활발한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 용강지구에 3732세대 단지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5018세대 단지가 추가로 지어지면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순구 조합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금융·경제 점포의 동반성장까지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예산으로 세련된 매장 분위기와 편리한 쇼핑 동선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이문수 기자

◆ 로컬푸드직매장 성장세... 농가소득 쑥쑥

언론 지면에 비친 광양농협



◆ 종합업적평가 3연패 위업

편찬 후기

‘광양농협 50년사’를 발간하며

광양농협 50년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오로지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보듬고 위로해 주던 우리 조합원님들의 사랑, 선대 조합장님과 임직원들의 열정과 발자취를 정성껏 담아 여기에 고스란히 녹여 보냅니다.

광양농협이 걸어온 길은 작은 묘목이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꿈을 심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늘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묵묵히 광양농협은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광양농협 50년사’는 지난날 우리의 치열했던 노력의 결과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발전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자랑스러운 광양농협이 원로 조합원들과 선배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양농협의 50년 역사와 함께했던 그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광양농협 50년사’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광양농협 50년사’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걸어온 발자취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우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희망찬 미래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표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양농협 50년사’가 출간되기까지 소중한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일들까지 세세하게 증언해주신 원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광양농협 50년사’ 편찬위원 일동

광양농협 50년사 편찬위원회

- 위원장 허순구 조합장
편찬업무 전반
- 부위원장 김상완 상임이사
편찬실무 지휘
- 위원 박준형 상무
경영관리
- 배승호 상무
지도유통(간사장)
- 오경현 지점장
중부지점장
- 정선화 과장
여성복지
- 이노영 과장
기획
- 강준영 과장
총무
- 이병길 과장보
지도(실무간사)

※ 이 책자의 일부 사진 및 문헌 자료는 농협중앙회, 농민신문사, 광양시(광양시지)의 협조로 수록하였습니다.

농업인을 빛내고 농촌을 밝혀온 반세기

광양농협 50년사

인쇄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허순구

발행처 광양농업협동조합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목성리)

전화번호 061-760-2233

홈페이지 <http://www.광양농협.kr>

기획제작  농민신문사 (전화 02-3703-6097)

집필 김흥선

사진 김흥준

디자인 지오커뮤니케이션

인쇄 00000
